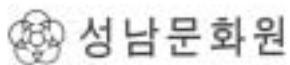


성남향토문화총서 1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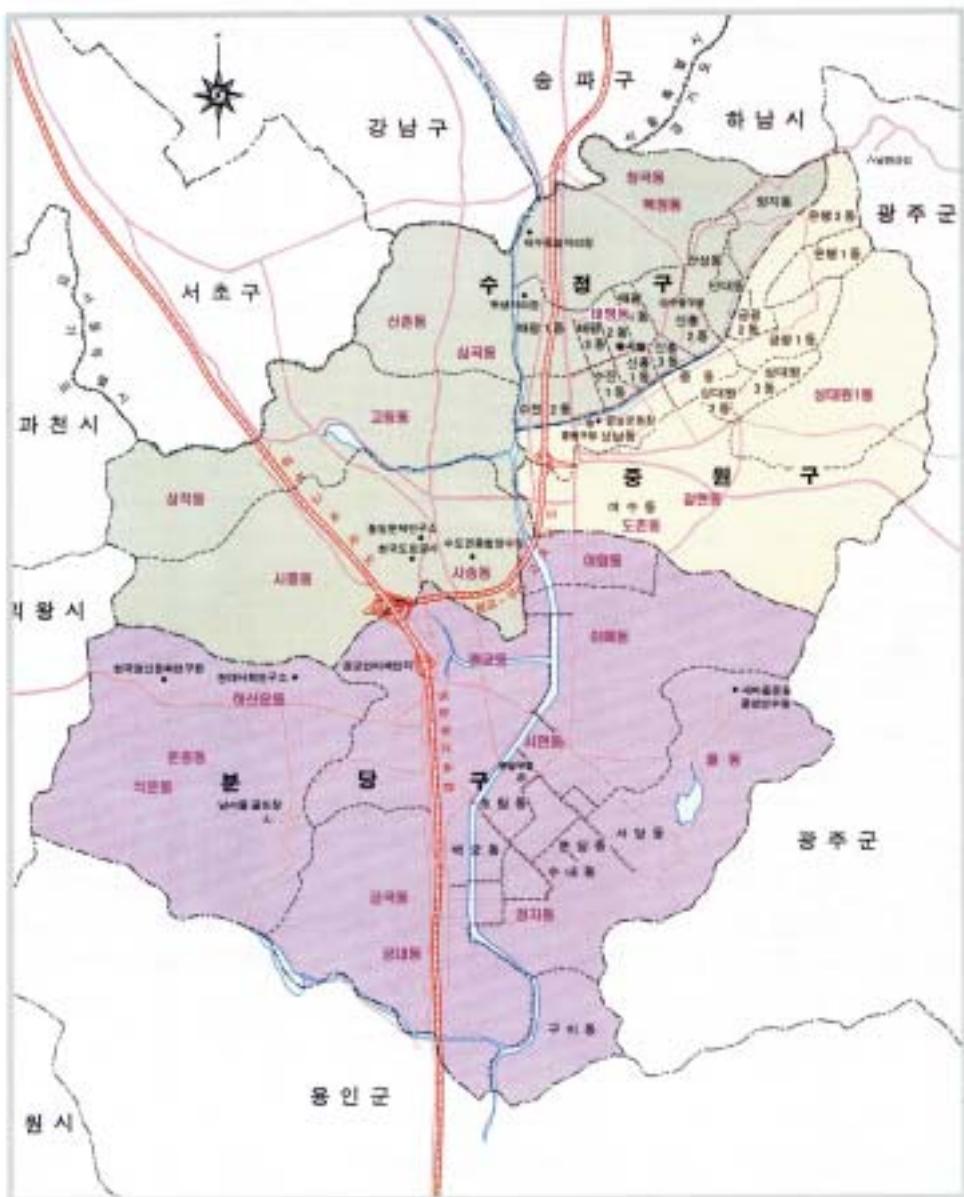
- 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 -

장철수·조병로



성남문화원

성남시 민간신양 분포지역



■ 차례

11 / 제1편 조사 개요

17 / 제2편 마을신앙

17 / I.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미

21 / II. 수정구의 마을신앙

55 / III. 중원구의 마을신앙

63 / IV. 문당구의 마을신앙

90 / V. 조사 결과의 분석

97 / 제3편 가정신앙

97 / I. 가정신앙의 성격과 의미

101 / II. 수정구의 가정신앙

143 / III. 중원구의 가정신앙

151 / IV. 문당구의 가정신앙

193 / V. 조사결과의 분석

199 / <부록> 섬남지역 민간신앙 일람표

제1편 조사개요

1. 조사연구의 의의

2. 조사 일정 및 연구의 과제

제1편 조사 개요

장철수·조명로*

1. 조사연구의 의의

오늘날의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조선시대의 광주유수부(廣州留守府), 일제 시대를 거쳐 해방전후 시기에 이르러 광주군에 속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옛 광주군의 다른 지역들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생활권 역시 광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전통문화의 전개 양상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남시로 분리,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일반적 도시화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었다.

현재 성남시는 나날이 증가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업단지의 건립으로 마음의 모습과 주택구조가 급격하게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건설로 지역사회의 균형적 성장을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한편, 지역의 사회적 및 생태적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 방식으로 생활해 온 자연마을들의 해체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통적 생활기반을 파괴하였다.

즉, 이러한 변화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 중심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온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의식을 크게 변모시켰다. 성남시민들은 그들의 공동체적 지역생활에서 형성된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서 단절됨으로써 문

* 장철수 : 전 한국생신문화연구원 교수, 작고
조명로 : 경기대 인문학부 사학과 교수

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생활에 대한 부관심으로 이어져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2의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판교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지역 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양상을 점점 더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개선 있는 지역생활의 전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그 문화적 전통의 재발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전통은 역사상의 지속과 변화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변화의 자취를 살펴야 한다. 마을과 도시 외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살피야 제대로 그 전통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 종교활동인 민간신앙이다.

민간신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함께 내리오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 생활의 결과물로, 대다수 한국인의 삶에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의 기초를 이루으로써 한국인의 일상생활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생활활동, 자연환경 및 생태적 조건과 맷 수 없는 관련을 가짐으로써 그 전개 양상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크게 마을 단위의 공동체신앙과 각 집 단위로 행해지는 가정신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 가정신앙은 주택공간의 각 부분에 과정해 있으면서 그 공간과 관련된 구체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가신(家神)들에 대한 신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흔히 가신신앙으로 불린다. 이 두 단위의 신앙은 구체적으로는 해당 신에 대한 제의(祭儀)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민간신앙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생활단위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성남시에서 마을 단위로 행해져 왔던 공동체의례와 마을마다 각 팀 단위로 행해지는 가정의례를 통해 전승되어 온 민간신앙의 내용을 조사 연구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생활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성남시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적 유대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역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너무나 번해버린 상황에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예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생활문화를 너무 늦기 전에 발굴해 낸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의 기억 속에 묻힌 빛 바랜 민속문화를 고집어내서 그들의 시대적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현대의 변화된 조건 속에서 살아있는 전통으로 가끔으로써 세대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게 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조사 일정 및 연구의 과정

본래 이 조사연구의 시작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故) 장철수 교수가 날한 산성을 중심으로 한 옛 광주군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작업의 하나로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이 성남문화원의 성남지역 향토사료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2년여 동안의 작업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았던 장철수 교수가 자병으로 작고하게 되자 책임연구원을 조별로 교수로 교체하여 연구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밟힌다. 누구못지 않게 성남지역의 향토문화연구에 열정을 보여주었던 故장철수 교수의 명복을 빈다.

조사연구단과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책임연구원 :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 현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연구원 : 김더목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유승훈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안혜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과정)

방인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

원보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

임원순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조사일정

사전 조사 및 정리	: 1999년 10월 15일 ~ 1999년 12월 31일
1차 조사 및 정리	: 2000년 10월 1일 ~ 2000년 11월 23일
2차 조사 및 정리	: 2000년 12월 10일 ~ 2001년 1월 30일
원고 작성	: 2001년 2월 1일 ~ 2월 7일
원고 편집 및 교정	: 2001년 2월 12일 ~ 2월 15일
보고서 인쇄 및 제출	: 2001년 2월 20일

성남의 마을공동체 의례와 가정의례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문화변동 속에서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절되었던 의례가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되살아난 경우도 있다. 이 조사연구는 기본적으로 성남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견 관찰을 위해 노력했으나 조사 인력의 한계와 조사 일정의 조절 문제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때문에 주민들의 면접자료에 의존한 바가 많았는데, 토박이 원주민 제보자를 만나기 어려운 마을이 많아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지조사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번거로운 조사에 성의껏 도움을 준 많은 성남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올해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성남시의 민간신앙 조사연구를 지원해 주신 김병랑 시장님, 박용두 시의회의장님과 막은 성남문화원장 직무대행에 감사를 드린다.

제2편 마을신앙

I.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미

II. 수정구의 마을신앙

III. 중원구의 마을신앙

IV. 중원구의 마을신앙

V. 조사 결과의 분석

제2편 마을신앙

1.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미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민간의 신앙생활은 무(巫)라는 전문 사제자에 의한 종교활동인 푸속(巫俗)을 제외하면, 크게 마을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 신앙과 그 마을 내 개별 가구마다 각각 집의 무사함과 농묘를 기원하고 감사하는 제의로 표현되는 가정신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때 가정신앙은 일반적으로 가신(家神)이라고 불리는 신들에 대한 신앙과 제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가신신앙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두 제의(祭儀)는 모두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신앙 활동은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농업력(農業歷)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세시행사(歲時行事)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을신앙과 가신신앙 모두 마을과 집을 수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제의를 통해 표출되는데, 이러한 제의는 대개 일 년에 두 차례 즉, 절월단과 가을 추수 후인 10월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제의의 일반적 명칭은 한자 식으로 표현하면 동제(洞祭)이다. 마을 단위로 행해진다는 점에 주목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을제사, 동제사, 마을고사' 등으로 불린다. 한편, 제의 대상 신에 주목해 물리는 명칭은 '산신제, 산제, 서낭제, 도당제, 장승제' 등이며, 제의 방법을 고려하여 '도당굿, 마을고사, 동제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분류의 기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마을 제의는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치르는 행사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촌락으로서 다른 마을과 지리적으로 격절(隔絕)되고 외부 세계와 그다

지 접촉이 크지 않았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혼락의 문영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던 전통사회에서 마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을이 마을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물리적 우주로 인식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마을마다 그 어떤 힘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을 내의 자연과 인간사 모두를 주관하는 신이 존재한다. 이 통신(通神)은 바로 마을이란 우주 공간의 주체자로서, 동신을 모시는 마을 제의의 모습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대한 인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을골동제 제의에는 주민들이 자신들을 공통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공동운명체로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마을 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담겨있다. 따라서 마을제사는 오랜 세월 전승된 우리 고유의 여러 신들에 대한 종교적 의례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상징적 메카니즘으로서 작용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동체 제의는 마을주민 모두의 필요에 의해 유지, 계승되는 것이고, 만약 이 공동의 필요를 험성하는 조건에 변화가 생긴다면 마을 단위의 제의 행위 역시 그 내용과 전승에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성남시는 마을의 변동이 심하고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여 전통적 마을 개념이 변질되고 마을의 동질성이 소멸된 곳이 많다. 또한, 기독교를 포함하여 한 마을 내 여러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전통적 양식의 제의에 대한 마을 공동의 필요성 역시 거의 희박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 제의들은 몇몇 마을들을 제외하면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전승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제의의 원자는 간소화되고 있으며, 제관(祭官)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제의 과정 동안 지켜야 하는 금기(禁忌)의 갈도도 과거에 비해 훨씬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와 경향이 작용하여 전통적인 제의 행위에도 간편화의 추세가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정구의 마을신앙

- 고등동 (등자리)
- 상적동 (옛골)
- 사송1동
- 사송2동
- 시흥동 (모랫말)
- 심곡동 (깊은골)
- 태평동
- 신촌동

II. 수정구의 마을신앙

1. 고등동 등자리¹⁾(진승)

1) 명칭, 유래와 역사

등자리 등제의 명칭은 산제(山祭)이며, 아주 오래 전부터 전래자 내려와 현
제도 지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약 45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계관을 선출하여 산제(山祭)를 지내는 형식이었지만, 그 후 산제당
옆에 절이 생기면서부터 마을회의에서 결정하여 절의 승려에게 맡겨 전승되
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제당은 마치 절 뒤에 부속되어 있는 산신각(山
神閣)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2) 제당(祭堂)의 위치와 형태

마을의 날쪽으로 그리 높지 않은 '산제마신'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다. 이 이름
은 아마도 산제를 지낸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어귀에서 흰쪽으
로 약 300m 정도 걸어가면 용천사(그 전에는 '대운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라는
절이 있고, 그 위에 약 50미터 가량 올라가면 '산제당'이라 불리는 담집이 있다.

집만에서 돌로 나란히 놓아 두 개의 단을 쌓고 당집을 지었는데, 정면은
340cm로 약 한 칸 반 크기이며, 측면은 250cm로 한 칸 규모이다. 현재 바깥벽
은 시멘트가 발라져 있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다. 1999년까지 이곳은 슬레이
트 지붕에 안쪽 벽은 출단 벽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슬레이트 아래로는 예전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싸과 대로 위은 산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봄에 마을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다시 지어 바깥벽은 시멘
트로 깔끔하게 마감했고, 문 역시 새로 달았으며, 안쪽은 베개와 창판으로 마
무리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산제당이 너무 오래되어 허물어져 가기 때문
에 1999년 산제 때는 절 옆의 우물로 '내려 모셔서' 채를 지냈다고 하는데, 새

1)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3일, 2000년 11월 26일
제보자 : 이종찬(남, 77세), 김은순(여, 76세), 이순희(여, 70세)

로 제당을 짓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당집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서쪽) 벽에 산신도가 걸려 있는데, 이 산신도의 크기는 가로 130cm, 세로 93cm이며, 오른쪽 아래편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산신도가 언제부터 걸리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산신도 아래로는 작은 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의 높이는 80cm, 깊이 120cm, 폭 70cm로, 위에는 향로와 초가 놓여 있었다.

3) 의례내용

(1) 제일(祭日) 및 준비 과정

절에서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제의를 준비하고 치르는 형태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우선 제일(祭日)과 시(時)는 예전의 경우 음력 11월 1일 0시에 치러졌다고 했는데, 현재에는 음력 11월 2일이나 3일, 이를 중에 승려가 좋은 날을 받아서 낮 12시에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2차 조사 때인 2000년에는 음력 11월 1일 오전 7시에 지냈다. 또한, 산제의 주관을 예전에는 제관(祭官)으로 뽑힌 주민이 직접 했으나, 현재는 마을 주민들이 제수를 마련하고 절을 지키는 보살의 주관 아래 행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산제를 지낸 때는 세사 지내기 전인 시월 그믐쯤에 마을회의를 거쳐 제비(祭費)와 제관을 선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 때 제관으로는 마을 주민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서 부정(不淨)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으로 청했다고 한다. 이때 깨끗한 사람의 기준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살(喪)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아이의 출산도 없어야 하며, 또한 최근에는 수술한 적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목욕제게하고, 비린 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부인과의 잠자리도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적용되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근신하는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가 제일이 선정되고, 산제가 끝나는 2, 3일 동안은 외부로의 외출을 삼가고, 아파도 침도 맞지 않고 참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제관 집 앞에는 '인풀'이라 불리는 금줄을 두르고, 대문 양쪽으로 황토(黃土)를 놓아 신성한 공간

임을 표시한다. 제당에는 별다른 표식은 하지 않고, 제일 하루 전에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가서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한다고 한다.

음식준비는 마을의 부녀들이 제관의 집에서 함께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제기(祭器)는 제관 집의 것을 주로 이용하고, 마을 공동으로 쓰는 그릇은 없다고 한다.

예전에 행해졌던 이러한 준비과정이 지금은 절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많이 생략되었다. 특히 제관이 보살로 바뀜에 따라서 주민들의 역할은 단지 돈을 모아 음식을 준비해서 부탁자도서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음식 준비는 마을의 부녀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마을회의를 통해 추첨 백수를 정하여 돈을 걷고, 제일에 당첨에 가서 함께 제를 올리는 정도이다. 그러나 절에 휘단을 하기는 해도 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제물을 옮기고 나누는 과정에서 예전과 같은 역할을 도맡아 한다. 또한 산제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부정을 타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며, 모두 새벽에 목욕을 하고 제당에 올라와야 한다는 규칙사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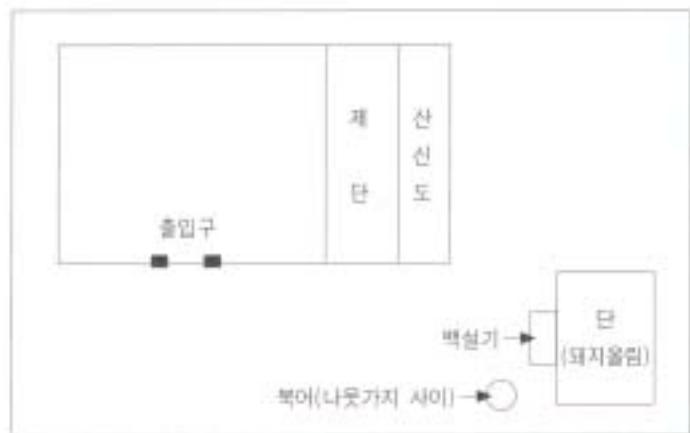
(2) 제의 절차와 내용

예전에 제를 지내기 위해 제관들은 집에 있던 깨끗한 한복을 입고 산에 올랐다고 한다. 세사 지낼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데 단, 부장을 단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주민들 말에 따르면 '자신이 알아서 근신한다'고 한다. 제의 절차는 우선 제관이 저집 제수를 진설하고, 술을 따라서 올린 다음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의 축문을 읽고, 소지한다고 한다. 이때 소지는 쌀이나 돈을 거둘 때 써어놓았던 병단을 보고 한 걸 냥 대주²⁾으로 하나를 올리고, 다음에 집을 떠나 있는 가족용으로 하나씩을 따로 따로 올린다고 한다.

절에 위탁한 후에 변한 것은 주민들 중에서 선출했던 제관 대신 보살이 제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보살은 산신의 이름을 '산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산제를 지내는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제당 주변의 부정을 물리기 위해 청수(淸

2) 일반적으로 그 집의 가장을 가리킨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이 그 집의 기둥이므로 대주(大主)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본다.

水)를 뿌린다고 한다.



<그림 1> 동자리 신체당 배치도

2000년의 경우 오전 7시가 되어 마을 주민들이 제물을 준비해 절로 올라오자, 본격적으로 산제가 진행되었다. 제물을 계당 앞으로 옮긴 뒤, 부녀회 임원들이 계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나면 보살이 경(經)을 외우는 것으로 제의가 시작된다. 제의 중간에는 주민들 모두 향을 하나씩 들고 계당 주변을 돌면서 '음 한례 우리 마을을 잘 보살펴 주십사'는 내용을 기원한다. 제의가 끝나면 '사자밥'으로 계당 주위에 제물을 던져주고, 이어서 소지를하는데, 우선 마을에 대한 소지를 올리고, 다음으로 참가한 아들과 그 가족에 대해 한 사람씩 소지를 올린다. 그 후에는 참가한 사람들끼리 간단히 차려놓은 제물로 음복을 하고, 모든 제물을 마을회관으로 옮긴 다음 추경을 한 킵김마다 나누어 가지고 가서 음복한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예전에는 쌀을 한 말씩 추령하여 제물을 마련했으나, 절에서 막은 후로는 돈을 걷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0년 올례에는 각 김 달 15,000원을 거쳤는데, 다른 지역에 분가한 자식들의 몫까지 추가로 내서 자녀들도 축원하기도 한다. 제물로 예전에는 통돼지와 백설기 한 시루, 과일 등을 올렸는데, 돼지는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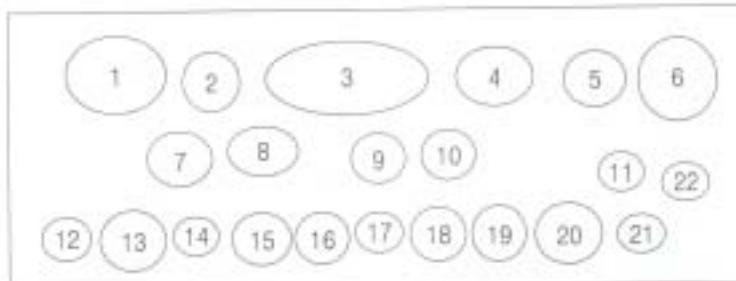
체로 살아 내장도 끼내지 않은 채 제상(祭床)에 올렸다고 한다. 통돼지를 마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머리로 대신하기도 했는데, 이 때는 제물의 양이 적어 나눠먹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산제가 끝난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다고 한다.

2000년에는 제당을 새로 치으면서, 통돼지를 준비하여 매우 푸짐하게 제물을 마련했다. 우선 제단에 올라간 제물에는 백설기, 과일(감, 밤, 대추, 배, 사과), 삶색나물, 까자, 육수(불), 소주, 꿀 등을 올렸고, 주변에는 불교식 제의에 영향을 받아 치화(紙花·종이꽃), 향, 초, 목탁 등이 놓았다. 제당 밖에 마련된 널찍한 단에는 내장을 뺏은 통돼지를 올려놓고, 그 앞에 백설기를 놓았다. 산제가 끝나면 이 제물들을 마을의 넓은 바탕으로 가져와 깜깜마다 품을 나눠 음복을 한다. 2000년, 산제와 관련한 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통자리 산제 경비 내역 (2000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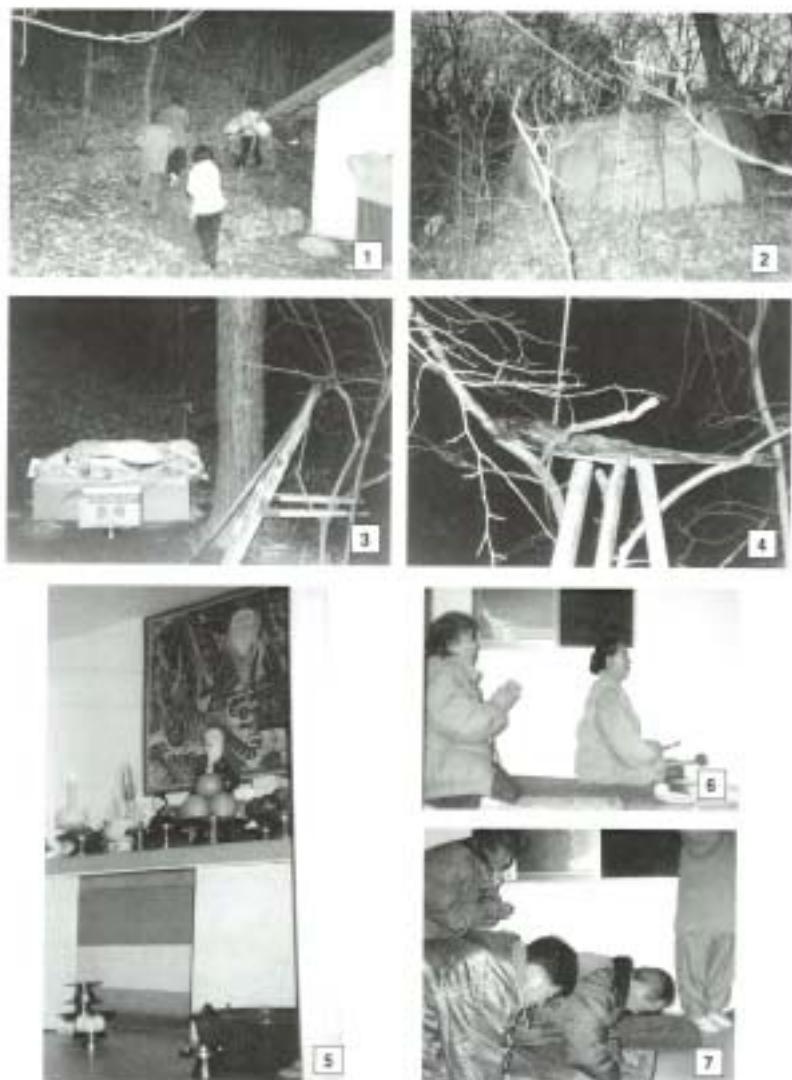
수 일	지 출
총 32 가구 (가구 당 15,000원)	통돼지 : 180,000원 백(백설기) : 35,000원 꿀(10kg) : 25,000원 과일 및 나물 : 111,500원 풀에 시주 : 50,000원
소 계 : 480,000원	소 계 : 401,500원
	잔 액 : 78,500원

<그림 2> 통자리 산제 제물 진열도



1. 치화(종이꽃) 2. 통자리(像) 3. 신선과 호랑이 상(像) 4. 백설기 5. 꿀 6. 꽃(생화)
 7. 삶색나물 8. 까자 9. 매(암) 10. 육수(물다기며 담음) 11. 초 12. 목탁 13. 감(7개)
 14. 초 15. 빙 16. 향 17. 찬(3개) 18. 대추 19. 배(7개) 20. 사과(7개) 21. 찬 22. 소주(3병)

등자리 산제 과정



①제단으로 미동 ②제단의 모습 ③산제 열 제단 위의 대지와 지개 ④복어 끌린
⑤제단내부 산신도와 제단위 진설 ⑥보살의 축음 ⑦제권들의 절



③④당집풀기 ⑤⑥소지품은 ⑦⑧사자발주기 ⑨⑩시차법 ⑪⑫마을 사람들과 쟈움을 나누고 있다

2. 상적동 옛골³⁾(전승)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는 '여사대회'를 매년 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각 집마다 지금도 가을고사도 대부분 행하고 있으며, 고사를 지낸 후 이 웃과 떡을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마을 골동 상여를 보관해 왔는데, 마을의 상여집은 20년에 없어졌다. 지금은 잘의사에 부탁해서 1회용 상여를 사용한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동제(洞齋)의 명칭은 '산신제'라 한다. 청계산 자락 바로 밑에 있는 옛골 사람들은 산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텔없이 지낼 수 있게 차성 드리는 의미에서 예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산신(山神)을 위한 도당굿⁴⁾을 했는데, 일제시대부터 굿은 없어졌고, 그 이후로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는 산신제로 간략하게 변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동제의 유래를 200년 전부터로 보고 있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옛골은 청계산 자락에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옛골의 산신제터는 청계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다. 등산로를 따라 약 15분간 오르다 보면 원판으로 5m 정도 되는 거리에 경사진 터를 닦아 단을 형성한 산신제 터가 보인다. 두 개의 높은 단이 형성되어 있고, 단 위에 높이 약 9~10m, 둘레 110cm 정도의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소나무가 신체(神體)인 셈인데, 조사 당시에 가 보니 소나무 아래에서 2m 정도 높이에

3)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4일, 2000년 10월 29일 (참여관찰)

제보자 : 김학승(남, 77세), 지광훈(남, 80세), 홍순우(남, 현 몽팔)

4)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마을굿을 '도당굿'으로 부른다. 마을제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고식의 제사 형태와 무당을 통한 굿의 형태이다. 경기도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의 신당 대상인 둥신(洞神)을 모시고 있는 신당을 도당(道堂)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곳에서 무당제가 굿을 통해 제의를 행하는 형태가 도당굿이다.

북이를 한자로 빼서 품어 놓아 얼마전 산신제를 지낸 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이 외에도 그 옆에 터주가리가 놓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사진 지형이기 때문에 세 터에서 보면 등산로 쪽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매년 음력 10월 1, 2, 3일 중에 좋은 날을 받아 그날 저녁 7시경부터 지낸다고 하는데, 시월이 상단월을 강조하면서, 무정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 시월 중에서도 초순에 지낸다고 한다. 만약 마을에서 제일로 잡은 날을 전후로 무정(不淨)이 나면 그 때 산신제를 지내지 못한다고 한다.

2000년에는 음력 10월 3일에 제(祭)를 지냈다. 이 날은 비교적 일찍 지냈는데, 조사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담주(堂主)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자가 도착하자 미리 대기한 차를 타고 모두 제당(祭堂)으로 갔다. 제당에 도착하니 미리 도착한 일부의 주민들이 제상(祭床)을 모두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제의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이 날 제의는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하여 6시에 끝났다.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관을 선정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이들을 담주(堂主)와 부(副)당주라고 한다. 마을 주민 중에 나이에 관계없이 폐려(閑曇)을 보고 생기복덕을 가려서 좋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날 고르는 것과 당주를 고르는 것은 주민 중에 '날을 잘 보는 사람'이 뽑는다고 한다. 당주는 한 사람, 부당주는 두 사람으로 모두 세 사람을 뽑는데, 당주는 집에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부당주 두 사람은 바운 각 집을 돌아면서 추령을 하고, 물건을 준비하거나 심부름 및 허드렛일을 듣는다.

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깨끗한 사람은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부질단 사람은 스스로 가지 않는다. 당주로 선출되고 나면 목욕제게하고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조심하고 근신하는 생활을 한다. 또, 당주 집 앞에는 완제끼로 끈 인줄을 매고 활도를 대문 앞에 양쪽으로 놓아 무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한편, 당주 내외는 제사 날이 되면 사람들 눈에 띠지 않는 새마에 제당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와야 하며, 부당주들은 제사 전날 저녁 때

가서 계 터를 닦고 청소하는 등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000년에는 홍순복씨가 당주를 하였는데 당주 집 대문에 들어서니 원세끼로 인줄을 메고 황토를 팔아 놓았다. 과거에는 인줄에 푸른 솜가지와 숫, 종이를 끼웠으나 금년에는 인줄만 메고 인줄 밑에 세로로 황토 흙을 세 덩어리 갖다 놓았다. 이 날 당주 집은 혼통 잔치 김 분위기로, 마을사람들로 가득하였다. 바당에는 큰 솥을 걸어놓고 아주머니들이 고기를 삶고 있었고, 질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사에는 제의를 주관하는 당주 및 부당주 외에도 남자들 중에서 부결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한다. 전에는 제사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고 하나, 2000년에는 주민 15명 정도가 참석했다. 제주(祭酒)로 술을 사용하지 않고 식혜를 사용하는데, 제사 지내는 날 새벽 1~2시에 당주는 항아리에 식혜를 담아 가지고 당에 가서 선목(神木) 밑 젖가리 속에 놓았다가 제사를 지낼 때 주전자에 넣어 산신께 올리는데, 이것을 ‘조로를 드린다’고 한다.

제의의 절차는 우선 당주와 부당주가 제수를 진설한 다음, 당주가 삼 앞에 앉아 술을 올린다. 부당주가 술을 따라주면 당주가 올리는 식으로, 부당주는 보조역할을 한다. 이어 독축(讀祝)을 하는데, 이것은 당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읽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는 연세가 많은 사람 중에서 독축이 가능한 분을 끌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서 통장이 한다고 한다. 이 날 독축은 바을통장 흥순우씨가 하였다. 축문은 과거 한자로 되어있던 것은 소설되고 지금은 한글로 음을 적어둔 것만이 있는데, 이것으로 축문을 대신 했다. 한글로 음을 적어놓은 축문은 글귀 여러 굽데에서 와전된 것이 보인다. 다음은 옛글 마을제사 축문의 내용이다.

<표 2> 청계산 산신제문

維藏次	
계묘면	시월 계식삼 초삼일 갑오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노상동 주민 일동
감소고무	
청계지령	유악암암 밀초치진
만성지암	류차건민 토이위안
밀길신령	경수사사 의불참득
성차단갈	신기력사 네보무석
삼재팔란	별위소월 본낭부장
비위전궤	신기강강 막비보우
성례기구	감차처고 우두우동
지향지승	복축신명 임지
삼 함	

축문을 읽은 후 참식자들 중에서 관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을 올리고 절을 한다. 한편, 제의를 행하기 전 음식상을 진설할 때 소반 위에도 음식을 한 끼더기 담아 제당(祭堂)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오른편 위쪽에 두었다가, 소지를 올리기 바로 직전에 한 사람이 돌아가서 소반의 음식을 던지고 온다. 이것은 짐승들이 먹으라고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후 소지를 올리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대동소지'를 우선 올리고, 다음으로 당주와 부당주를 위한 개인소지도 올린다. 당주와 부당주의 소지가 끝나면 제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은 각자 소지를 들고 한꺼번에 개인소지를 올린다.

제사를 지낸 후 북어와 광호지를 신목 2미터 정도 위쪽에 묶어 둔다. 이때 제물의 일부를 조금 떼어 나무에 함께 묶는다. 조사자가 본 바, 관교동의 경우에는 제사음식 일부와 북어, 광호지를 신목 아래 있는 터주가리에 묶어두는데, 옛날은 신목에 묶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그런 다음 간단히 음복을 하고 모두 당주 집으로 내려온다. 이날 당주 집에는 온 동민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단, 부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제사 준비 기간이나 음복할 때도 당주 집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를 위해서 돼지고기와 맥을 따로 마련하여 나누어 먹는다. 제보자에 의하면, 예전에는 맥

을 큰 오지사무로 일곱 시루나 쳐서 주점하게 나누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조사자가 산에서 내려와 당주 집에 도착할 때쯤에 동네 스피커로 '오늘은 마을 산신제를 지낸 날이오니 주민들은 모두 당주 집으로 와서 치녀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들렸다. 당주 집에 들어서니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방안에는 동네 어른들로 가득하였다. 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주민들은 떡을 조금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제사를 끝난 다음 마을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당주 집에서 산신제를 지낸 결산보고를 한다. 조사자가 인근의 몇몇 마을의 동체를 직접관찰 해 보았으나 이 마을처럼 대동간치로 동체를 지내고 주민들이 동체에 적극적인 마음은 보지 못했다. 조사자도 이 날 치녀식사로 나온 떡국을 맛있게 먹고 주민들이 싸준 떡과 과일도 받아왔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옛날 산신제에 오르는 제물은 생 소고기 한 절과 흰 닭, 그리고 과일과 떡이다. 여기에 당주가 준비하는 '조로'라는 음해가 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세상에 흰 닭 대신 소머리가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말한 연유는 과거에 비해 흰 닭을 구하기가 힘들어 4-5년 전부터는 닭 대신 소머리를 사용한다고 한다. 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생 소고기는 약 반 근 정도를 준비하는데, 고기를 사러 청육점에 가서 산신제에 쓴다고 하면 돈을 받지 않고 준다고 한다. 그리고 흰 닭을 썼을 때는 수탉으로 준비했다.

제사를 위해 각 집마다 추령을 하는데, 이것은 부당주가 맡는다. 과거에는 빨 한 되, 판 한 되에 약간의 금전을 거두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1990년의 경우에는 각 집마다 최하 1만원 이상씩 성의껏 냈다고 한다.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무정한 집의 돈은 제물 구입에는 사용하지 않고 제사 후에 먹는 음식 비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한다. 현재 옛날이 약 1백 가구 정도이므로 제비(祭費)는 총 1백만 원이 넘는 셈이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돈은 제사가 끝난 날 당주 집에서 결산보고를 통해 산출되고, 이후에는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남아 통장(예전의 이장)이 관리하게 된다. 또, 제사에 쓰는 그릇은 마을 공동의 것을 마련해서 쓰고 있으며, 이것은 마을회관에서 보관한다.

옛골 산제 과정



1



2



3



4

①금줄과 칭호가 놓인 당주집 ②제물이
찬성된 삶 ③잔풀름 ④제관미 측문을 막
고 앉을 ⑤벼주가리 주변에 술을 끊을
⑥소작물들



5



6



⑦관체소자 ⑧제당 위쪽에 차린 고기당미(호랑미를 위한 제물) ⑨제가 끝난 후 신목(神木)에 헤어를 매어둔 ⑩⑪원복 간신과 함께 태주가라에 제가 끝난 후 술을 부어온 ⑫금주집에서 풍민들의 저녁식사



3. 시승1동(벌말, 농막, 사촌, 통관)의(단절)

1) 명칭, 유래와 역사

이 곳의 제의는 네 자연마을이 함께 지내는 공동 제의로, 영점은 산체였다
고 한다. 현재 벌말과 농막, 사촌은 남아 있으나 통관은 분당 선도시 개발지구
안으로 들어가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마을 중에서 사촌이 가장 컸다
고 하는데, 모두 합쳐서는 약 50가구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네 마을의 산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내왔다고 한다. 신체(神體)는 나무로,
소나무와 참나무이며, 신체가 있는 산은 사촌과 농막의 동쪽에 있는 산이다. 읍
력 10월초에 복 있는 날로 잡아 0시에 올라가서 제를 지냈는데, 30년 전 여름에
신목인 소나무가 바람을 맞아 타버린 후로는 산체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산체는 농막에서 사촌 쪽으로 고개를 넘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산의 정상에
있다. 정상까지는 약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 정상에 오르면 약간 평
평한 곳에 참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운데 소나무가 있었던
면 자리는 흔적이 없으며, 잡목만 후거져 있는 상태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소
나무와 참나무 앞에서 빙갈아 제의를 행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참나무
두 그루의 높이는 약 5m이며, 둘레는 약 1m 가량 된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祭日)과 제주는 대체로 제사 지내기 5~7일 전에 마을 노인들 몇 분이
모여 회의를 열고 선정한다고 한다. 제주는 몸이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으로
뽑는다. 제주는 두 내외가 함께 뽑히게 된다. 제주로 뽑힌 내외는 그 때부터

5) 조사일시 : 1998년 12월 15일
제 보자 : 김정업(남, 63세)

준비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는 인물을 두르고 대문 양쪽으로 황도를 놓아 신성한 구역임을 표시한다. 제주로 뛰히면 불편요한 외출을 하지 못하며, 목욕제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은 거의 다 이 두 사람이 준비하게 되는데, 제물(祭物)인 소머리와 과일, 떡도 제주 집에서 직접 준비해야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삿날이 되면 제주 내외는 제물을 이고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희는 한밤중에 행하게 된다. 제주는 무천 듯자리를 가지고 가서 신복 앞에 펼쳐놓고 그 위에 상을 놓은 다음, 제물을 찬살한다. 제물을 진설한 후에는 걸을 세 번하며, 둑축은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비손하며 마을의 평안을 축원한다. 비손이란 기원할 때 두 손바닥을 비비면서 축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손 비빔을 의미한다.

제사를 끝내고 제주 내외는 산에서 내려와 다음날 아침 마을의 가구 수대로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나눠 각 집마다 돌린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물로는 소머리와 떡, 과일을 옮긴다. 특히 떡은 백설기로 한 시루를 준비하며, 소머리는 꽁 고아서 옮긴다.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쌀을 추림했는데, 최소한 한 되 이상으로 정성껏 냈다고 한다. 제기는 파로 없고 제주 집의 그릇을 이용했다고 한다.

4. 사승2동(승현동, 샘골)6(진승)

1) 명칭, 유래와 역사

이 마을의 동네제사 명칭은 산제라고 부른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예전부터 어른들이 모시던 것인데 어떻

6) 조사일시 : 1990년 12월 14일, 2000년 10월 27일(음력 10월 1일 저검증)
제 보 자 : 이은님(여, 70세), 이익춘(남, 56세)

개 안 모실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송현동과 샘골의 가구를 합치면 약 1백 가구 정도가 되며, 이 두 마을이 옛날부터 함께 계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원주민들이 30여 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외부에서 천입해 온 주민들이다. 따라서 마을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회복하며 도시적 생활양식들이 유입되어서 마을 전체 주민의 단결력이 약하고 개인적, 가족적인 생활 태도가 자리잡았다.

15년 전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노인들이 산체를 올렸으며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을 하였다.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시에 산신에게 대접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본인들도 아예 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부정한 채로 산에 올랐다가는 산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현재는 50대 후반의 중년층들이 뜻을 합하여 간단하게 산체를 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축문도 읽지 않고 제의도 비교적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지내고 있다. 중년층들은 자기 세대마저도 힘이 없어진다면 이 마을에서 산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제일은 따로 날을 받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유희 시월 초하루 0시에 지낸다고 한다. 준비한 제물을 마을 꼴통으로 관리하는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계를 지내며, 제의를 끝내고 나면 그 날 아침에 마을의 가구 수대로 제물을 나누어 돌린다고 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산체(神體)는 샘골과 송현동의 중간에 있는 산 정상에 놓인 키다만 바위이다. 이 바위를 주민들은 '뒹바위'라고 부른다. 바위의 높이는 약 5m, 둘레는 약 22m로, 말 그대로 김재만한 크기의 바위이다. 송현동의 북쪽에서 이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셋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바위가 남북으로 긴 형상을 하고 놓여 있다.

바위의 동쪽 편에는 약 70cm 깊이로 바닥에서 풀풀 들어간 곳이 있다. 주민들은 이 곳에다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조사일 당시에는 예기에 사과와 막걸리가 놓여 있었는데, 주민들 중 개인적으로 차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인근의 도예공장에서도 이곳에 올라와 술을 마라 올리고 간단

한 계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 바위 위에 밭자국 모양으로 웅쪽 땅에 치운 자국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장수의 밭자국'이라고 여고 있다. 그밖에 '된바위'에 얹힌 이야기가 여러 가지 전래되고 있다. 어느 장사가 '된바위'를 절계산에서 가지고 오다가 무거워서 이곳 마을에 놓고 갔다고 한다. 또한 '된바위' 주변에는 장사의 밭자국 때문에 생긴 웅쪽 땅에 치운 곳이 있으며, 장사가 오줌을 뉘서 생긴 혼적도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 '된바위'는 동네의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 놀던 친숙한 곳이었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의는 매년 같은 날인 음력 10월 초하루 0시에 시작하여 약 1시간 가량 지낸다. 과거에는 산체를 지내기 보름 전부터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준비 과정이 지켜졌다고 한다. 제관의 선정은 깨끗하고 집안에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이 뽑히는데, 주로 고령자들이 맡게 된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제사 3일 전부터 한물로 목욕제제하며, 신성한 산체를 위한 근신(謹慎)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관의 집에 원세끼에 백지를 죄운 인증을 두르고 대문 앞 양쪽에 활도를 놓았는데, 약 5·6년 전부터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자가 제주를 맡으면 부인은 제수 음식을 준비하게 되므로, 내외가 각별히 몸가짐에 신경을 썼다. 주민들도 동네의 우물을 깨끗이 치는 등 깨끗이 산체를 맞이하였다. 마을에 살(喪)이 나면 원래의 제일 날짜에 산체를 치르지 않고, 다음 달의 깨끗한 날을 잡아서 미루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은 산체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금기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다만 경성껏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제사의 준비는 특별히 험한 제주 외에도 풍·반장들이 나서서 한다. 특히 풍·반장들은 하루 전인 9월 30일에 제사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시장을 보며 준비한 재물을 들고 제관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장만한다. 2000년 제수(祭酒)의 대부분은 제사 당일 모란시장과 분당시장에서 물장인 이영태씨와 민병학씨가 장을 보아 왔다. 그리고 산체의 제사음식은 정상례씨(여, 62세)가 맡아서 준비하였다. 지금은 마을에서 제수음식을 준비해 본 이가 많지 않다. 과

거에는 한 번 제수음식을 잘 장만하면 10년간 연속으로 산제에 쓰일 음식을 맙아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제의에는 동네의 남자들만 참석을 하였다. 그리고 여자들은 제주의 집 한 곳에 모여서 봉송(封送)을 만들거나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과거에는 산제가 마을 전체의 행사였으므로 산제가 끝난 뒤에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밤을 새워 놀았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산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을 비롯해 등·반장들까지 모두 여섯 명이 제당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남자들만으로 구성된다. 2000년 산제에 참석한 주민은 모두 5명이다.⁷⁾ 밤 9시가 되자 산제에 참석할 주민들이 하나둘 정삼례씨의 집으로 모였다. 시간이 9시를 넘기면서 소머리를 솔에 엎고 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밤 11시 40분에 제수음식을 쟁겨서 산에 오를 준비를 하였다. 제수음식은 반드시 지게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이지만, 근래에는 지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큰 통에 담아서 날랐다. 정삼례씨의 집은 바로 산 밑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제당까지 오르는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산제를 하기 전에 악식으로 간단한 의례를 행하였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했다. 악식 의례는 '된바위' 옆에서 향을 피우고 현작(獻爵)한 뒤에 절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이 의례가 끝난 뒤에는 '된바위' 바로 앞에서 산제를 올렸다. 제의(祭儀) 절차는 유교식 세례와 비슷하게 진행하였다. 먼저 향을 피워 바로 땅에 끌어두었다. 다음은 제주가 짓가락을 제물(祭物) 위에 올리고 나서 절을 하였다. 과거에는 축문을 읽었으나 지금은 생략하였고, 현작한 뒤에 다시 절을 하였다. 제주의 절이 끝나고 나서 풍물이 현작한 뒤에 절을 하였다. 통장이 절을 마친 뒤에는 '된바위' 앞에 서 있는 도토리나무에 통복어를 사람 기만감의 높이로 매달고 나서 소지를 하기 시작하였다. 소지를 올릴 때는 '많이 잡수시고 동네 모두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소서' 하며 기원을 하였다.

산제가 모두 끝나면 음복을 한다. 먼저 제수음식을 한 가지씩 '된바위' 밑

7) 민병학(남, 60세), 염철린(남, 56세), 이종득(남, 60세), 신인환(남, 50세), 정완명(남, 32세), 이영태(남, 53세)씨

에 던지고 나서 음복을 시작하였다. 음복이 끝나고 제의를 완전히 끝마친 시간은 0시 40분이었다. 제의가 끝나면 소머릿고기, 대추, 유과, 감, 사과, 산적 등 산제의 제물을 일정량씩 나누어 동네의 가구 수대로 불리게 되는, 이 곳에서는 이를 '봉송 돌권다'고 하였다. 봉송을 위한 꾸러미는 것으로 계란 꾸러미 차림 만들며, 봉송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이 꾸러미를 지붕 위에 얹었다고 하였다. 2000년 산제에서는 예전처럼 젖을 사용하지 않고, 젖은 봉투에 담아서 주민들에게 돌렸다. 사과 등 과일을 남아서 봉송 60여 개를 만들었는데, 강은숙씨(여, 50세)와 임인자씨(여, 61세)가 수고를 하였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예전에는 동네 전체 주민들에게 각 길 당 짧 한 되씩 일일이 추검을 레 제비를 모았으나 현재는 마을 공동으로 적립해 놓은 돈이 있어 그것으로 준비한다.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한 주민이라도 군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정성껏 짧을 냈다고 하였다. 지금은 산제에 대한 인식이 회박해지고 전일 주민들이 늘어서, 추검을 하지 않고 마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 산제의 비용은 약 30만 원이 소요되었다.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머리였다. 10월 깐닭이면 제물로 소머리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머리가 귀했다고 한다. 지금 소머리는 약 1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원래 마장동에서 소머리를 맞추었으나 2000년 산제에서는 가라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 왔다. 과거에는 소머리를 통째로 옮겼으며, 2개씩 살을 때도 있었다. 지금은 소머리 1개를 반으로 나눠서 살는다. 한 솔에 소머리가 다 들어가지 않으므로 두 쪽을 내어 살은 뒤 제당에 올라가서 다시 원래 형태로 붙였다. 소머리 외에 제수음식으로 삼색과일과 통북어, 막걸리, 두부진, 무나물, 식혜, 유과, 산적, 달 등을 차린다. 산적은 별지 않고 구운 그대로 5개 내지 7개를 준비하였다. 식혜는 엷기름을 넣어서 삶혀야 하지만 임시로 밤과 설탕을 비벼서 만들었다. 그리고 식혜 위에는 대추 세 개를 올려놓았다. 제기는 예전에는 마을 공동의 그릇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관으로 뽑힌 집의 것을 사용한다.

<그림 3> 사송2동 산제 과정



사송2동 산제 과정



①책을 마련해 제관의 접으로 가는 모습 ②계관 접에서 재물을 깊인 ③마련된 재물을 재급으로 옮김 ④선제를 지내기 전에 차내는 간단한 의례 ⑤한풀 띠우고 한작합 ⑥재상을 차운



⑦제주가 한작한 후 청을 할 ⑧종참이 철을 할 ⑨제상차림 ⑩비위 옆 도토리나무에 흙복마를 매달고 소자를 뿐인 ⑪제를 치난후 제물을 한가지씩 빙바위 밑에 단침 ⑫한석자들이 음복하는 모습 ⑬제의를 미시고 마을로 돌아와 제물을 일정한으로 나눈다 ⑭검은불투에 담은 종승 음식

5. 시흥동 모랫말 산체⁸⁾(단침)

1) 명칭, 유래와 역사

이 마을의 마을체사는 오래 전부터 지내왔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단절되어 현재는 천승되지 않는다. '모랫말 동산'이라고 불리는 마을 뒤쪽의 낮은 산에 있는 참나무가 신체(神體)로, 현재도 남아 있다. 이 마을의 산체는 날을 할 보는 사람이 올해 시월 초순에 날짜와 계관을 정해 지내게 되는데, 제사 시간은 저녁 때였다고 한다. 계관은 한 사람만 뽑으며, 마을 주민 중에서 부정타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도와준다. 만약 날을 정한 이후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하는 등의 부정한 일이 생기면, 그 해 산체는 지내지 않고 넘어갔다.

산체가 행해졌던 10년 전에는 마을에 약 60가구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늘어나 1백여 가구가 넘는다. 제보자들은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의 문제, 종교문제, 그리고 이장에 대한 대우 문제로 인해 산체를 지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시흥동에 있는 '모랫말 동산'에 있다. 산체는 참나무이며, 위하는 신격(神格)은 산신이다. 모랫말 동산은 마을 뒤쪽에서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옆으로 칠개 누워 있다. 그 동산의 서쪽 끝에 신체인 굵은 참나무가 있다. 헌재 참나무는 시(市)에서 보호목으로 지정하여 나무 둘레에 정방형으로 낮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땃인지 나무의 몸통에 생긴 커다란 구멍에는 쓰레기가 보이고, 보호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간판은 녹아 숨어 있는 상태이다. 약 4m 정도의 높이에 가지가 위와 옆으로 편치 나가는 모습이다.

3) 의례 내용

8)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4일
제보자 : 최병서(남, 84세), 이규진(남, 80세)

(1) 제일 및 준비 과정

음력 9월중에 2주 정도를 앞두고 제일과 제관이 정해지면, 제관은 불가점을 점검하게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금지된다. 제관의 집 앞에는 인줄이 치지고, 황도를 놓아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며, 마을 사람들도 부정타지 않게 하기 위해 제관의 집에 가지 않는다. 잘 보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제관의 맡아서이며, 음식은 제관 집에서 동네의 부정타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제당은 마을 사람들이 제일 하루 전에 올라가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일에는 제관과 5~6명 정도의 부정타지 않은 남자들이 제당으로 함한다. 여기에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다. 제물을 진설하고 득축, 소치하는 과정을 제관이 맡아서 하며, 소치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 번만 한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관과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음복한 후 마을로 내려온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밤이 되기 때문에, 제사 끝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의 음복이 시작된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쓰였던 제물을 질질마다 조금씩이라도 들려 나눠 먹는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모랫말 산제에 쓰이는 제물로는 소머리를 통째로 고아서 높은 것과 과일과 시루떡이다.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그릇은 마을 공동의 것을 사용하며, 이것은 마을회관에 보관됐었다.

제사에 쓰이는 비용은 각 집마다 성의껏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았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조금씩은 다 냈다고 한다. 그리고 산제를 모시고 난 후 따로 날을 잡아 마을의 대동회를 열어 산제에 쓰인 결산보고를 행했다고 한다.

6. 심곡동(깊은골) 산책⑨(전승)

마을 규모는 100호 정도 되는데, 순흥안씨가 2·3정도를 차지하고 성주이씨가 10호 정도 있다. 전에는 마을에 농악대가 있어 정월 대보를 때 풍물을 치고, 농사일을 할 때는 두레째 깃발을 앞세우고 들판에 나가 깃발을 논둑에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농악대는 6·25 이후 소멸되었다. 또한 정월 달에는 논과 밭 두렁에 쥐불을 놓고 놀기도 했다. 마을에는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마을 앞에 있었으나 허물어져 현재는 마을회관 지하에 보관하고 있으며, 상례 때 사용할 흐령과 복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

마을에서 현재 가신제의(家神祭儀)인 가을고사를 지내는 집이 두세 집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교회가 들어선지 벌써 90년이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과거 농도가 있던 마을 앞 들판에 성남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되자 수확 후 짐안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던 관습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민들은 설명한다.

마을 앞 개울 옆에 거북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는 옛날 장수가 많았던 양복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이 거북이가 마을 앞 들판에 있는 채물을 마을 안으로 가져다준다는 전설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마을 앞에 있는 효성중·고등학교에서 담을 짓으면서 거북바위가 문해지 되어, 현재는 학교 후문 옆으로 주민들이 옮겨 놓았다고 한다.

⑨)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3일~15일
체 보 자 : 이장섭(남, 63세)



동제가 봄까지는 제당터 (마을 첫산 성수도 터)



마을 맞 가족마을



동제 시 우물재를 지녀는 우물

1) 명칭, 유래와 역사

동제를 '동네고사' 또는 '산제'라고 부른다.

이 산제는 옛날부터 행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한편, 마을 뒤편 언덕의 넓은 곳터를 주민들은 지금까지 '도당 터'라고 부른다. 그 유래나 의미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과거에 여기서 도당굿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祭堂)에 대한 특별한 명칭은 없으며, 위치는 동네 뒷산에 있다.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따라 500미터 정도 올라가면 개울 옆에 넓은 바위가 있다. 그 곳에서 주민들은 산을 향해 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이 바위에서 50미터 정도 더 올라가면 동네의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도 산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산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도 산에서 지낸 음식을 그대로 옮리고 제를 지낸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 우물을 주민들이 이용했으나 지금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우물에 뿌리를 닦아 놓지만,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그 전날 우물을 치고 청소를 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하고 있는 마을제사의 신격(神格)은 산신이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매년 읍력 칠월 초하루 오전 10시를 전후로 한다. 제주는 한 사람만 선정하는데 마을에서 풍수를 보는 사람이 죄력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의논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한다. 제주로 선정되면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제사를 지내는 날은 폭우체계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제의 준비는 몽찰이 주관하는데 마을회관에서 준비를 하며, 시장보는 일 등도 모두 봉장이 주관해서 한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제주와 제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이렇게 두 사람만이 참석한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제주가 간을 올리고 절을 3례(拜)하는 것으로 끝나며, 축문 같은 것은 없다고 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소의 간과 염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은 제상(祭床)에는 차리지 않으나 제사를 지낸 후 그 자리에서 은복할 때 술 안주로 먹는다고 한다. 제사를 지낸 후 마을회관에서는 소머리를 쫓아서 국밥을 만들어 먹고 술을 마시면서 주민 모두가 참석하는 대동잔치가 벌어진다고 한다.

제의와 관련된 회화는 없으며, 제일이 가까워 오면 통장이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물보하여 각 가정에서 신청할 고기의 양을 주문받는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마을제사에 사용되는 제기 중에 향로, 쪽대, 전대는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따로 담을 제물이 없기 때문에 기타 음식을 담는 그릇들은 없다. 조사자가 확인해 본 결과, 제기는 옛날부터 내리오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근래에 구입한 것으로 보였다. 제주가 임을 도포(道袍)도 회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역시 근래에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제비(祭費)는 마을 주민들이 모아서 하는데, 전부 똑같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제물로 소를 참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원하는 고기만큼 주문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분량만큼 돈을 낸다고 한다.

산제를 지낼 때 상차림은 소머리와 우족(앞뒤 각 한 개씩), 막걸리, 쪽풀, 향이 전부라고 하며, 데지나 떡, 전 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 한 마리를 참자면 둘째는 제사를 지낼 때 가지고 가지 않고 주민들이 먹는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마을의 소를 동네회관에서 직접 잡았으나 지금은 도살장에서 소를 잡아온다고 한다.

7. 태평동 도당굿¹⁰⁾(단절)

10) 제 보 자 : 박인호(남, 74세)

태평동은 현재 동체를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서 과거에 도당굿이 행해졌다는 말을 듣고 조사자는 그것을 기억하는 주민을 만나보았으나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주민 박인호씨에 의하면 웃골 단리에 동네 소유의 도당(稻堂) 터가 있었다고 한다. 도당 터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태평3동 한일은행 근처 고물살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도당 터에는 돌탑과 박달나무 10여 그루가 있었는데, 4월 초파일날 박달나무를 건너다니면 다리에 좋다고 하여 주민들이 이 날 박달나무 사이를 건너 다녔다고 한다.

도당굿은 가을 추수 후인 음력 10월 상달 초순쯤에 했다고 하며, 도당굿을 할 때는 도당 터에 명식을 칠고 앞에 상을 차려놓고굿을 했는데 차일간은 것은 차지 않았다고 한다. 해방 전까지는 도당굿을 했지만 그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태평1동 장승택이라는 곳(과거에는 아래를 수진리였다고 함)에는 큰 고목 옆에 장승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정월 초에서 보름까지 '담교놀이'를 했다. 장구, 호적, 괴리, 풍물을 치면서 춤, 쇄시 등의 옷을 입고 무동도 태웠다고 한다. 집집마다 둘 때는 마을에서 제법 산다고 하는 부자집을 중심으로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가면 석사와 술을 대접했다고 한다.

8. 신촌동(새길)¹¹⁾(전승)

마을에는 평택일씨와 전주이씨가 많이 거주하며, 원주민은 90호 정도 되는데 현재는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예전에는 풍물페가 있어 일할 때도 두레 풍물을 했으며, 정월 대보름에는 집집마다 둘면서 걸림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에 풍물이 있어 정월 대보름 때 주민들이 풍물을 치고 논다고 한다.

상예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과거에는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다. 전에는 24인용 큰 상여가 있었지만 지금은 6인용 소형 상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상례 시 호삼(好爽) 때는 북, 장고, 팽과리, 정 등을 치면서 상가집에서 한바탕 놀았다고 한다.

마을 앞산에는 천에 아주머니 한 분이 동네를 위하여 치성을 드리던 바위가

11)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3일-15일

제 보자 : 안선봉(남, 75세)

있다고 한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이 마을에서는 동제의 명칭을 '동네고사'라고 부른다. 동네고사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며, 주민들은 다만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마을에 따로 제당이 없다. 옛날에는 지금의 마을회관 앞 컴퓨터에서 차일을 치고 제를 지냈다고 하지만, 현재는 마을회관 안에서 제사를 지낸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사는 음력 7월 초하루에 낮 12시쯤 지낸다고 한다. 제주는 마을 사람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된다. 제주도 풍습면 복육제계를 하며 균선에 들어간다. 모든 제사 준비는 통장이 주관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최고 연장자인 제주가 잔을 올리고 철을 세 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축문도 바로 읽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마을 주민 누구나 제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옆에서 구경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제의가 끝난 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은 그 날 하루 '먹고 마시며' 논다. 제의와 관련된 회의는 없으며, 일의 처리는 통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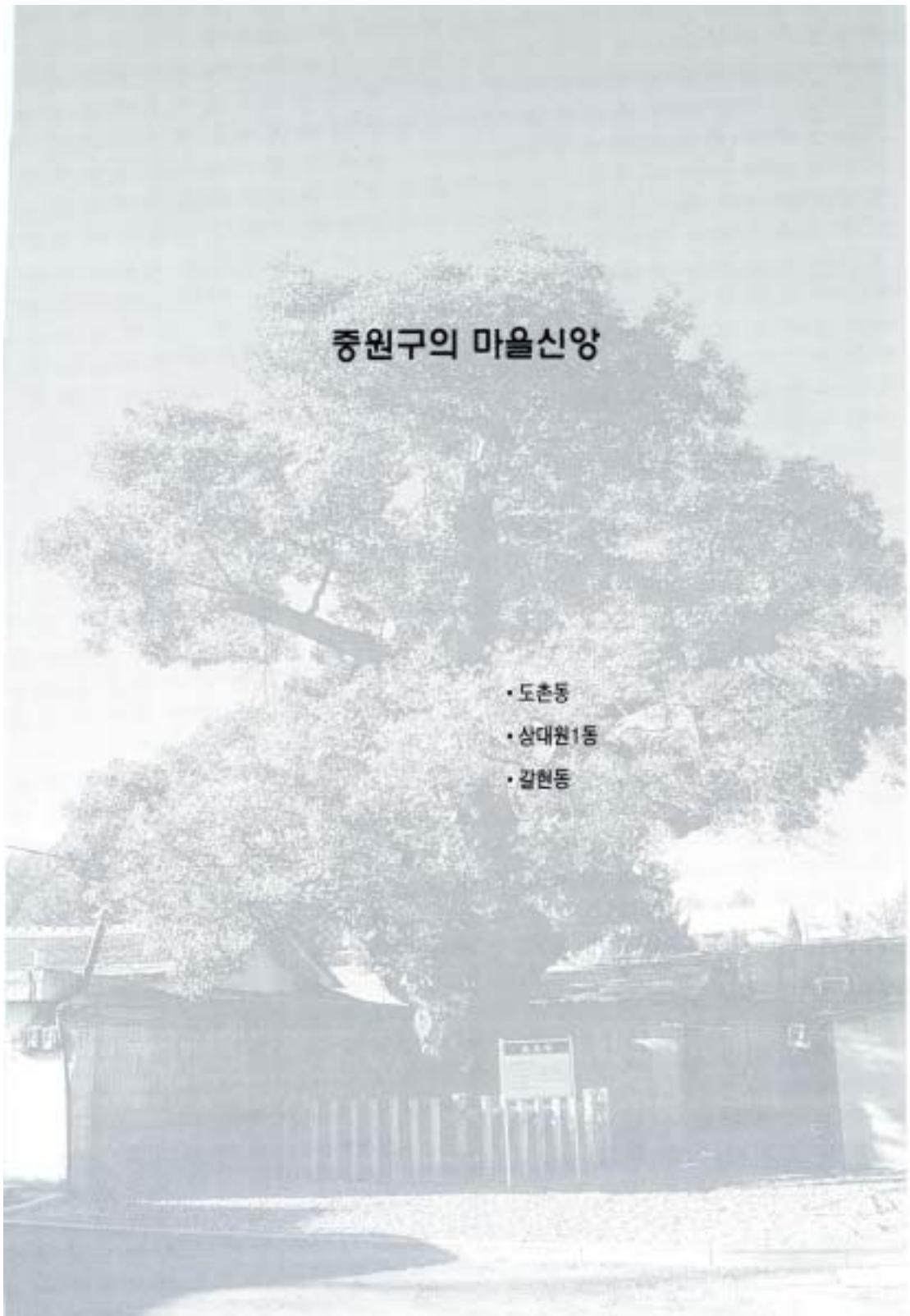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사 비용은 동네 기금(基金)을 사용한다고 한다. 제기(祭器)는 촛대, 잔대, 대접, 컵시 등 일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며, 유기로 되어 있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마을회관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다.

제사를 지낸 때 상차림을 보면 소머리(파거에는 소풀 전부 올렸다고 하나 지금은 소머리만 올리며 우죽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와 샴색과일, 막걸리, 청한수(청파수)가 올려진다. 그러나 떡, 나물, 전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물 차림 중 특이한 것은 청한수를 올리는 것인데, 키클마다 자기 집의 우물을 치고 소지를 한 후 그 물을 떠다가 제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따라서 파거에는 가가호호 가지고 온 청한수로 제상 위가 참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우물이 없어져 이런 풍경은 볼 수 없고, 우물이 있는 몇몇 집에서만 청한수를 올려놓는다고 한다.

중원구의 마을신앙

- 도촌동
- 상대원1동
- 갈현동



III. 종원구의 마을신앙

1. 도촌동(설말)¹²⁾(전승)

과거에는 중말과 설말이 같이 마을고사를 지내고 같은 동네처럼 지냈으나, 지금은 중말이 선도시가 되어 설말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은 마을 앞 개울둑에 블록집으로 만들어져 있다.

마을에 풍물패는 없었지만, 정월단이 되면 가끔 타지에서 고사반¹³⁾을 한다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 풍물패는 길 짐마다 돌면서 지산을 밟고 고사반을 하는데, 풍물패를 맞이하는 길에서는 쌀 밭¹⁴⁾에 쌀을 넣고 그 위에 쌀을 제외놓은 대주의 밥그릇을 올린 후, 대주의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고 절 한 태래를 숟가락에 걸쳐놓는다고 한다. 이 밤은 고사반을 한 풍물패가 가지고 간다. 이밖에도 고사반을 맞이할 때 풍물패에게 술과 음식을 같이 대접한다고 한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동제의 명칭은 따로 없고 '서남에 치설드린다'고 한다. 주민들은 언제부터 이것이 유래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을 '서남당'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마을 뒷산의 고개마루('이양이고개')를 넘어 광주장을 다녔는데, 이 고개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경로이었다. 이 고

12) 조사일자 : 1999년 12월 13일 ~ 15일

제보자 : 김병호(남, 72세), 임연순(여, 71세, 김병호씨의 부인)

임연순씨는 석운동이 원경이며 아홉살에 금도동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15세에 일 본인들이 치녀공출을 하려 다니자 일찍 설말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조사자는 일 언순씨로부터 석운동의 동네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13) 성남 지역에서는 절령이라고 하지 않고 '고사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14) 밤이 한 막 정도가 들어가며, 풍금계 나무로 만든 볼.

개마루에 벚나무와 돌무더기가 있어 주민들이 서낭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주민들이 이 고개를 지나갈 때 물을 하나씩 옮겨놓고 다녔다고 한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祭日)은 음력 8월 초하루 새벽 5시쯤 지낸다. 그 날에 제당으로 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가장 먼저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책례을 보고 주민 중에 제일의 생기복티와 맞는 깨끗한 사람을 한 사람 골라 제주로 선정한다. 제주로 선정되면 부정한 것을 피하며, 제사를 지내는 날은 목욕제례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제의를 준비하는 것은 통장 집에서 관할하며, 제주 집에서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 제주는 제의를 행할 때 그 절차만 주관하면 된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제주와 통장, 그밖에 도와주는 사람 둘 정도가 따라간다고 한다. 제(祭)를 지내는 순서는 제주가 잔을 올리고 절을 두 번 반하는 것으로 끝나며, 축문을 읽는 절차는 없다. 제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제물을 읍복하고 통장 집으로 내려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제사지내고 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전에는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집집마다 돌렸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사 비용은 예전에는 킴김마다 쌀을 한 되씩 거두어 마련했으나 지금은 통네 돈으로 한다. 과거에는 동네 전체가 떡을 나누어 먹고 하이 비용이 제법 들어갔으나 지금은 간단히 하므로 떡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사를 지낼 때 상차림은 백설기시무, 파걸리, 장호지로 묵은 묵어 한 마리(서낭나무에 묵어 놓는다)를 사용하며, 과일, 전, 고기 등을 전혀 쓰지 않는다. 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낭신이 '육(肉)서남'이 아니라 '소

(素)사냥' 임을 알 수 있다.
제의와 관련된 희미나 계기 등은 없다고 한다.

2. 상대원1동(보통골) 도당굿¹⁵⁾(단절)

이 둘째는 남원양씨와 온양방씨, 두 성씨가 살면서 도당굿을 할 때는 공동으로 본을 거두어 했다고 한다. 지금도 주민들은 가신제의(家神祭儀)인 가을 고사를 행하고 있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이곳에서는 동제(洞祭)를 도당굿이라고 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주민 양진식씨에 의하면 도당굿을 마지막으로 한 해가 1958년이었다고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였다. 한편, 어떤 사람은 모란시장이 생김 때쯤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청남이 도시화되면서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마을의 당(堂)은 마을 옆 산에 있는데, 570번 시내버스 종점 바로 뒤 50미터 끝에 위치하고 있다. 신체는 수령이 550년 된 상수리나무로 안내문에 의하면 1982년 도(道)나무로 지정되었다.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좌측의 것을 '도당할아버지', 우측의 나무를 '도당할머니'라고 부른다. 이 나무를 주민들은 '영사나무'라고도 부른다. 이 나무는 현재 청남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해 나무 둘레에 철제 울타리를 쳐 놓았다.

3) 의례 내용

15)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3일-15일
제 보 자 : 양진식(남, 62세)
방한태(남, 71세, 도당굿을 할 때 몇 번 담주를 한 적이 있다고 함)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상단에 허리를 보고 날을 짙는다고 한다. 도당굿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도당굿을 하지 않는 해는 고사(告祀)만 지낸다. 제관은 당주(堂主)와 화주(化主)를 일주일 전에 주민 중에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일단 제사날이 걸리지면 바깥 사람들은 둘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화재인들이 동네에 출입하는 것도 못하게 하였으며 금기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또한 제사에 사용될 음식을 만들 때도 맛을 보지 못하게 했으며,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제의를 준비하는 것과 음식 장만은 당주 집에서 하였으며, 시장을 보고 예산 등을 관리하는 것은 이장이 주관했다고 한다. 굿이 시작되면 차일 열여섯을 걸어놓고 음식을 해서 먹었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이 마을에서는 제의에 마을 주민 모두가 참석했다고 한다.

도당굿을 지내는 순서는 먼저 '영사나무'에서 고사를 지내고, 그 다음 마을 앞 장승에 가서 간단히 제를 지낸다. 장승제가 끝난 후 마을 굿당으로 와서 굿을 한 거리 한 다음, 짐짐마다 둘면서 고사반을 해주고 다시 굿당으로 돌아와 굿을 했다고 한다.

전체 제의 과정의 순서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굿을 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일주일 전에 조라술을 담가 '도당할아버지 나무' 아래에 묻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굿 하기 사흘 전에는 도당나무 근처에 우물을 세 군데 알게 파서 상당, 중당, 하당으로 삼아 상당과 중당에는 쌀을 셋 어 노구메(밥)를 짓고, 하당에는 당주와 화주가 목욕제례 하는 데 이용한다. 제의에는 이 두 사람만이 참석하며 그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차성을 드린다고 한다.

굿은 오후 1~2시쯤에 시작하여 다음 날 오후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굿을 하는 당일이 되면 오후에 무달 일행과 당주와 화주 그리고 주민들은 영사나무로 간다고 한다. 여기에 음식을 전설해 놓고 당주와 화주가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부당 일행은 옆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또한, 준비한 '신태'를 가지고 가서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신을 받아내린다. '영사나무'에서 일이 끝나면 신

대16)를 앞세우고 축약을 올리며 일행들은 마을 앞에 있는 장승으로 가서 제를 치낸다. 장승은 현재 상대원의 대한교과서(주) 건물 옆에 있었다고 한다. 장승에서 제가 끝나면 일행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굿당(도당나무 우측 아래 공터에서 차일을 치고 굿을 했는데, 위치는 현재 570번 버스 종점 뒤 '썬빌라'가 있는 뒤쪽 공터였다고 한다)으로 와서 굿을 한 기리하고, 가기호호를 들면서 '고사반'을 했다. 고사반을 할 때는 집집마다 빨이 담긴 쌀밥 위에 막걸리를 한 잔 올려놓았다. 고사반이 끝나면 신대를 모시고 굿당에 돌아와서 본굿을 하는데, 이 때는 신대를 굿당에 세워 놓는다.

굿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이튿날 굿이 끝난 무렵에 주민들이 소지를 올리고 나서 무당들에게 선수점을 보았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무당 일행은 10여 명으로 무당들과 악사들이 있는데, 괴리, 해금, 대금, 장고 등은 남자들이 연주했다고 한다. 무당 중에서 주무(主巫)는 갈현동 '독전'에 사는 문씨네가 됐는데, 이들은 단골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도당굿 날을 봄으면 주민들은 문씨에게 알리게 되는데, 그러면 문씨가 다른 무당과 악사 일행을 섭여 명 데리고 왔다고 한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비는 동네에서 쌀을 거두어 충당을 하였는데, 옛날 굿을 할 때는 40~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갔다고 한다. 이 정도는 당시 시세로 한다면 소 몇 마리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

3. 갈현동(이랫말)¹⁷⁾(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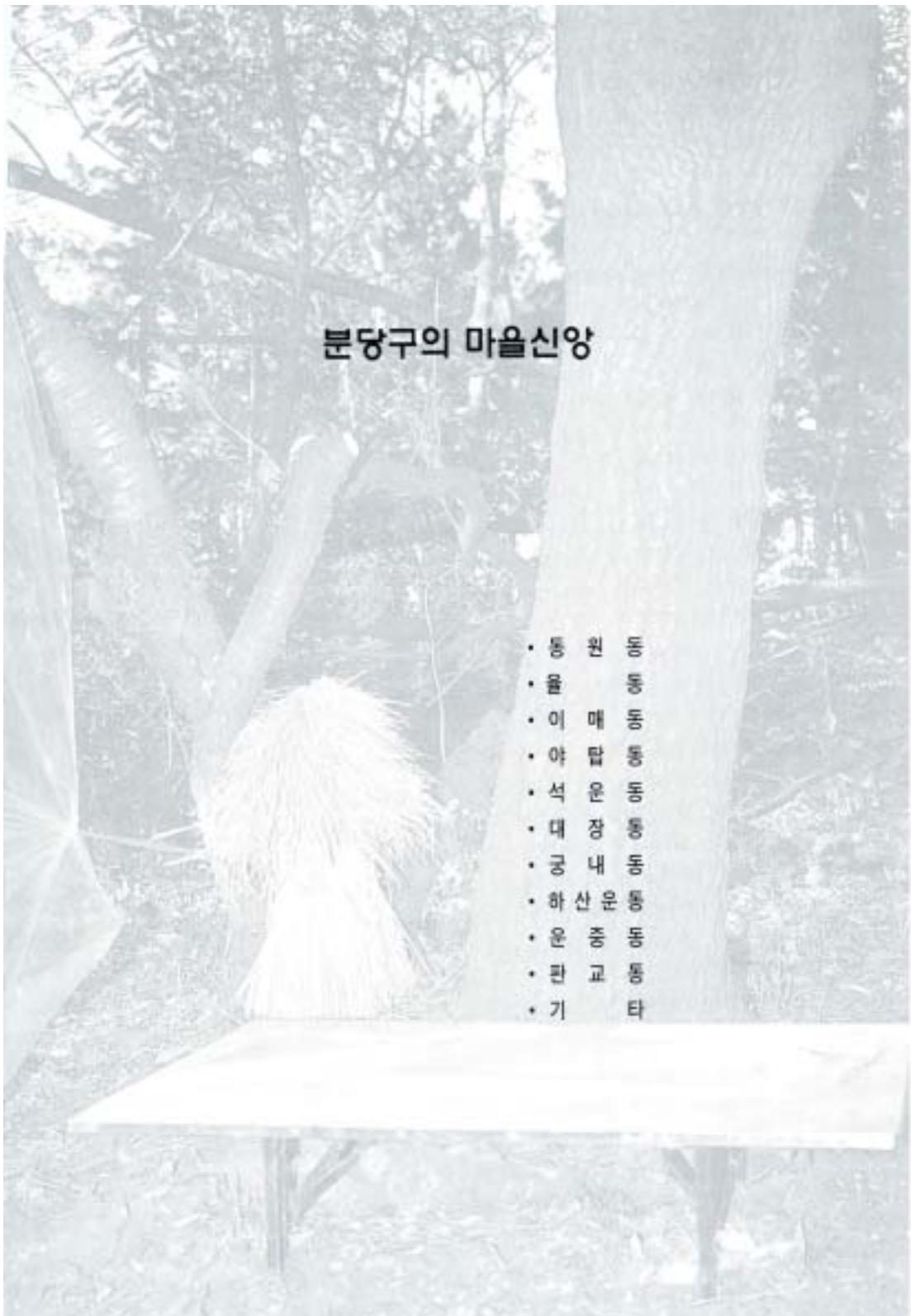
갈현동의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하는 동제는 없었다고 한다. 동네 뒷산에 팜택임씨 종중산(宗中山)이 있고 그 곳에 소나무숲이 있는데, 임씨들이 이 곳을 자신들의 서낭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날짜를 정하여 제를 치낸 적은 없으

16) 일반적으로 굿에서 산을 뺏아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가지를 가리킨다.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나무 가지를 쓰는 지역도 있다.

17) 제보자 : 임주완(남, 62세), 임희빈(남, 70세)

나 누가 아프거나 할 때 이곳에서 꿰지머리를 놓고 굿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현제 광주로 가는 갈마터널 옆 옛 2차선 도로가 있는 자리에 서낭나무와 '동막'(돌무더기를 주민들은 동막이라 부른다)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 몇 짐 살고 있던 바예들이 음력 10월 상달에 이곳의 사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사는 20년 전 마을의 노인 세대들이 불아가신 뒤 단절되었다.

전에는 마을에 풍물제가 있어 농사전에는 두레풍물을 하였으며, 청월달에는 보름 안에 절마다 들면서 '고사반'을 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동네 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다람자리'(달김태우기와 유사한 것)라는 것이 있어, 마당 환가운데에 크게 불을 지펴놓고 사람들은 조를 수확하고 난 절단으로 자기 나의 수만큼 매듭을 묶는다. 그런 다음 자기의 조 절단을 들고 모다불을 가운데로 하여 빙 둘러서서 절단에 불을 붙인 다음, 달을 보며 절을 하면서 한 해의 건강과 소원 등을 빈다고 한다.



분당구의 마을신앙

- 통 원 동
- 물 통 통
- 이 매 통
- 야 막 통
- 석 운 동
- 대 장 통
- 궁 내 동
- 하 산 운 동
- 운 중 동
- 판 교 통
- 기 타

IV. 분당구의 마을신앙

1. 동원동(동막골) 산제¹⁸⁾(단절)

성남시의 동원동과 용인시의 동천리를 사이에 두고 동막천이 가로질러 흐른다. 지금은 해결구역상 명확히 구분되지만, 과거에는 동막천 너머의 수지 주민들도 모두 한 동네 사람들로 생각하였다. 동막골 주민들은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을 가리켜 '용광인'이라 부른다. 용인의 '용'자와 광주의 '광'자를 합쳐서 한 지역으로 부르는 것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용광노인회'라고 하여 동막골의 노인회와 수지쪽의 노인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있으며, 외지인들이 많아져서 예전 만큼 마을의 단결력이 강하지 못하다.

현재 이곳의 2차선 도로는 수자와 성남 시미에 뻗어 있는데, 고기리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과 공사현장을 완래하는 덤프트럭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유원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막천을 따라 유흥음식점들이 몰려있다.

한편, 동원교에서 낙생저수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15년 전에 세운 장승 2기가 서 있다. 각각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야장군(地下女將軍)'이라 쓰여 있다. 수지농협의 건방에 위치해 있는 이 장승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세운 것으로, 주민들이 위치만 선정해 주었다고 한다. 이 장승은 동네 문지기 역할을 하라고 세운 것이라 한다. 3년 전에 장승 1기가 부러져 다시 세우고 간단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장승제라는 명칭보다는 보통 산제, 산제사라고 불렸다. 언제부터 지내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것 같으며, 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무사하고 동네가 평안하기를 빌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산제를 통해 '용광인'이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동막천을 사이에

18)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4일
제 보자 : 김경호(남, 78세), 고기분(여, 72세)

두고 광주와 용인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 곳의 주민들은 모두 한 지역 사람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산제를 함께 준비하고 치렀던 것이다. 옛날 이곳이 광주군에 속했을 때, 광주 땅에는 '영감님'을, 그리고 용인 땅에는 '마나님'을 동막천을 사이에 두고 따로 세운 것도 비록 하원을 경계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장승이 서 있던 곳을 '장승거지(길이?)'라고 불렀다.

산제는 당주가 제의의 전 과정을 말해 책임지는 것이다. 당주로 내리 3년을 선백받아 무사히 치르게 되면 제수가 매우 좋고 복이 터진다고 한다. 하지만 당주로 선정되어 제의를 잘못 치르면 크게 화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사람이 당주를 맡고 제사음식을 준비하면서 소머리를 딥 찰은 채로 내놓았다. 그랬더니 제의가 끝나고 나서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눈에 불을 켜고 그 집에 다가서서 으르렁 거리면서 당주의 집으로 땅을 파헤쳐 춤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당주 집에 폭격이 가해져 당주가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가 전래된다. 한편, 10월 초하루는 가을고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였는데, 반드시 산제를 지내고 나서 점점마다 적당한 시간을 백해 가을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마을의 산제는 6·25 전쟁을 전후로 사라지게 되었다. 전쟁 당시 이곳에 진주한 미군이 장승제를 치내지 못하게 하였으며, 동막천이 자주 범람하여 장승이 서 있던 자리가 많이 훼손되었다. 결국, 6·25 전쟁이 끝나면서 장승제도 단절되었다.

2) 저담의 위치와 형태

'천하대장군'이 서 있던 자리는 동막골 노인회관에서 동막천을 따라 고속도로 쪽으로 100여 미터 내려가면 된다. 현재는 쫓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4개 동 만들어져 있다. 냇가를 건너서면 재활용센터가 들어서 있다. 냇가를 사이에 두고 동막골에는 '천하대장군' 그리고 수지에는 '지하이장군'이 있었다. 동막골 쪽에는 장승과 기러기대(솟대를 가리킴), 서낭나무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서낭나무의 수종(樹種)은 벚나무이다. 주위에는 작은 덤불이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천하대장군'을 '영감님', '지하이장군'을 '마나님'이라고 불렸다.

예전에는 이 주위가 신성한 곳이어서 간히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장승이 사라지고 나자 닭장이 들어설 정도로 예전의 의미가 빠져버렸다.

장승의 키는 사람보다 조금 큰 2m 정도, 둘레는 두 뼘 정도이다. 잘승은 사모(紗帽)를 썼는데, 모자 모양으로 나무를 깎아 귀에다 꽂아두었다. 또, 가느다란 막대기로 기러기도 깎아서 함께 세워두었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이름을 창호지에 모두 빼서 '기봉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둘렀다고 한다. 이 '기봉문'을 본 집은 다음 집으로 물려서 전체 주민이 모두 보도록 하였다. 한 명이라도 생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봉문'을 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름 위에 표시를 해서 자신이 보았다는 기록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기봉문'을 물리는 이유는 산제 준비를 위한 비용을 전체 주민들에게 추려하고, 산제가 시작되므로 부정한 일을 삼가라는 경계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당주로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년 열두 달 무고(無故)하며, 학질과 같은 질병도 없어야 하고, 심지어 부스럼이 생겨도 안 된다고 한다. 당주로 선정이 되면 부정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집 주위에 원색끼로 인출을 만들어 끌려놓고 활토를 뿐한다.

산제를 지내는 달에 동네에서 삼(柵)이 나거나 아이를 낳아도 제를 지내지 않고 미루게 된다. 달을 건너 다시 깨끗한 날을 청하는데, 다음 달로 미루긴 해도 절대 거르는 법은 없었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가 행해지기 일주일 전부터 당주는 목욕제례에 들어가며, 조라술을 일찍 준비한다. 이곳의 조라는 밤과 엷기를 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식혜(谷糉)라고 하였다. 음력 9월 그믐날 저녁, 잘승 주위에 인출을 베서 부정한 사람을 막는다. 그리고 10월 초하룻날 새벽에 조라술을 받쳐 놓는다. 산제는 10월 초하룻날 저녁 7시경에 지낸다. '광주 영감님'에 먼저 지내고 나서 '용인 바나님'

에게로 가서 제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데, 당주가 헌작하고 절을 하며, 축문도 없었다고 한다. 제사 당일에 장승을 깎아서 제의를 마치면 세워둔다. 장승을 깎는 사람은 당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다. 해마다 새로 장승을 깎아 세우고 옛 것은 그냥 삭아서 없어지게 내버려둔다.

제의에는 주로 남자들이 참여하며, 부정한 사람은 뭔 수 없었다. 제를 치내고 나서는 그 자리에 활식했던 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활호지에 배가지고 갔다. 당주 집에서는 소머리를 삶은 뒤 남은 국물로 죽을 뿐이었다. 이 죽을 마을 사람들에게 바가지로 퍼주었는데, 죽이 맛이 있다고 해야 당주 집에 제수가 있으며, 맛이 없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수가 없는 것으로 예겼다. 노인이 있는 집에는 노인이 당주 집까지 못 오시면 죽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공 한 주비, 쌀 한斗 되를 가리지 않고 집안의 혈관대로 추림하였다. 예전에는 약 25가구가 살았는데, 보통은 쌀 1되씩을 추림해서 준비하였다. 마을제사 비용을 내기 싫다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신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고 한다. 제물로는 소머리, 흰무리백(백설기), 대추, 밤, 편육(폐지고기), 포, 북어 한마리 등을 올린다. 제의 후에는 소머리를 삶은 국물로 죽을 뿐이 모든 주민들이 먹었다.

2. 율동 신제19)(단절)

율동은 성남시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동네로서 산세가 매우 수리하다. 남한산성의 제일 후보지가 원래는 이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율동 가운데에 천연봉이라는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바람에 성을 쌓기가 곤란하여 현재의 남한산성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마을 구성을 보면 율동 사거리를 기점으로 양지말과 중간말이 모여 있으며, 분당지수지 부근에는 도래말이 있다. 유통이라 하면 양지말과 중간말, 도래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마을에는 세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과 국군수도병원이

19) 조사일시 : 1990년 12월 15일
제 보 자 : 정민화(남, 84세), 한백판(남, 62세)

들어서 있으며, 각종 음식점과 유흥시설, 농장들도 많이 입주해 있다.

마을 제당은 천연봉 정상에 있었으며 산신을 모셨는데, 특별한 건물 없이 제당으로 이용하는 터 주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산 신체뿐만 아니라 사거리에 있는 수령 500년의 느티나무를 위했기 때문에 기우 제(祈雨祭) 등을 이 앞에서 지내기도 했다. 또한 분당자수지 둑 부근에는 장승 2기가 있었다고 한다. 자수지 너머에는 분당장터가 있었는데, 분당장은 5일장으로 판교장 이후에 서는 장이었다. 그러므로 장승이 서 있던 곳은 분당장터에서 넘어오는 길목의 마을 어귀었던 셈이다. 자유당 정권 때 둑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면서 장승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산재는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 사라졌다. 산재는 가을에 치냈으며 최고령자를 위시하여 구장(현제 이장), 바름(현제의 반장)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였다. 당주는 제일(祭日) 며칠 전부터 목욕제례하며 부정을 삼갔는데, 강화군이란 사람이 당주역을 많이 했다고 한다. 제비는 추리를 했으며, 제물로는 시부떡, 과일 등을 올렸다.

3. 이매동 산치성²⁰⁾(전승)

갓골, 안골, 물방아거리 세 자연마을이 모여 이매동을 형성하고 있다. 이매저수지로 올라가다가 좌측길로 뛰어지면 갓골이 나오고 그냥 이매저수지 큰 길로 500m쯤 쭉 올라가면 안골이 보인다. 물방아거리는 큰 도로를 타고 아답통으로 가다면 오른쪽 편 길가에 있다. 큰 도로의 좌측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이 마을은 아직 예전 가옥이 많이 있고, 나무를 해오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남아있는 것 같다. 특히 갓골은 20여 호의 집들이 매우 밀집된 상태로 모여 있고, 본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산치성을 드리는 창소는 바로 갓골마을의 뒷산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갓골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골에는 '여호와의 종인 교회'가 입주해 있으며, 다시 새로운 교회건물을 크게 짓고 있다.

20) 조사일시 : 1990년 12월 14일
제보자 : 정왕순(여, 86세), 이대희(남, 42세, 통장)

1) 명칭, 유래와 역사

주민들은 마을제사를 '산치설'이라 한다. 매년 잣풀, 양풀, 물방아거리 세 동네가 모여 산치성을 지내며, 위하는 신격(神格)은 산신이다. 현재는 음력 9월 초사흘로 뜻밖아 지내지만, 원래는 좋은 날을 끌라 지냈다. 해[年]에 따라서는 마을에 자꾸 부정이 나서 그 다음 달로 계속 미루게 되어 11월을 넘기는 일도 있어서 아예 날을 점해버린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산신에 관한 의경(異敬)의 태도를 말해주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치설 날에 농네 어귀에서 누군가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굽이 땅바다에 끝나서 아무리 헤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산치성이 끝나고서야 겨우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제사날이 정해지면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은 산치설 날짜가 잡혀서 금기가 실한데 어떤 이가 광사를 하려 이 마음에 들어왔다. 결국 그이는 봄싹없이 산치성이 끝나는 날까지 마을에 잡혀 있다가 산치성이 끝나고 나서야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제사날이 잡히는 순간부터 계의가 끝난 때까지는 마을 내 모든 살생(殺生)이 금지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잣풀 뒷산 청상에 있다. 잣풀마을에서 등산로를 타고 100여m 올라가면 된다. 능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계단식 논들이 곧파 곧 사이를 짹우고 있다. 산 청상 부근에는 4개의 큰 전신주가 경발형으로 박혀 있고 전신주에서 약간 비탈이 쳐 있는데, 전방에 수령 100년이 더 된 참나무가 서 있다. 나무의 높이는 약 2m, 높이는 15m이다. 참나무는 1m 높이에 주간(柱間)이 있고, 이곳에서 수 간례로 뻗어있어 위용이 넘쳐 보인다. '도자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참나무에서 1m 후측에 터주가리가 하나 서 있다. 높이는 50cm, 둘레는 약 30cm이며 절으로 뛰어서 만들었다. 터주가리는 몸체와 지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몸체는 새끼풀로 주위를 둘렀으며, 지붕은 산발된 모습으로 흘어진 채 몸체 위에 덧씌여져 있다. 그리고 터주가리 앞에는 평평하고 넓은 틈석이 박혀 있다. 도자나무 전방에 가로 15m, 세로 8m 정도의 평坦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서 산치성을 옮린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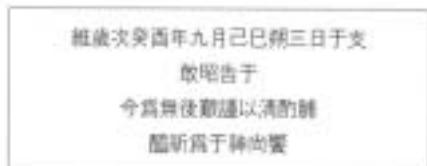
산치성을 드리기 며칠 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당주를 뽑는다. 당주는 '안당주'와 '걸당주(바깥당주)'로 나누어져 있다. 안당주는 떡과 술을 비롯한 일반 재물을 준비하고 걸당주는 소머리를 고며 제사를 끝낸 후 주민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안당주의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당주로 점해지면 못한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큰 벌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보통 당주는 그 해에 죽은 일이 없고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하는데, 것과 안풀, 물방아거리가 돌아가며 받는다. 좌우, 흙아비는 당주를 맡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내외가 함께 생존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안당주와 걸당주 이외에도 제관과 축관까지 따로 정한다. 제관과 축관도 그 해 생기복덕(生氣福德)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 장은 당주들이 보는데, 재물로 쓰는 재료는 값은 막을 수가 없다. 상인이 값을 이야기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값을 치르고 물건을 건네받는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산치성 날에는 동네 주민들이 비린 것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미루라지 새끼도 먹지 않는다." 산치성 당일, 낮에 해당에 올라가 깨끗이 청소를 한다. 파거에는 동산교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잡목들이 많이 있어서 길을 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하루 종일 주변 정리를 해야 했다.

저녁에 산치성을 올라는데, 맨 앞에는 팽풀과 등불을 둔 사람들이 양쪽에서 앞서가고, 당주와 제관, 축관들이 뒤를 따른다. 여자들은 돌아갈 수 없다. 참나무 앞에는 큰 상을 차려놓고, 터주가리 앞에는 북어와 술 한 잔을 부어놓는다. 제주(祭酒)로 쓴 술은 남아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 곳에 다 못고 내려온다고 한다. 제의는 비교적 간단하여, 헌작, 절, 득축, 소지의 순서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창호지에 주민들의 이름을 써서 태웠지만, 지금은 그냥 창호지를 태우면서 말로 대신한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갖풀 산치성·축문



(3) 제의 도구와 재물

예전에는 재물로 소를 한 마리 봉해 올렸다고 하지만, 요즘은 소머리를 살아 바친 다음 그 국물로 떡국을 끓여서 주민들에게 돌린다. 그밖에 살색과일, 벽침기, 술 등을 올리는데, 재물로 올라가는 것은 값을 짚거나 다듬지 않고 무조건 봉해 올린다고 한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입으로 맛을 보면 큰일난다고 하였다. 또 미리카락, 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신이 감응(感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머리에 수건을 두르기도 하였다. 예전부터 제기는 따로 준비해 두지 않고 당주 팀의 것을 쓴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진폐법'이라 하여 밥을 제당에서 지어 올렸다. 밥, 탕을 두 그릇씩 올리는데, 창호지로 깨끗이 빼서 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올리지 않는다. 조라술도 과거에는 직접 빚어서 올렸다. 직접 술밥을 뱀 뒤에 산으로 올라가 셈물을 떠서 술을 담근다. 안당주가 샘터를 깨끗이 정리하고 바가지를 빼워두면 나무하고 내려오던 사람은 그 곳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다. 제사 비용으로 점점마다 쌀 한 되씩을 냈지만 언제부터인가 돈을 걷기 시작하였다. 요즘은 5,000원씩 걷는다고 하는데, 교회신도와 살가집을 빼고 걷는다. 그렇지만 교회신도 중에는 마을 전체의 행사이므로 자신도 돈을 내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으며, 도로 앞 아파트 주변 중에서도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표 4> 1999년 산치성(山致誠) 블록 내역

■ 대동산치성 ■
1999년 10월 11일 (음력 9월 3일)
만단주: 김광설, 바깥단주: 김해기
재간: 김진복, 측간: 박순철
■ 지출내역 ■ (단위: 원)
가스: 15,450 / 배 3개: 18,000 / 사과 5개: 8,000 / 단감 5개: 5,000 / 통 쪽어 5마리: 12,500 / 다시마: 800 / 대추: 2,800 / 통후추: 2,000 / 마늘: 4,500 / 멋기름: 1,000 / 생강: 1,500 / 해소금: 3,500 / 침기름: 5,000 / 설고수: 1,000 / 고춧가루: 8,200 / 굽나물: 7,000 / 소금: 2,000 / 두부: 5,000 / 대파: 6,000 / 석류: 2,500 주차료: 2,500 / 소머리: 195,500 / 떡(밀반): 4,800 / 백설기: 6,000 / 살: 1,500 / 철사: 3,000 / 정종: 5,000 / 접시: 5,500 / 큰함: 3,000 / 밥그릇: 8,000 / 수저: 7000 / 후추: 1,500 / 컵: 2,000 / 주류: 43,500 / 전구: 2,400 / 참호지: 3,500 / 배추: 13,500 / 창감: 3,000 / 음료수: 11,200 합계: 478,350원(239,175원)
* 합계의 끝자 속 액수는 이메동의 2개 통에 각각 분담된 비율

11. ① 탑동의 마을체제(2)(단계)

분당 선도시 건설로 전통적 마을이 거의 소멸되면서 아탑동 역시 원주민들
거의가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199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간
행한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에는 아파트단지 건설 이
전의 야탑동 동네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체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21) 조사일자 : 1999년 12월 15일
체 보 자 : 민병학(남, 60세), 이영태(남, 53세, 통장), 경삼례(여, 62세)

상·하당에 대해 행해지는 마을제사의 평정은 각각 산신제와 '장신제'(장승제)이다. 원래 상·중·하당의 3개 마을로 구성된 야발동의 중심은 중탑동이었다. 그 가운데 상탑동은 나름의 신목을 가지고 그들만의 마을제사를 행하고 있었으며, 중·하발동은 함께 제의를 행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1900년 당시 상탑동의 마을제사는 소멸된 상태였고, 나머지 지역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되어 결국 중탑동에서만 마을제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이 마을의 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이루어진다. 상당은 산신 제당이며, 굴풀나무와 그 옆에 세워진 터주가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당은 '장신나루'(장승나무)라고 하며, 장승을 대신하는 활나무 옆에서 지내는 장승 제당이다. 일반적으로, 산신은 남성 신이며 장승은 여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의는 매년 음력 10월 초순에 행해졌다. 9월 30일에 마을의 유자들이 모여 일진(日辰)을 보아 좋은 날로 잡는데, 일반적으로 10월 5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제일이 정해진 이후에 출산이나 초살과 같은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제사를 연기한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같은 산(産) 부정은 일주일, 초상과 같은 부정은 3일이 지나야 새로 날을 받는다고 한다.

제관은 당주·유사·축관 세으로 분류되며, 9월 30일 택일을 할 때 마을 사람 중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의 경우 그 혜의 나이와 일진을 보아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부가 함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당주는 안당주 1명과 결당주 2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당주는 장승제뿐만 아니라 산신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내며, 제물도 마련한다. 결당주는 유사라고도 하는데, 안당주를 보좌하여 제사 당일 아침에 셈을 푸는 일, 산신당과 '장신당'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 제물 운반, 나무하는 일 등 짐일을 도맡아 한다. 제관이 선정되면 마을에서는 가축을 도살

하거나 이웃과 다루지 않으며, 심지어는 집안에서 큰 소리로 자식들을 혼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관들은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바깥출입을 삼가며, 연예도 조심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도 않으며, 매일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하게 한다.

세관으로 선정되면 결당주는 산에 가서 활토를 떠다가 안당주 집 대문 양쪽에 퍼고, 원새끼고 꼬인 줄에 솔가지를 꽂아 대문에 진다. 안당주의 집에는 이 장이나 결당주 이외에는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장신당'과 산신당에도 활토를 군데군데 뿌려둔다. 안당주나 결당주에게는 그 수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가을에 베 베는 풀섶을 기준으로 하여 수고비를 차들 있게 준다. 촉관은 금을 익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었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물은 안당주가 목욕제제하고 아침 일찍 모란장에 가서 반드시 차를 들어 간 가게에서 사는데, 가장 좋은 물건으로 비싸더라도 끊지 않고 살다고 하였다. 결당주 2명은 역시 목욕제제하고 맷걸 6단으로 각각 하나씩 이영 2개를 만들어 채당에 가서 터주가리를 보수한다. 그리고 터주가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 제거를 지게에 지고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생물에 가서 옛은 다음 안당주의 집으로 가서 제물을 장만한다.

마을에서는 '장신제'를 먼저 올린다. 밤 10시쯤 떡 1시루·막걸리·통북어 1마리와 함께 원새끼줄과 광호지를 준비하여, 장승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떡시루 위에 막걸리를 찬에 부어 놓고, 장승나무에는 광호지와 북어를 새끼줄로 매단다. 안당주가 절을 두 번 올린 다음에 떡을 조금씩 떼어서 "고시래" 하면서 사방에 바리는 것으로 끝낸다.

다시 안당주의 집으로 돌아와 산신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산신제에는 안당주, 결당주, 촉관 등 4명만이 참석한다. 산신제의 제물은 대추·밤·감·백설기·조라술(갈주)·소머리이며, 그밖에 소지종이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소마리 대신에 소의 앞뒤다리 하나씩을 사용했으나, 1970년대 이후에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제물 전설이 끝나면 옆에 불을 피워 놓는다. 안당주가 조라술을 따르면 결당주가 받아 백설기시루 위에 놓고, 일동이 부부(偏扶)하면 촉관이 고축(告祝)한다. 소지는 안당주·결당주·촉관·이장·반절의 순서로 하며, 이하 주민

들 모두에 대해 올려준다. 이것이 끝나면 간단하게 음복을 한다. 이어서 만당 주의 집에 내려오면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 비용을 결산하고, 대동회의를 한다.

축문의 내용은 토지신과 산원의 신령에게 도적을 물리치고 육축을 번성하게 하며 오가이 풍성하고 날씨가 순조롭게 되는 것 등을 빙고 있다.

(3) 제의 도구와 재물

마을 제사에 드는 비용은 예전에는 풍물을 쳐서 가가호호 쌀 한 되백을 추첨하였으나, 6·25 이후에는 기독교 신자의 증가로 매호마다 현금을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다. '장신제'에 사용하는 물품은 원쪽으로 끈 새끼줄과 팔호지이며, 제물은 백시루 1개·막걸리·봉북어 1마리이다. 이는 산신제에 비하면 매우 간략한 것으로 일반적 고사 제수(祭需)와 같다. 산신제에는 대추·밤·감·백설키·조라술(감주)·소머리(혹은 소 앞뒤다리)가 제물로 사용되며, 그밖에 소지종이가 사용된다. 제물을 통해 산신제가 훨씬 더 중요한 제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석운동²²⁾(단절)

조사자가 석운동을 방문했을 때는 원주민은 대부분 마나고 마을은 개발로 인하여 거의 파괴되었다.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도촌동을 조사할 때 마침 파거에 이곳에서 차렸다는 임연순제를 만나 석운동의 등재에 관하여 그가 기억하는 것을 몇 가지 들어 여기에 기록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소를 한 마리 끌고 백을 해 가지고 산으로 가서 지냈으며, "매우 크게 했다(규모가 크고 잘 차렸다는 뜻)"고 한다. 소를 잡아서 마을 대동(大同)이 나누어 먹었는데, 제사를 잘못하면 호랑이가 내려온다고 하여 제를 지낼 때 동네 사람들이 매우 진지했다고 한다.

6. 대장동 산신제²³⁾(단절)

22) 조사일자 : 1999년 12월 13일~15일
제 보 자 : 밀연순(여, 71세, 현제 도촌동 설말네 거주)
23) 조사일자 : 1999년 12월 13일~15일

과거에는 마을에 풍물폐가 있어 정초에 깁질을 들면서 '고사반'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동네의 기물(器物)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풍물폐를 맞이하는 점에서는 마당에 상을 꽈고 그 위에 쌀이나 보리가 들어있는 밭 말봉을 올려놓고 고사반을 차려 풍물폐를 맞이하였으며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 이것은 30년 전쯤에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에는 상여점이 마을 앞으로 난 길 옆에 있는데, 현재 12인용 상여 2기가 보관되어 있다. 상여점을 주민들은 '낙천사'라고도 부른다. 현재도 친목회가 있어(회장 이병식) 55세 미만 남자들이 마을에서 살(寢)이 나면 상여를 맨다고 한다. 단, 젊은이에 결혼식이 있거나 미혼자인 경우에는 상여 배는 것을 제외시켜준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과거 동체를 지낼 때는 '모두만이', '벌장부리', '대장리'가 같이 지냈다고 하나 동네 젊은이들이 계사를 없애자고 하여 결국 없애고 15년 전쯤부터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을 동체는 '산신체'라고 불렀으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 왔다고 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대장리에서 2km정도 떨어진 '모두만이' 앞산으로, 이곳의 고목(古木)에서 산신체를 지냈다고 한다. 바울 앞 어귀에 도토리나무가 서 있는데, 이곳을 주민들은 '장승구지', '수삼' 등으로 부른다. 산신체를 지내고 내려와서 이곳에서도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과거 장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잡아서 밤 8, 9시쯤에 산에 올라가 준비를

제 보 자 : 박승근(남, 79세)

하여 10시쯤에 제를 지내고 11시경에 산을 내려온다고 한다. 제관으로는 제주와 죽관(祝官)을 한 사람씩 선정하는데, 죄력을 보아 제 지내기 일주일 전에 깨끗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고 한다. 제일이 정해지면 2, 3일 전에 산신제를 지내는 나무에 가서 주위에 말뚝을 박고 금줄을 놓다. 제주 집에도 문 밖에 황도 두 무더기를 양쪽에 놓고 정한수(정화수)를 양쪽 혹은 한 쪽에만 놓아둔다. 제주 집에는 금줄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제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모두 제주 집에서 하였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를 지내기 2~3일 전에 신체로 여겨지는 고목 근처에 있는 우물을 친다. 이 우물에서 제사 당일 필요한 물을 사용하였다. 제사에는 특별히 부정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를 지내게 되면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산으로 올라가서 물을 피워놓고, 가지고 간 음식과 소머리를 그 자리에서 직접 살아 제상에 올렸다가 제의가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국을 해서 밥과 함께 먹으며 악주를 살았다고 한다.

제는 10시가 넘어서 시작되는데, 제주가 분향을 하고 잔을 올린 후 죽관이 축문을 읽고 다시 제주가 3배 하면 끝난다고 한다. 제주와 죽관만이 의례를 전행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만 하였다. 제의는 엉숙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제당에서 말을 조심하였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마을에서는 매년 팔 한 팔과 보리 한 팔을 기두어 동네 경비로 쓰는데, 이 돈의 일부를 제비로 사용한다. 제사를 지내는 상차림은 소머리, 배(밥), 나물, 초, 햄을 사용하나 과일은 차리지 않았다. 제주(祭酒)는 제를 지내기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서 누룩을 할아리에 담고 그 곳의 우물물을 부어 제당 아래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죽문으로는 산신축을 사용했는데, 일반 산신축과 같았다고 한다. 제기는 따로 있고, 마을회관에 보관해 왔다.

7. 궁내동(중간마을) 대동고사²⁴⁾(단점)

궁내동은 현재 동체를 지내지 않는데, 비교적 일찍 동체가 사라진 것 같다. 마을의 노인들도 동체를 지낸 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윗대 어른들이 지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제시대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체의 명칭은 '대동(大同)고사'라고 한다. 마을 뒷산 중턱 큰 나무에서 제를 지냈으나 이 나무도 6·25 전쟁 이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풍물페가 있어 농사철에 논을 맺 때는 '농두례'를 했다. 풍물페는 들판까지 풍물을 치고 나가서 깃대를 꽂고 일을 하면서 농요를 했는데, 이 마을에서는 특히 '4도소리'라는 농요가 유명했다고 한다. 이 소리는 인근의 맷고개, 정자마을, 벽현동, 구미동에만 있는 농요였다고 한다. 소리를 할하는 사람은 선소리를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북만 치면서 논 밖에서 노래를 했다. 정초에는 풍물페가 '고사반'을 했으며, 줄다리기를 할 때도 옆에서 풍물을 쳤다.

줄다리기는 경월 대보름날 밤 10시에 했는데, 현재 마을 노인정이 있는 궁터에서 대보를 며칠 전부터 줄을 만들어, 다 만들어지면 줄다리기를 하는 장소(지금 관교에서 수원으로 가는 국도에서 채했다고 함)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을 메고 '술령수' 하면서 소리를 하고 줄을 옮기는데 그 광경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줄은 풀레가 1미터, 길이는 100미터 정도였다고 하는데, 줄이 매우 많이 들어가서 깊길마다 수레로 한 대씩이나 가지고 왔다고 한다. 줄다리기를 할 때는 남녀로 편을 갈라 하지만 미혼남자는 여자 편으로 갔기 때문에 항상 여자가 이겼고, '여자가 이기면 보리풀년이 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줄다리기를 할 때는 인근에서 구경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나, 이 줄다리기도 1948년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초에는 또한 담교놀이를 했는데, 별찰, 스님의 장삼, 탑 복색(빨간옷에 고깔을 쓴다) 등 다양한 복장을 하고 삼동 무동(한 사람 위로 3명의 무동을 세우는 것)을 하기도 하면서 걸질마다 돌면서 놀았는데 비교적 부잣집만 둔았다고 한다. 방문을 받는 걸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 형태는 송파의 담교놀이와 유사했다고 한다.

24)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3일~15일

제 보 자 : 안유경(남, 79세)

마을에 상여김은 없어졌고, 상여는 마을회관 지하에 보관한다. 상례를 위해 전에는 '삼포제'라고 불리던 것이 지금은 '천복희'라고 하여 조직되어 있다. 지금도 가을고사를 하는 점이 상당수 있다.

8. 미신운동 산제사²⁵⁾(전승)

이 둑네는 연안이씨들이 700년 전부터 거주했다고 한다. 지금도 선조들의 산소가 마을 인근에 있다. 예전에는 마을에 풍물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상여김은 홍수로 없어지고 마을회관에 상여를 보관하다가 주민들이 삼어찌 현재는 '현대사회연구소' 입구 LG경비소 옆 콘테이너에 삼여를 보관하고 있다. 삶을 당할 때는 둑네 청년회가 상여를 맨다고 한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동제를 '산제사' 또는 '영산제(靈山祭)'라고 한다. 동제는 매우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뒷산 중턱에 있던 큰 고목이었으나 점차 서들어 15년 전 죽어버렸다고 한다.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신목(神木)이 있던 자리 앞에 있는 바위에 음식을 친설해 놓고 지낸다. 신목이 있던 자리 주위는 둥그렇게 공터로 되어 있다. 제사 대상은 산신이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초하루 0시에 한다고 하며, 전날 밤 11시 반쯤에 산에

²⁵⁾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4일, 2000년 10월 26일

제 보 자 : 문종화(남, 30세), 윤식균(남, 60세), 윤동구(남, 72세)

올라간다. 만약 주민 중에 동체 날짜와 같은 날 제사가 있으면 개인 제사를 앞당겨 한다. 윤식군씨의 경우, 산제사와 같은 날 어머니 제사가 있어 하루 앞당겨 지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산제를 앞두고는 무침개 등 제사음식을 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하여 산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나 제당에도 가지 못하게 하므로 제삿날을 다른 날로 옮긴다고 한다.

제주는 통장이 주민 중에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은 당주 집에서 차리는데, 당주 집에는 인줄(급줄)을 쳐 놓는다. 활토는 예전부터 깔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제일 하루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하는데, 전날 낮에 불·반장들이 산에 올라가 천막을 쳐놓고 제당까지 길을 내놓는다고 한다. 음식을 차리는 당주 집에서는 세를 지내는 당일, 식사 외에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는다.

한편, 현재 당주 역할은 윤동구씨 집에서 몇 단계 계승해서 맡고 있다. 윤동구씨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준비하지만 제를 지낼 때 제주 역할은 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과거에는 매년 당주를 선출하여 당주가 제주의 역할과 음식을 장관하는 것을 같이 했지만, 지금은 바탕히 제를 준비할 사람이 없어 윤동구씨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주는 마을 이장 등이 맡아 한다. 윤동구씨는 마을로부터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당주와 통·반장 등 여러 명인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여자나 상(喪)을 당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한다.

세를 지내는 순서를 보면, 삶을 차리고 불을 지펴 황불을 괴우고, 촛불을 전 다음 제주가 찬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그 다음 제주가 절을 하면 제의는 끝난다. 다른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하고 싶은 사람은 제주가 한 후에 절을 하기도 한다.

제당에서 참석자들은 간단히 응복을 하고 날 후 가지고 간 소지종이를 각자 손에 하나씩 들고 태운다. 소지종이를 태운 후 제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바위 위에 놓고 온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고시례'로 보이며, 굿을 할 때 '빛진거리'에서처럼 참가자신을 위한 배려인 것 같다. 과거에는 세를 지낸 후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 집집마다 똑같이 배분하며 돌렸으나 지금은

소머리와 음식을 당주 집에 두고,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부를 먹고, 다음 날 동네 노인들을 모셔 대접한다고 한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사 비용은 과거에는 인판에 바울 대동회의가 있어서 이 때 모은 돈으로 했으나 지금은 동네 땅에서 나오는 방세 등의 수입에서 이상의 수고비와 등제 비용을 마련하는데, 보통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상차림을 보면, 소머리, 조라술, 삼색과밀, 삼색나물, 복어로, 봉북어, 백설기 시루, 무와 두부를 넣어 만든 텁, 전, 촛불, 향 등이 사용된다. 봉북어는 소머리 옆에 놓는다. 제물을 산으로 운반할 때는 지게로 세 지게 정도가 되어 세 사람이 지고 간다고 한다. 조라술은 제당 아래 우물물을 사용하여 제사 지내기 전날 밤에 편 쌀밥에 누룩을 넣고 엿기름을 혼합해서 헹아리에 담고 물을 부어 밀봉해 제당 옆에 묻어 두었다가 사용한다. 향은 향나무에서 직접 제취한 향을 사용한다. 제물을 차릴 때는 소머리는 바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중비례 가지고 간 상에 차린다.

제기는 따로 없으며, 축문 및 등제와 관련된 기록문서는 1963년도 것부터 있는데 통장이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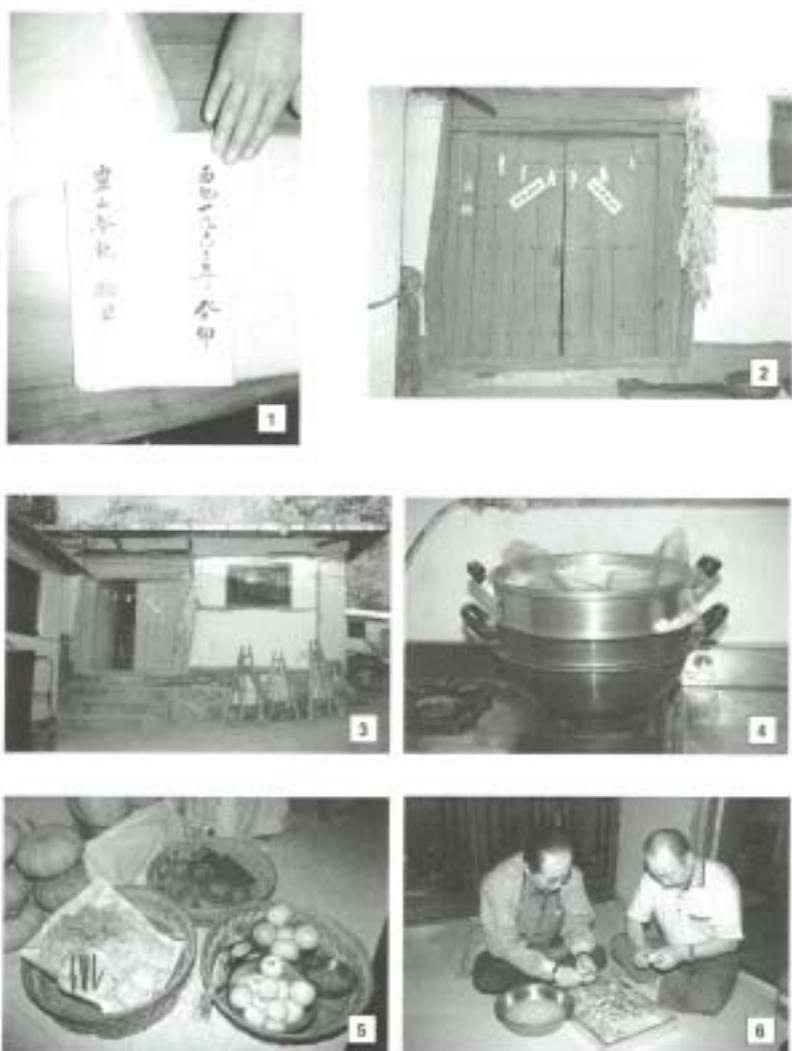
<표 5> 하산읍동 마을목사 축문

祝文
維歲次〇〇年十月一日庚午
城南市 益唐區 下山靈洞 主祀人 崔玉成
數召告祐
鎮山之靈 成無享禮 罷茲孟冬 敢此禪誠
廟宇恭仰 角敬祭儀 淨潔遵立 馨香果菜
茲以酒酌 故行尊禮 不勝恐懼 神道降亨
百拜伏望 山下居民 一百餘戶 男女老少
出家未及 洞民抵抵 或接 神体
百祥是降 百殃是除 無災羅病 (造屋萬夜)
并逐廟下 受及來歲 雨順風調 瑞益穰穡
百穀穰穰 大有風登 煙威高臨 性天之變
惡鳥之弊 斥去無犯 神道同靜 稽願頤禮
尚饗

<표 6> 1963년도 하산면동 마을재사 물목

<靈山祭祀 物目>		
西紀 一九六三年 癸酉		
祭祀日 癸酉十月初一日零時		
<物目>		
술	소두 한 말	270원
쇠머리	한 개(31근)	930원
쇠고기	두 근	200원
감	열 개	120원
밤	한 되	20원
대추	한 흄	60원
배	여섯 개	60원
사과	여섯 개	36원
콩(마대)	소두 세 되	59원
계란	열 개	55원
복어	다섯 마리	125원
간수		10원
백지	한 권	30원
양초	두 개	14원
탁주	두 되	50원
수수료		200원
합 계		2,239원
祭祀費用	每戶	27원
據出戶數		83戶
總額		2,241원
祭祀費		2,239원
種額		2원
殘額 二원은 里費로 이용함		

하산운동 산제사 과정



①하산운동 등학관련 문서 ②금을 허친 당주집 대문 ③당주집 대문앞에 큰비단 제물櫃
자개 ④당주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루떡 ⑤당주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풀



9. 운중동 산제사²⁶⁾(전승)

이 마을에는 1960년대까지 풍물페가 있었다고 한다. 농사철에 '농두례'가 있어 풍물을 칠고, 성월 대보름 역시 '마당굿' 또는 '고사반'이라고 하여 점점마다 들면서 풍물을 치고 놀았다고 한다. 풍물페를 맞이하는 집에서는 마당에 짜말 통을 올려놓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풍물페의 일행 중 한 사람은 짤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때 나오는 짤을 모은다. 지금도 마을회관에 정구와 절이 보관되어 있다. 정초에는 운중동에서도 '달맞이'(보통 '달길태우기'라고도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달맞이'라고 부른다)를 했다고 한다. 조 짚을 나이 수 만큼 폐음을 만들어 묶고, 달을 보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고 한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동제의 명칭은 '산제사' 또는 '산고사'라고 부르며, 제의 대상 신격은 산신이다. 산제사의 유래는 깊어, 마을이 생긴 이후로 줄곧 행해져 왔다고 한다. 그런데 1987년경쯤 마을에서 산제사가 단절되었다. 지금의 카센타가 있는 구(舊) 마을회관 뒤쪽에 박씨라는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이 분이 김월기라는 분에게 책리를 보아 당주와 화주를 선정해 왔으며, 제사를 지낼 때도 많은 봉사를 하고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 아주머니가 작고한 후로 마을 사람들이 동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한편, 젊은이들의 반대도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월에 조사자가 운중동에 찾을 때, 주민 박영분씨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해서 동제를 매년 2월에만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0년 2월부터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과거처럼 주민 전부의 동참은 불가능하여 2000년에는 10집 정도 차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만 성의껏 돈을 거두어 제를 치냈다고 한다. 주민 중에 특히 홍경섭씨가 동제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 2000년에는 홍경섭씨가 당주를 맡아 그의 집에서 제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26)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3일~15일, 2001년 1월 21일
체 보 자 : 김궁년(남, 65세), 김양현(남, 74세), 박영분(여, 58세)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특별한 건물 없이 신체로 이어지는 나무와 바위로 되어 있으며, '경상문화연구원 문화관' 뒷길로 올라가 고속도로를 지나 100미터 정도 더 올라가면 여러 개의 무덤이 나오는데, 그 무덤에서 서쪽으로 50미터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3) 의례 내용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삼십 초순에 바깥에서 책력을 보아 정한다고 하며, 저녁 7시쯤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제주는 당주 한 명과 화주 두 사람을 선정하는데, 당주는 주로 제당과 가까운 산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으로 정한다. 당주의 역할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등 제사를 지낼 모든 준비를 책임지며, 제의를 진행할 때 제주 역할을 한다. 한편, 화주는 가호호를 방문하여 몸을 거두고, 제사 전날에는 산에 올라가 제당으로 가는 길을 치우고, 당주를 도와 여러 가지 잡일을 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당주와 화주 그리고 마음 내 깨끗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집에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서는 안된다. 제의를 행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음식을 전설하고 당주가 관을 올리고 나서 당주와 화주가 같이 절을 두 번 한다. 축문은 읽지 않고 덕담을 한 후 소지를 올리고 끝낸다고 한다. 덕담은 동네에서 입담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데, '동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등의 축원을 하며 비손을 한다. 동네가 100호 정도 되는데, 각 가정마다 소지 한 장씩을 준비해 덕담하는 사람이 일일이 덕담을 해주면서 전부 올린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출타한 가족이나 자식들을 위해 소지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 전부 올려준다. 대개 이런 집에서는 소지값을 더 낸다. 소지종이는 보통 '사고지'라고 하여 창호지 보다 얇은 것으로 사용하는데, 소지를 올릴 때는 각 가정의 이름을 일

일이 죄어서 올란다.

제사가 끝난 후 창호지에 음식을 조금씩 떼어 담고 신체로 인식되는 나무에 묶어놓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가난한 시절에는 주민들 중에 폐가 고른 사람이 다음 날 새벽에 일찍 가서 이것을 먹거나 나무꾼들이 나무하나 산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먹는다고 한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을 하고 담주 짐에 내려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나, 옛날에도 집집마다 둘러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때 먹을 얻어먹기 위해서 과거 배고픈 시절에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담주 짐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비는 화주가 막쌀을 담기 위해 가가호호를 둘면서 한 되 정도의 뺨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한다. 출마한 자식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누구를 더 벌여주기 위해 그를 위해 소자를 추가로 더 올려달라고 하는 집이 있을 때는 '소자값'을 좀 더 받는다. 한번, 예년 돈이 남으면 예치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였다.

상차림을 보면, 소산(素山)이므로 제물로 고기를 전화 사용하지 않고, 위에 판가루를 올린 시루떡, 삼색과밀, 삼색나물, 통북어, 청수(淸水), 막걸리를 올린다고 한다. 과거에는 떡쌀을 네 말 이상 담갔다고 한다. 과밀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쓰며, 나물은 소금으로 간만 맞추고 양념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제기는 사기로 된 김시화 대접 등의 그릇과 유기로 된 촛대와 행로가 있으며, 담주 짐에서 보관하다가 다음에 새로운 담주가 선정되면 그 짐에서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대대로 내려왔으나 산제사를 지내지 않은 후로 없어졌다고 한다.

10. 판교동 신제²⁷⁾(전승)

과거에는 '남서울골프장' 관리사무소 자리에 고목(古木)이 있었고, 그 앞에 둘무더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서낭당이라고 부르고, 오가며 둘무더기 위에 들을 쌓아 올려놓기도 하였다. 가끔씩 밤에는 만신²⁸⁾들이 와서 벌거나 떡

27) 조사일시 : 1998년 11월 18일, 2000년 10월 25일

제 보 자 : 김종용(남, 70세, 김해김씨로 고조부 때부터 판교1동에서 거주해 왔다), 정민철(남, 71세)

을 실로 매달아 놓기도 하고, 오색 천 등을 매 두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 여기에 음식을 갖다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도 6·25 전후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골프장이 생긴 지도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 그 곳에는 선착로가 있었으며, 선착로를 따라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경월 대보름이 되기 며칠 전부터 마을 남자들은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 모여 줄을 묶기 시작한다. '쌍용줄다리기'라고도 하는 이 마을 줄다리기에는 큰 용과 같이 굵고 수십 미터가 넘는 건 줄을 꼬아야 한다. 보름날 저녁, 주민들은 느티나무 앞에서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면서 제를 지낸 후 시장 터에서 날마다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였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던 줄다리기는 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리 사라지고 말았다.

1) 명칭, 유래와 역사

동계의 명칭을 주민들은 흔히 산체라고 부르나, 주민 김종용씨에 의하면 도당제(都堂祭)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또한, 마을 제당에 대해서는 '산당' 또는 '산체사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

2) 제당의 위치와 형태

제당은 마을 옆 고속도로 건너편 산 정상에 있으며, 큰 참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다. 참나무 밑동에는 절으로 작은 주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티주신'을 모신 것이라고 한다. 원래 신체는 큰 고목 두 그루로 되어 있었으나 6·25 후 말라죽어서 지금의 나무를 신체로 삼았다고 한다.

당신(堂神)은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로 부른다고 김종용씨는 말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신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의례 내용

28) 주민들이 무당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다.

(1)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매년 읍력 9월 그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제를 지내는 시간은 차정이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일 선정 후 준비기간 안에 마을에 초상 또는 부정한 일이 있으면 3일 혹은 7일 후에 다시 날을 받아 지낸다고 한다.

제주를 당주라고 부르는데, 당주 선정은 예전에는 보통 제사 지내기 5일 전쯤 마을 이장이 주선해서 했다. 초상, 삼재(三災), 부인이 월경 든 집 등 부정이 있는 집을 가리고, 인근의 민들에게 가서 생기복덕을 맞추어 당주를 선정한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축관을 선정하고, 그밖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 대표자들이 제의에 참석한다고 한다. 제사 5일 전에 제주를 선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짧게 하기 위함인데, 제일이 선포되면 제주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 ‘보고·박고·말하고·듣는’ 부정을 피하여 근신하며, 제주는 부부관계를 금한다.

(2) 제의 절차와 내용

당주 집에서 음식을 비롯해 제의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한다. 당주가 선정되면 제의 준비기간 동안 당주 집에 총침(松針)이 꽂힌 금줄을 치고, 대문 앞 좌우 양쪽에 황도를 놓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000년에는 당주로 정인철씨가 선정되었는데, 집 앞에 황도는 놓여 있었지만 금줄은 없었다. 정씨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금줄은 생략한다고 한다. 마땅히 제를 준비할 집이 없어서 정인천씨는 3년째 이 마을 당주를 맡아하고 있다.

전에는 제사 하루 전에 담에 가서 주위를 청소하고 주변 우물물로 슬을 빚고 신부 아래에 묻어두었으며(하루 전에 담갔으므로 좀 덜 익었으나 그대로 올린다고 함), 그 물로 즉석에서 밥을 해서 제사 메(밥)를 준비했다고 한다. 산사태로 물 뜨는 곳이 없어진 후 지금은 당주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살으로 올라간다.

2000년에는 9월 그믐날 낮에 주민들이 제당에 올라가 주변청소를 하고 당으

29) 매년 이 날 같은 시기에 운중동, 하산운동, 판교, 분당의 청자동(신도시 개발 때 산 자체가 없어짐)에서 모두 제를 지낸다고 한다. 판교에서 산제 지낼 때 제당이 있는 산에서 보면 하산운동과 청자동의 불빛이 잘 보였다고 한다.

로 올라가는 길을 닦았다. 길으로 터주가리를 다시 만들고, 제물 차릴 상을 당나무 앞에 놓은 다음 그 위에 천막을 치두었다. 전에는 천막을 친 후 등을 단 아놓고 저녁에 불을 켜두었다고 하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믐날 저녁 제주 및 주민대표 일행은 당주 집에 모여 있다가 자경이 가까워지면 각자 배낭에 제물을 넣고 흙수를 맞추어 제당으로 향하였다. 산에 오를 때는 흙수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7명 정도가 간다고 한다. 시계를 보고 12시가 넘어 10월 상달 초하루로 힘들다면 제를 치낸다.

제물을 진설할 때 가지고 간 봉북어와 한지는 신목 아래에 있는 터주가리에 묶어둔다. 제물을 차리고 제주가 땅을 피우고 잔을 올린 후 재폐(再拜)를 하면, 속관이 속문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일반 제사 때와 같이 잔을 올리고 절할 사람은 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참식자들이 다같이 절을 한 다음 깽(羹)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다. 그 후 참식자를 모두가 한꺼번에 소지를 올리며, 통장이 대표로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비축을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페어 터주가리에 헤워두고, 속관들은 간단히 제주(祭酒)를 음복하고 당주집으로 내려온다. 당주 집에서 다시 음복을 한다. 옛날에는 큰 통돼지를 나누어 채지고기 두 균 정도와 떡을 함께 해서 점점마다 둘렀으나, 지금은 당주집에서 음복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3) 제의 도구와 제물

제사 비용은 예전에는 길집마다 돈을 거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동네기금으로 충당하는데, 1998년의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제물은 예전에는 통돼지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폐지머리로 대체되었다. 백설기, 천, 빈대떡, '갈립'(빈대떡보다 작은 떡), 두부부침, 볶어포, 파일, 조기, 삼색나물, 소고기탕, 무탕, 다시마탕 등을 올리며, 음식 양념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을 한다. 떡도 전에는 세 말 정도 해서 점점마다 둘렸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서너 되 정도만 한다. 제물도 밥, 국 각 2그릇, 떡, 삼색과일, 포, 터주신께 올린 볶어, 초, 향, 기타의 제물을 올린다.

제기는 예전에는 나무그릇과 유기로 된 제기가 있었으나, 놋그릇은 없어져서 지금은 스테인레스 그릇을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12. 기타

1) 정자동³⁰⁾(단절)

현재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로 변모하여 본토박이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동사무소와 경로당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았지만 본토박이는 만날 수 없었다. 관교동에서 산제를 지낼 때 정자동에서도 산제를 위한 불빛이 함께 보였다는 제보(1998년 관교동 조사 당시)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 산제를 지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2) 서현동 산제³¹⁾(단절)

65세가 넘는 본토박이들의 제보에 의하면 마을제사는 '산제'로 불리며 오래 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절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마을에서도 소머리를 쑤어서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가 끝난 후 머리고기를 조금씩 팔라 짐짓마다 돌렸다고 한다.

V. 조사 결과의 분석

1988년 문화재관리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제사에 대한 질문지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이 1995년 발간한 『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편』의 내용을 보면, 성남·광주지역에서 마을제사의 명칭은 산제(山祭)가 압도적이며, 제당(祭堂)의 명칭 역시 산제당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견승되고 있거나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남지역 마을제의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남지역 마을신앙의 주요 대상이 산신 제통의 신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연 마을들이 가지는 일반적 입지조건이 산을 의지하여 펼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성남지역은 남한산과 청계산 줄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터전으로

30)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4일

31) 조사일시 : 1999년 12월 15일

제보자 : 이표직(남, 84세, 노인회장), 김복수(여, 67세)

서 산의 의미는 주민들에게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 3개 구(區)의 마을제사 전승 현황을 보면, 중원구가 가장 단절이 심하다. 이 지역은 성남시 지역 가운데 일찍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전통적 자연 마을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과 일자리를 찾아 새로 이주한 사람들로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인 분당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신(新) 이주민들로 형성된 마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트바이 주민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주민들의 이동 역시 매우 활발해 '마을'이란 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외로 마을제사가 전승되는 곳이 남아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청계산 자락의 관교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농촌마을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운중동의 경우 단절된 마을제사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다시 부활한 것은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전통적 마을 공동체 제의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변화된 조건에 어떤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정구의 경우도 비슷하다. 날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서울과 접경된 마을들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통적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마을이 다른 마을들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위적 강제에 의한 전통성에 기반을 두고 유지되는 마을 공동체 제의가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구체적으로 제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따라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성남시 지역 전체에서 대개 3~4개의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동제가 행해지는 날짜를 보면 7월 1일, 9월 그믐, 11월 초, 10월 중 날을 가리서 잡는 것으로 나타난다. 크게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고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사지내는 달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10월에 날을 받아하는 경우이며, 이 때도 대개 초순에 행해지도록 한다. 정월달에 행해지는 마을제사는 보름을 전후하여 행해지지만, 지금은 그 사례가 미미한 정도이다.

마을·제의의 명칭을 보면 제의 단위를 강조하여 동네고사, 대동고사, 마을고

사로 불리거나, 위례지는 대상·신격에 주목하여 산체, 산고사, 산제사, 산신체 등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도당굿이나 장승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성남지역 마을공동체 제의의 성격은 '마을대동으로 이루어지는 산제사'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경기도의 일반적 마을 신당(神堂) 혹은 계당의 명칭이 도당(都堂)으로 불리는 데 비해, 현재 이 지역은 '산제당'이라 하여 산신이란 신격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몇 개 마을에서 마을 제의를 도당굿 또는 도당제라 하고, 제의 대상 선을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로 부르는 것은 이 지역 역시 경기도라는 더 큰 지역문화권 속에 있음을 보여주며, 예전에는 도당굿이 현재 보다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당(堂)의 수를 보면 대개 단일 제당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씩 복수 제당도 나타난다. 이 경우는 아랍동의 사례처럼 상·중·하당과 같이 나타나거나 산제당과 장승당, '도당할머니와 도당할아버지' 등으로 나타나며, 대개 여러 자연마을이 모여 함께 지내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을 형성과정의 자연적(地理的) 관련을 신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장승제가 있는 곳은 그 위치가 마을 입구에 해당하며 풍수지리상의 '수살막이(수구막이)'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제당의 중심을 이루는 신체(神體)는 대개 신목(神木)으로 표현되는데, 참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의 수종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참나무류가 많은 것은 이 곳의 자연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당의 구성은 신목(+바위), 신목+터주가리, 신목+터주가리+당집의 형식으로 나타나, 대개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기본으로 신앙 대상물이 분화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집이 있는 경우는 대개 마을제사를 위한 제기(祭器)는 그 곳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제관은 대개 이어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핵심적인 제주는 당주(堂主)라 불리며 제물을 장만하고 제의를 진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특히 '안당주'라고 하며, 이외에도 전당주(파깥당주)라고 하여 제당 청소와 제비추련 등 유사로서 나머지 히드렛일을 도와주는 제관이 있다. 그밖에 축문이 있는 곳에서는 축관을 따로 학문한 사람 중에서 뽑게 된다. 마을 내 글을 잘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 축관은 한 사람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당주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마을제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제물 준비 등은 번거롭고 금기가 따르는 등 힘든 일로 여겨지자 이를 마땅히 말을 사람이 적어져서 당주가 한 사람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당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마을로부터 약간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사의 관행이 시대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변모의 사례로 제물의 변화를 들 수도 있다. 대체로 크게 지내는 곳에서는 중요한 제물로 소를 썼는데, 통째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의 앞뒤다리, 내장 등 온마리를 상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섹어 올리다가 소머리를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사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소 대신 돼지를 통째로 올리는 마을도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소머리를 올리던 것에서 돼지머리로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제사비용과 관계 있고, 이는 마을의 경제적 형편과 이어진다.

제물로 차려지는 음식의 가치 수 역시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의가 끝나면 제물로 올려진 음식들은 마을의 가구 수대로 고루 나누어 집집이 돌려서 나눠먹거나 아니면 제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주 집에 모여 음복을 하던 것에서, 꼼석하는 제관들 혹은 기타 참석자들끼리만 음복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 역시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제물이 줄어들면서 제의 역시 간편화의 추세를 겪고 있는데, 이 들은 동시에 상호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대부분의 마을제사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식의 제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의 시간은 차정을 전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촛불을 켜고 황을 피우며 제물을 진설하고 헌작, 절, 독축, 재배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고사 양식은 제사를 끝마친 후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한 소지를 올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마을제사의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은 과거에는 집집마다 빨을 내거나 돈을 조금씩 거둬서 충당하였지만, 요즘은 마을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제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제비 역시 제의 참가를 원하는 집에 한해서만 거두게 됨으로써 마을제사가 예전과 같이 마을 전체의 일체감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체가 전승되는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대부분이 도시 인근 마을이라는 입지조건 때문에 외지인들이 세입자들로 많이 거주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기독교의 보금과 전통적 생활양식의 변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편 가정신앙

- I. 가정신앙의 성격과 의미
- II. 수정구의 가정신앙
- III. 중원구의 가정신앙
- IV. 중원구의 가정신앙
- V. 조사 결과의 분석

제3편 가정신앙

1. 가정신앙의 성격과 의미

마을 생활의 구체적 단위로서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있어 직접적·물리적 토대가 되며, 통시적으로는 개별적인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사회적·공간적 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집은 사람들의 삶에서 마을이란 큰 세계 속의 또 다른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과 집이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신앙행위인 동제와 가신에 대한 제의 역시 일정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가신제의는 동제의 제일을 앞질러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가족의 안녕과 풍요이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터의 정화(淨化) 및 시간적으로는 집의 계승을 통한 연속성 확보로 나타나며, 그 시·공간 속에서 인간에 의한 생산활동으로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원을 충원하며, 안정된 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를 설정하고 신앙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심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도 지역 가신신앙의 일반적 특징은 그 어떤 신격보다 터주신에 대한 신앙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성남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터주는 대개 터주가리로 불리는데 벼를 담은 항아리 위에 짚주자리를 둔 형태의 신체를 갖는다. 깁이라는 공간에서의 안녕과 함께 생산신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건물 내에서는 성주와 살신이 나타나는데, 성주는 상량식 때 짜 불인 대들보의 측문 아래에서 제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별한 신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살신은 대개 '살신제식'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제식만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불교와의 습합

(習合)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에 대한 신앙이 현재 개별 신격에 대한 특별한 제의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김안고사라는 제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행해진다. 일 년에 두 번 고사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김안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인 가신제의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으며, 명절을 맞아 가신들에게 따로 제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사가 두 번 행해지는 경우, 정월과 가을 추수 후인 음력 10월 상단에 이루어지는데, 성남지역에서는 이를 각각 정월고사와 가을고사라고 부른다.

이것은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깨달에 가신에 대한 제의가 대체로 농업력(農業歷)에 바탕을 둔 세시행사의 하나로서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정월의 제의는 새로운 한 해를 무사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祈願祭)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음력 10월은 상단이라고 하여 추수를 끝낸 후 감사제의 성격을 갖는 제의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집에서 가을고사만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며, 이것도 고사라는 명칭 대신 '가을떡' 한다고 부른다. 이는 주민들이 가신에 대한 신앙을 일종의 미신으로 인식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한편으로 가을고사가 예전과 같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조장에게 그 해 추수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도이다.

따라서 현재 가신제의를 전승하고 있는 집들도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되거나 노인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역시 전승이 단절될 위험이 안고 있다고 하겠다.

수정구의 가정신양

- 창곡동 (창말)
- 복정동 (안골마을)
- 고등동
- 신촌동
- 심곡동
- 상적동 (햇골)
- 시흥동 (모랫말)
- 사송동

II. 수청구의 가정신앙

단대동과 산성동은 이미 옛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집들도 다 가구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서 기존 주민들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가신신앙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친절이 단대동이었던 강순임 할머니에 의하면 터주가리를 만들어두고 여러 가신들을 위하는 가을고사를 해했다고 하여 예전에 농사를 짓던 시기에는 이 마을에도 가신신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 창곡동(창일)



남한산 자락 아래 풀弛진 창곡동(창일) 전경

이 마을은 남한산성 생활권(生活圈)으로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근의 광주군, 하남시 등에서 혼인(婚入)한 사람들로 그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이들이었다. 이 마을은 옛날에 광주군 중부면에 속했고, 신양 역시 남한산성과 관련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창곡동의 자연마을 명칭은 꽃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 이 마을에 사람들이 몇 집 살지 않았을 때 마을 위 남한산성 아래를

에 무기고(武器庫)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 무기고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병자호란 때의 진(陣) 터가 있었다고도 한다. 마을명의 '창'이 주민들의 말대로 무기의 하나인 창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창고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날한산성에 진을 치고 있는 군대의 병기 창(兵櫓巒)이 있었던 곳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과거에는 현재의 군부대가 있는 땅까지가 모두 토지였지만, 해방 후 군용지(軍用地)로 편입되면서 한동안은 그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마을 농지가 있었던 곳에는 군부대가 들어섰고, 지금은 군인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집터로 많이 빼앗기고, '삼대기'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만이 마을의 생활 터전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농사도 거의 없게 되었는데, 곡물은 주로 죠, 보리, 콩 등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 주민들은 총과장(현재 원선여성 근처 파출소가 있는 지역)을 이용했는데, 나무를 베리에 이고 팔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호장까지 보기도 했다.

해방 전부터 이 마을은 매우 가난했으며, 예로부터는 보리죽도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계다가 전통적으로 각성반이 많아 단합이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해방 이전부터 '산제사'(산신제)는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황령조씨, 전주이씨, 밀양박씨들이 중심 성씨이며, 조씨들이 가장 먼저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마을 노인회원의 한터뷰에 참하고 있는 제보자들

<화로부터 김난희(72세), 박명례(67세), 염풀금(71세), 김철순(81세)씨>

현재 이 마을은 농사짓는 가구는 거의 없고, 그린벨트로 묶인 곳으로 서울 인근에서 짐 값이 싸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많다. 호수는 100호가 채 안되지만, 가구 수는 200호를 넘는다고 한다. 대개 옛날 짐을 중축하거나 방을 들여 세를 놓았다. 빈방이 없을 정도로 임대가 잘 되는데, 이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농사에만 의존해서는 생활할 수 없고 가까운 곳으로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았다. 수도가 들어온 것은 4, 5년 전의 일이고, 그 전에는 각 짐에서 펌프를 박아 우물을 대신해 썼다. 물론 펌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한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소나무 아래 마을 공동의 우물(사람들은 이를 '마가지물'이라고 했다)이 있었다. 지금은 나무판으로 우물을 덮어 놓고 천막을 치어 보존하고 있는데, 어떤 보살이 지나가면서 물을 없애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길들이 10여 년 전부터 가축을 증·개축한 이후 가신(家神)의 신체(神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신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현재 가을고사를 지내고 있는 짐은 두 짐 밖에 없었다.

1) 이갑수씨 막32(전승)

(1) 유래와 역사

이 집의 가정신왕은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가을고사 때도 남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 물려진다. 시어머니 강순임씨는 성남시 단대2동("금관")에서 20세에 이 마을로 시집 왔는데, 천정은 부유했고 천정어머니가 잘 벌던 분이었지만, 자신은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며느리인 박영례씨에게 모두 물려주고 자신은 "딱만 조금 받아먹을 뿐"이라고 하며, 옛날에 비해 이제 대부분의 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며느리 박씨



제보자 박영례씨

32) 조사일시 : 2000년 11월 5일, 2001년 1월 16일

제보자 : 이갑수(남, 67세, 창곡동 164-10번지), 강순임(여, 83세, 이갑수씨의 어머니), 박영례(여, 67세, 이갑수씨의 무인)

는 하남시 서부면 경립이란 곳에서 18세에 시집왔다고 한다. 전쟁이 떡 끝나고 시집온 셈인데, 와서 보니 폐난 갈 때 치나갔던 마을이더라고 하였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흐름도 고사를 실제로 행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악식화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절에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우선 전통적 가정신앙은 가을고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은 동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사라고 하지 않고 '가을떡'이라고만 부르며, 가을에 떡을 빼서 이웃끼리 나눠먹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에전에는 절구 뛰었다'는 언급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은 '가을떡'을 하기 위해 새로 수확한 쌀을 절구에 넣고 직접 뛰어서 고사를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가을고사 행례(行祭) 여무를 나타낸다. 떡방앗간이 따로 없었던 과거에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죄김 짐에서 쌀을 빼아 시루에 편 다음, 그 시루에 고사를 올렸던 것이다.

이 짐은 시어머니인 창순임 할미니가 시집왔을 때에도 따로 신체를 마련해둔 것은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놓는 곳을 보면 대개 여러 선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신은 성주, 터주, 터줏대감, 삼신 등이다. 특이한 것은 뒤쪽에 터주와 (터주)대감 두 신을 모신다는 것이다. 터주와 대감은 모두 장독대 옆에 있었고, '난한산'을 불러서 '산시루'를 놓았다. 삼신에 대해서는 '(삼신)할머니'라고는 해도 '제석'(혹은 '자석')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일 년에 한 번 가을 추수 후 10월 상달에 좋은 날을 잡아서 고사를 올렸다고 한다. 특별히 날을 잡는 것은 아니고 달력을 보고 잡기도 하는데, 이 집에서는 특별히 가리는 날은 없었다고 한다. 일단 고사날을 잡으면 가리는(금기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초상집에 다녀오면 한 일주일은 끼려서 하지 않는다. 만약 부정을 보면 시루가 안 빠질 때가 많은데, 이때는 복어를 대거리 부분만 잘라서 시루에 거꾸로 꽂아서 편다고 한다. 고사 지내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조심을 했다.

추석에 송편을 해서도 먼저 터에 놓았다가 먹었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 절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간소화되었다. 시루도 예전의 오지 시루에서 현재의 스테인레스 시루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개별 선들을 위한 각각의 시루를 채 곳곳에 놓았다. 이 집은 모든 선체(神體)가 전공파인데, 제일 먼저 안방 벽장 앞에서 삼신에게 ‘삼신(할머니)시루’라고 하여 흰 백설기(“하얀 할머니 먹”)를 하여 올렸다고 한다. 특별히 따로 위한 것은 아니고 가을고사 때 막만 놓았다는 것이다. 다음, ‘안시루’라고 하여 청주에 놓는다. 시루 뒤 마루 대들보 아래에 놓고 청주를 뛰어는 것이다. 술 한 잔 같이 부어놓고 서어머니가 “일년 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다음으로 터에 두 개의 시루를 올리는데, 각각 터주시루와 대감시루라고 하였다. 장순임 할머니는 굽을 할 때 보면, 만신들이 “뒷뜰에는 터줏대감, 안뜰에는 순력대감”이라고 읊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터주는 터주가리를 의미하고, 대감은 마루 구석에 황아리 속에 벼를 넣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대감’은 누구나고 하니까 ‘터줏대감(텃대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환이 있는 집에서 굽을 할 때면 대감굿이 매우 큰굿이었다고 했다. 굽하는 집에서는 따로 업과 대감을 구별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신들은 업을 모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음에 안마당으로 와서 난한산을 물려서 ‘산시루’를 올리는데, 이는 대개 풍선키(풍시루)를 뺐다. 집에 따라 삼신을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백설기를 산 시루로 올렸다고 한다. 문간에도 시루를 올렸다. 시루 뒤 올리는 고사가 끝나면 떡을 잘라서 집시에 달아 부엌, 팔, 외양간 그리고 각 방에 가져다 두었다. 무언에는 부뚜막 위에다 올려놓았고, 소를 길렀을 때는 외양간에도 가져다 두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고사가 모두 끝나면 떡을 잘라 아웃과 모두 나눠먹었다. 요즘에는 그냥 시루 뒤 마루에 놓았다가 바로 잘라서 각 방에 놓고 이웃의 몇 집과만 나눠먹는다고 한다. 기독교 신자들인 경우 고사떡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는 물리지 않는다.

[33] 민간신앙에서 물결적 선체(神體)를 따로 마련해 두지는 않았지만, 그 선체(神體)에 위치하는 곳을 따로 설정하고 존재를 인정할 때 이를 나타내는 민간어휘이다.

(5) 제희 도구와 계율

고사에 특별한 제구(祭具)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루이고, 그 외에는 박을 잘라 담을 수 있는 접시류, 그리고 술(보통 막걸리)을 부을 수 있는 잔이 하나면 된다. 술을 쓰지 않을 때는 맑은 물(清水)을 한 그릇 옮겨놓기도 한다. 상에다 제물을 차려서 옮리고, 오후에 시작해서 어두워진 경우는 촛불을 켜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별히 비는 말은 없었다고 한다.

2) 염필규씨 댁³⁴⁾(단절)

김현동(과거에는 '독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에서 17세에 시집왔다. 시집오기 전 침에서는 경숙이라고 불렸는데, 침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바라는 뜻에서 호적에 그런 이름을 옮리게 된 것이라 한다. 요즘은 가을고사를 옮리지 않는다.

(1) 유래와 역사

이 침에서는 시집화서 '터주'한 주저리 형태의 신체가 있었고, 다른 신들은 신체가 없는 전궁이었다고 한다. 역시 친구를 빙어해서 떡을 했는데, 삼신은 모시지 않았다.(‘할머니시루’를 옮겼다는 강순임씨 계보에 자신들은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그대로 옮겨받았지만, 예전에 침을 새로 고쳐 치울 때 건물을 확장해 내느라고 ‘터’ 자리(터주가리가 있던 곳)만 남기고 신체는 없앴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뒤뜰에 터주가 있었는데 주저리 형태를 하고 있었고, 대감독이라 하여 작은 단지에 바를 달아둔 것이 마루에 따로 있었다. 터주가리는 고사 때 해마다 갈아 쐬우기도 했지만, 계속 주저리를 해 쐬우기만 해서 매우 크게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그것을 전부 벗겨내서 안마당에서 불태웠다고 한다. 터주향아리 또는 대감독에 넣어 두었던 쌈은 해마다 새로 수확한 것으로 같아

34) 조사일시 : 2001년 1월 16일
체 보 자 : 염필규(여, 71세, 창곡동 221-5번지)

답았는데, 묵은 벼는 쟁어서 밥을 해먹었다. 김에 따라서는 벼 대신 쌀을 넣어 두는 경우도 있다. 대감독을 전물 바탕에 두었던 경우는 벼를 넷가에 띄우기도 하였다. 이는 대감독에 뿌영이 없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들이쳐 벼가 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체보자는 고사를 차내는 것을 “고사 참는다”고 하였다. 금기 중에서도 ‘파부정’이 엄격하여 고사를 앞두고 출산한 김에는 다니지 않는다. '(터주)대감'을 모시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아는 마을 내 어떤 김은 큰굿을 하던 김인데, 시어머니와 머느리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대감독을 마당에 던져 놓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 빌로 병이 들어 돌아가시고 혼자 대에 가서는 때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마음대로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굿을 하면 그 내력이 다 나온다고 한다. 자신들은 김을 개축(改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역시 새로 수확한 쌀을 철구에 넣고 방마를 벗은 다음 두세 시루의 떡을 빼 마루와 터에 올린다. 산신을 모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산신은 없었다고 했다. 시집은 이후 시어머니가 비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으며 자신도 빌지는 않는다고 한다. 나마지 절차는 거의 같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역시 이김수씨 댁과 같았다.

3) 조규택씨 댁³⁵⁾(전승)

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까닭에 14세 어린 나이에 시킬랐는데, 남편은 당시 17세였다고 한다. 천정은 경기도 광주군 충부면 경안으로, 어머니를

³⁵⁾ 조사일시 : 2001년 1월 16일

제 보 자 : 박윤관(여, 82세, 꿈곡동 302-1번지, 조규택씨의 어머니)

일찍 여의어 천정에서 하던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창령조씨 택으로, 박씨의 머느리와 딸이 이전에 있는 곳에 다니며, 박춘관 할머니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보살의 곁에 다닌다고 하는데,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다.



제보자 박춘관씨
(뒤쪽 벽에 있는 사람은 제보자인 큰손녀)

(1) 유래와 역사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떠원으며, 지금까지 하나도 미한 것도 덜한 것도 없이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고 한다. 행랑채를 더 내서 집을 확대하는 바람에 안마달이 좀 좁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개축된 집의 구조도 옛날 집 구조와 똑같다고 하였다. 부엌과 안방 뒤쪽으로 창독대가 있고, 그 한쪽에 밤나무 죽은 것이 있는데 그 아래가 터주가 있었던 장소였다. 이전히 매년 가을 고사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벽을 서너 시루 짹 곳곳에 올린다. 이 집은 예로부터 마음에서 농사가 많은 집이었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박춘관 할머니는 신격의 치능(職能)에 대해 “안 방에서 성주님이 받들이 주시고 바깥에서 ‘주왕님’(조왕), 산신님이 받들이 주신다”라고 하였다. 시루 짹 바치는 각 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규책 씨 댁 만방의 삼신(고밀힘)

① 삼신

이 집에서 모셔지는 신들은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중요하게 인식되는 신들에 대해서 시루 짹 벽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 중심되는 신격을 알 수 있다. 먼저 안방에는 삼신체석(‘삼신지석’)이 있다. 남향집의 서쪽, 안방 남동량 벽 모서리에 한자로 고를을 만

들어 썩혔다. 고맙 속에는 무명 천으로 만든 전대처럼 생긴 자루에 짚을 넣어 두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그 끌대로부터 물려받았기에 자루 속에 있는 내용물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 죄운 한지는 짚은 지 3년째 되었다. 벗겨낸 고깔은 안마당에서 물에 태우는데, “삼신할머니, 새 옷 입혀드리니 맹 길고 복 많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 매년 가을고사 때마다 고깔을 갈아 씨워야 하지만, 신체를 합부로 만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지지 않으면 그냥 두고 있다고 한다. 짚을 수리할 때는 제석을 떼서 한편에 흰 백지를 깔고 잘 모셨다가 다시 그대로 달았다고 한다.

③ 성주

마루에는 성주가 있는데, 과거에는 대들보 위에 환지를 붙여놓았다고 한다. 만선을 블러서 짐안굿을 할 때 ‘성주님 받아 모신다’라고 하여, 환지에 대주(가장)의 성명과 성주 받는 날짜를 짜서 박걸리에 적신 다음 마루 위 대들보에 붙였다고 한다. 이렇게 붙인 성주는 다음 번 굿을 할 때 빼서 역시 안마당에서 불살랐다. 그러나 짐수리를 하여 대들보 뒷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된 때부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헌재 성주는 전궁이다.



조규택서 대 거실
천정의 성주 모신 대들보(건讼)

④ 터

뒤뜰에는 ‘터주’와 ‘터대감’을 모시고 있다. ‘터주님’이라 불리는 터주는 창독간 옆에 위치하는데, 항아리는 없이 주저리만 죄우고 그 위에 숟가지를 얹어놓았다. 그것은 남편이 해주었다고 하였다. ‘터(주)대감’은 주저리를 씌운 것은 아니고 활아리 속



조규택서 약 터주자리로 만식되는 뒤뜰 접목대

에 밭을 넣어두었다. 이 땅은 고사 때 새 땅으로 갈아놓고 묵은 땅은 다른 땅과 섞어서 농작물을 하였다.

④ 장군님

이 집에서 가장 세고 풍한 신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 질문에 '장군님'이라고 대답하였다. 원래는 작은 집에서 처음 신체로 칼과 활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집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이 집으로 가져왔고, 박대를 할 수 없어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장군님'은 '조장군님'으로도 불리며 전쟁에서 큰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장군'이라고 하여 서울 '동관 남묘'에도 모셔졌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만신의 절에 모셔두었는데, 새로 감옷과 투구, 칼, 활 등 일습(一體)을 구입해 모셔두었다고 한다.

이 집에서 '장군님'은 조상으로 모시지는 것이다. 특별히 집에 신체는 없지만 바구 북쪽 안방과 붙어있는 벽 쪽(현재 화장실 문 쪽)으로 그 위치를 잡는다. 예전부터 그 쪽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굿을 하거나 모르는 만신들에게 찾아가거나 하면 '이 집에는 이렇게 용한 분이 계신데 왜 모시지 않느냐'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장군님' 부르는 굿을 하기도 했다.

⑤ 기타

남한산신 혹은 '남한산 서낭님'을 모시는데, '산시부'라고 하여 산시부 하나를 따로 빼서 고사 때 남한산 쪽을 보고 '산신님'을 불러 칭한다. 남한산은 매우 영험한 산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하려 남한산에 올라가는 마을 사람도 많고, 그 안에서 나라굿을 열기도 할 정도라고 한다. 산신고사가 끝나면 남한산 서낭님에게도 빙을 잘라서 놓고 빈다. 대문간에도 빙을 놓고 비는데, 특별히 문신(門神)을 칭하지는 않는다. 마을 내 다른 집들에서는 대문에 엄나무 가지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으나, 이 집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한다.

(3) 계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는 절에 가서 따로 좋은 날을 잡아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달력에 그려진 일일 간지를 보고 정한다. 가장 좋은 날은 '산신 날'(호랑이날, 寅日)이

며, 그 외 '말날'(午日)도 좋은 날로 여겨진다. 날이 잠하면 부정을 막기 위해 조심하는데, 집 식구들은 상가 집에 가서 많으며 상주가 된 사람이 오는 것을 꺼린다. 때문에 3월 전에 대문에 인줄(금줄)을 매고 활도를 떠다가 대문 기둥 밖으로 두 곳에 뿌려두었다. 인줄은 짚으로 원 세끼를 묶는데, 세끼 중간 중간에 젖을 하나씩 길게 늘인다. 집안 남자들은 고사 때 특별히 참여하지는 않지만, 인줄을 만들고 붉은 흙을 퍼와서 뿌리는 일을 한다. 이 마을에는 붉은 흙이 많아서 아무 곳에서나 써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정월 초하루, 청월 대보름 그리고 추석을 꼽는데, 정초에는 차례만 음료를 빴이다. 이 집에서는 정월 대보름 안쪽에 좋은 날(호랑이날)을 잡아 하루, 4월 초파일, 그리고 7월 칠석에 때면 '장군님' 모신 절에 찾아가는 데, 이 때는 뺨, 초, 과일, 쇠고기, (만수)향, 돈을 가져간다. 절에서 가져간 판로 삼군사투를 써고, 쇠고기는 삶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재물로 올리는 것이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 날 오후쯤 떡시루를 써는데, 팔 4달과 팔 1달을 써서 다섯 시루를 써야한다. 지금은 밤낮간에서 떡을 해오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오지 시루에 팔한 키, 그 위에 팔한 키 하는 식으로 업어 끓시루떡을 했다. 제일 먼저 방에서 '삼신할머니'(직접 그렇게 물렸다)에게 한 시루를 올린다. 그리고 "삼신 자식 땅 깊고 복 많게 아픈 데 없게 거둬달라"고 빌었다. 삼신은 이 고사 때 외에 따로 아이를 낳았을 때나 아이들이 아플 때 상을 차려 위한다. 지금 22세인 큰손녀만 집에서 낳았다고 하는데, 이 때 출산한 날과 세이래 날을 기해 삼신상을 차렸다. 상에 밑, 미역국, 옥수(玉水, 냉수) 각 한 그릇씩, 그리고 수저 한 벌을 놓았으며, 촛불을 양쪽으로 두 개 켰다. 특별히 미역오리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별원에서 낳을 때에는 옥수를 떠놓고 알리기만 하였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상에 '옥수'(냉수)만 떠놓고 빌었다.

다음으로, 마루에 나와 따로 성주시루를 차리고 빈다. "1년 열두 달 무고하고, 밤이면 불 밟히고 낮이면 물 밟히고, 대주 가는 곳마다 도와달라"고 빌었다. 성주고사가 끝나면 시루는 부엌으로 가져가서 조왕에게 빈다. 그 다음 '봉당'(안마당)에서 산시루를 차리고 남한산을 보고 산신님을 모신다. 산신고사가

끝난 시무는 나중에 남한산 서남님을 위할 때 빈다. 다시 마루로 올라와 장군님 앞에 시무를 놓고 빈다. 이 시무는 나중에 대문간으로 가져다 놓고 빈다. 뒤뜰으로 나가 창독대 위에 터주시무를 차리는데, 떡시무 외에 약주(막걸리)와 뚝어를 함께 놓는다. 그 다음 서낭님에게 빌고, 대문간으로 가서 “나쁜 인간 내보내고 좋은 인간 들여보내 달라”고 빈다. 이후 여러 곳으로 시무를 가지고 다니며 빌었지만, 지금은 힘에 부쳐 하지 못한다. 고사가 끝난 후 떡을 잘라 이웃들과 함께 나눠먹었다.

고사 지내는 순서를 정리해 보면, ①삼신(안방)→②성주(마루 중간)→③조왕(부엌)→④산신(안마당)→⑤장군님(마루 북쪽)→⑥터주/타대감(뒤뜰 창독대)→⑦서낭(안마당)→⑧문신(대문)의 순이다. 따로 시무를 받는 신격은 ①, ②, ③, ④, ⑥으로, 모두 다섯 시무가 필요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따로 삼신시무를 하지 않아서 모두 네 시무를 뺀다. 고사 지내는 순서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안방에서 시작해서 마루→부엌→안마당→뒤뜰→안마당→대문으로 선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짐찰이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안방에서부터 절차 밖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⑤의 ‘장군님’은 원래 이 대에서 모시던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의 순서와 신의 과정(生定)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일상적인 생활에서 특별히 부질을 가시기 위해 이용하는 물품이 있다. 석구 중에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묶은 통고추와 통후추 3개씩을 가지고 번소에 가서 빙된다. 또 부질을 막기 위해 박할머니의 남편에게 계장 담가두었던 게 다리를 싸보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기어')는 가을 추수 후 논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것을 참아다 계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게가 없는 때에는 통고추를 이용한 것이다.

2. 독정동(인글마을)

이 지역 사람들은 역시 일제시대에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 때는 젖신을 신고 다닌 때였고, 남한산성을 ‘서풀’이라고 했다. 현

제 마을 앞에는 느티나무 노거수(老巨樹)가 있는데, 수령은 80년 정도 되었으며 1990년 수성구 나루로 지정되었다. 관리자는 강사학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울교 이주하였으며, 느티나무 앞에 있던 집은 외지인에게 팔려 2층 양옥의 저택이 들어섰다. 이 마을은 현재 그린벨트로 둑여있지만, 기존 주택에 한해서 개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와 새로 집을 고쳐 살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편, 이 마을에도 각 집마다 행랑채를 지어서 새를 주고 있다.

예로부터 진주감씨들의 김설촌이었고, 이들은 구한말(舊韓末) 중앙정부에서 벼슬한 사람이 나을 정도로 대단한 양반들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배년 시사(時祀)를 올리고 있다. 노거수 역시 제보자인 강행식씨에 따르면 3경승이 나길 바라며 자신의 고조부 때 심었다고 한다.

마을제사는 따로 없었지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경월 대보름 전날에 쌀을 모아 남녀로 나누어 줄다리기가 행해졌다. 여자 측이 이기면 보리풀년이 든다고 하였는데, 아이들도 여자 측에 끼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대개 보리를 많이 심었고, 보리 심은 후 그 곳에 풍이나 조를 심는데, 가장 바쁠 때 나오는 것이 보리였다고 한다.



마을의 노거수와 오른쪽 뒤로 보이는 제보자 강행식씨 댁

1] 강형식씨 덕36(전승)

(1) 유래와 역사

이 집에서는 가을고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먹 해먹는 것 뿐”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리오는 가을고사를 지내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이고, 농사 끝난 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기 때문에 “뭐가 해로울 게 있느냐”고 하였다. 마당 앞에는 우물이 있지만, 지금은 수도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특별히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당 뒤쪽 창독대에 티주가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애버렸다고 한다. 제보자는 가을고사가 추수 후 조상들에게 올리는 ‘감사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가신을 모시는 ‘마신제’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고사 날은 특별히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 10월 상단에 무오일(戊午日)이 좋지만, 안 되면 가능한 한 말날(午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10월에 시사(時祀)가 있어서 이 날과 겹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사가 끝난 후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가을고사 역시 10월 무오일에 시사 일자와 겹쳐서 뒤로 미루어졌다. 고사 준비로는 금줄은 치지 않고 황토만 대문 앞에 세운다. 그리고 난을 카야놓고는 여러 가지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요즘은 방앗간에 가서 시루떡(스테인레스 시루를 사용)을 쪘기 가지고지만, 예전에는 직접 절구에 넣고 빵하루 쟁어 오지 시루에 떡을 뺐다. 시루 채 상위에 놓고 시루 안에는 팔 담은 그릇을 놓는다. 그 옆에 북어를 놓거나 북어

36) 조사일자 : 2000년 11월 5일, 2001년 1월 17일

제 보 자 : 강형식(남, 72세, 북정동 130번지)

와 술을 놓기도 한다. 마루에서 시작하여 “방방이(각 방에) 올린다.” 점 인에서 다 지내면 바닥에 나와 뒤뜰 창독대에서 터주에 올린다. 그리고 바닥 앞에 있는 우물에도 떡을 올린다. 우물은 비록 지금 쓰지는 않지만 매우 자주 위에 덮개를 쳐워놓았는데, 예전히 물이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 백에 터주가리 같은 것이 있나요?”라고 묻자, “성주가 곤 터와 같다”고 대답하였다. 마을 내에 있는 강씨들과 친척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카을떡’을 채먹는 점은 아마 자신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인식은 나오지 않았다. 삼신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체는 없었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고사가 끝나면 은 마음이 다 떡을 나눠먹었지만, 요즘은 그냥 식구끼리, 그리고 가까운 일가(一家)끼리만 나눠먹을 뿐이라고 하였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특별한 제의 도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떡사루와 나줏에 떡을 잘라 여러 곳에 둘 때 필요한 점시, 막걸리, 볶어 등을 차리는 상이 있을 뿐이다.

2) 감사관씨 떡³⁷⁾(단절)

용인에서 19세에 출가하였다. 출가 당시 이 백은 제보자의 시조부가 조경에서 비슬을 봄 있었기 때문에 서울 사직동에서 살았다고 했다. 물론 본래은 복정동 현재 살고 있는 점이었다. 기화를 않은 행랑재가 있는 고가(古家)가 지금도 똑같은 내부구조로 계층되어 있다. 시조부는 3형제 중 막내였지만 시조부 때부터 장손 김이어서 살림이 매우 컸고, 손님들이 끊임이 없었으며 특히 복정동에서 오는 친척들은 모두 들러서 갖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한다. 6·25 전쟁 중에 피난을 위해 본택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일제(日帝) 때만 해도 복정동에서 소작 준 양식을 가져다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당시 토지개혁 때 대부분의 토지를 잃어버렸고, 그나마 전쟁 중에 복정동에 내려와 있어서 지금의 토지는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37) 조사일자 : 2001년 1월 17일

제보자 : 이원율(여, 77세, 복정동 140-2, 감사관씨의 아버니)

제보자는 특별한 종교는 없으며, 다만 조상들 제사만 받들고 살았다고 한다. 현재 아들 내외와 손자들은 모두 기독교를 믿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조만간 다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아직도 옛 양반 택 마님의 기쁨을 지니고 있는 단아한 분이셨는데,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일어버린 반단이 때문에 몹시 충격에 하셨다. 그 반단이 자체도 꽤 좋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시조부께서 당신 제사 받아갈수기 위해 직접 마련한 유기(餘器)로 된 계기가 한 번 들어있었는데, 그것까지 밀어버리면서 조상님 별 면복이 없다고 하였다.



제보자 미연씨

(1) 유래와 역사

천정인 용인에서도 시금오기 전에 가을고사를 지냈으며, 서울로 시길와서도 역시 바찬가지로 고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단지 천정에서는 직접 천구전에서 떡을 만들었지만, 서울로 왔을 때는 방앗간에서 해오는 것이 달랐을 뿐이라고 하였다. 설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로 인식되었고 정월 보름을 전후해 널뛰기가 놀아졌으며, 단오 때는 젊은 여인들이 그네도 뛰었는데, 지금 노거수 있는 자리에 그네를 떠었다고 한다. 북경동으로 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가을고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있다. 이원을 할머니는 소작의 인기가 없어지면서 직접 조금씩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같이 사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농사를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지금은 어디서 놀아 들어오나?” 그러나 안 하지라는 말처럼, 농사가 그 힘을 빼고 아무도 자식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할머니가 살림에 손을 빼면서부터 더 이상 가을고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을고사는 추수감사의 천신(天神) 제의도서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 집에서는 특별히 신체를 모신 것이 없는 건공 선들이었는데, 확실히 그 아파가 인식된 신격은 몇 개 되지 않았다. 바루에는 성주가 있고, 창독관에는

터(주), 그리고 부뚜막에는 '주왕'(조왕)이 있다고 했다. 삼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들 때는 어른들로부터 전해 받은 비방(秘方)이 있어 해 먹었을 뿐, 삼신께 따로 빙거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삼신상을 차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병이 나면 과뿌리에 멋기름을 섞고 들기름을 조금 부어서 화로에 올려 끓여 끓인다. 그러면 국물이 조금 생겨나는데, 이 물을 조금씩 먹었다고 한다. 터주 역시 아무런 신체 악이 건강으로 인식되었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이 집은 특별하게 일 년에 두 번 고사를 올렸는데, 정월에 한 번, 또 가을 추수 후 10월 상달에 한 번 올린다. 정월고사는 보름 안에 밭날을 잡아서 했다. 가을고사는 만신에게 묻거나 책력을 보고 날짜를 특별히 잡거나 하지 않았고 추수가 다 끝나고 바쁘지 않은 10월 상달에 든 무오일이나 보통 밭날을 잡아서 고사를 올린다. 특별히 금줄을 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떡을 하기 위해 팔을 닦 말썩 했는데, 이 정도 분량에는 팔이 한 말 반쯤 필요하다. 예전에는 서 팔 짜리 시루가 있어서 두세 시루쯤 했지만, 요즘은 오자로 된 두 팔 짜리 시루밖에 없다. 큰 시루를 뜯 때는 집안에서 미습 일을 해주던 광정들이 맛잡고 들어내야 할 정도로 무거웠으며, 방아에 빙는 것도 미습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의 남자들은 제의에 대해 모른 적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과거에 송파장을 이용했는데, 성남에 모란장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모란장은 생긴지 한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송파장까지는 15~20리쯤 되었으며, 걸어다녔다. 제보자는 특별히 장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팔 물건은 없었고 제사 치내기 위한 제물 구입('제사 흥정')을 위해 찾았을 뿐이라고 한다. 서울에 살 때는 송파장 구경을 온 적이 있었는데, 해방 후까지도 놀이터가 있었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시루를 뜯 다음 성주(마부)와 터주(장독간), 조왕(부뚜막)에는 상을 놓고 푸 쪽 올리며 '정수' 한 그릇과 술 한잔을 함께 올렸다. 절하는 것도 없이 상만 차렸다고 한다. 세 곳에 고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떡을 팔라 목판에 반쳐서 안방, 견년방, 장독, 우물, 팔, 대문 등 집안 구석구석에 놓아두었다. 외양

간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놓지 않았다.

가을고사 때는 첫 수확한 팔에서 한 말 정도를 미리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수확이 모두 끝나면 그 때 쟁은 팔과 섞어서 먹을 했다. 이는 문명 상단의 가을고사가 친신제(蒸新祭)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빅의 종류는 보통 시루떡 외에 수수시루떡을 하기도 했는데, 아래로부터 차례대로 쌀, 팔, 수수, 팔을 각각 한 쪽씩 쭈려서 떡을 뺐다. 아래 수수는 찰수수를 뺐고, 팔은 거피를 하지 않고 사용했다. 정월고사에는 수수가 없었고 대신 무를 저장해 놓은 시기여서 무시루떡이나 팔시루떡을 주로 했다. 이 때는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떡을 놓고 “그 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빙기도 했다. 가을고사를 지낸 떡은 마을 전체와 다 함께 나눠먹지만, 정월고사는 가까운 친척들끼리만 나눠먹는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특별한 제구나 제물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시루 제 떡을 올리는 시루떡, 청수, 막걸리 한 잔이 제물의 전부였고, 볶어를 올리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 떡은 자체 높은 양반가고서, 가정신앙에 있어서도 조상제사 외에는 달리 갖고 있는 신앙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집안의 각 신들을 모시는 관행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6) 기타

이 집에서는 등지 역시 중요한 명절의 하나로 젊는데, 등지는 드는 시기에 따라 팔죽을 쑤어 먹는 것이 달랐다. 등지는 그 드는 시기에 따라 예등지, 중등지, 노등지로 나뉜다. 예등지는 등지가 그 달의 초승에 드는 경우로, 좋지 않기 때문에 팔죽을 써먹지 않는다. 중등지는 보통 그 달 중순을 전후해 드는 것이며 팔죽 쑤는 것은 집안 사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등지는 등짓날 20일이 지난 후에 드는 등지로 이 때는 반드시 팔죽을 쑤어 먹어야 한다. 팔죽을 쑤어서 대문 밖에 뿌리고 집안에서는 기둥마다 조금씩 바르듯이 뿌린 후에 먹었다고 한다. 액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예전부터 해왔다.

한편,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을 해먹었는데, 팔이나 콩으로 소를 넣은 총면을 했다. 이 때는 식구의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팔을 펴서 달았다. 결국, 팔

의 양은 천재 가족의 나이를 더한 수만큼의 숟가락으로 떠는 분량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다. 산에서 솔잎을 따다가 밭에 팔고 쟁반을 옮겨놓은 다음 먹었는데, 수명찬수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식구 먹이니까”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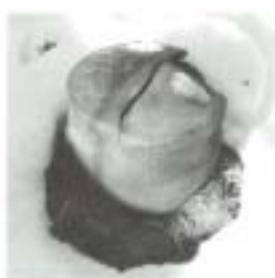
3. 고등동(등자리)

상당, 교회, 철 등 동네 만의 다양한 종교 턱에 가정신앙도 많이 축소되었다. ‘가을고사’도 매년 행하는 김은 대여섯 점 정도가 전부라고 한다.

1) 이영순씨 댁³⁸⁾

(1) 유래화 역사

김에서 하는 가정신앙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가을고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는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도 고사를 치내고 있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절에 가서 빈다. 칠월 칠식과 겨울에도 주로 절에 간다. 세보자는 더수이씨로 백현동에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직부터 치내고 있다고 했다.



▲이영순씨의 터주한마리
이영순씨댁 터주가 있는 뒤뜰▶



³⁸⁾ 조사일자 : 2000년 11월 27일, 2001년 1월 17일
체 보 자 : 이영순(여, 76세)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 집에 남아있는 신체는 뒤뜰에 있는 터주보서, 터주가리 등은 이미 사라졌고 때년 가을고사 때마다 위하는 자그마한 향아리가 뒤뜰에 있었다. 향아리는 빈 채 그대로였다.

(3) 제일 및 준비과정

원래 읍력 10월 30일에 보통 지내지만, 2000년에는 읍력 10월 중 돼지날(亥日)에 지냈다. 예전부터 돼지날이 좋다고 하였다. 제일을 앞두고는 3일 동안 세주(할머니)는 미련 음식을 주파하고, 모든 식구가 길치를 먹지 않는다.

(4) 제의 절차 및 내용

집안 마루에 백을 놓고 세 번 걸한 후 조왕, 터, 성주, 장광, 문 입구, 목간 등에 차례로 백을 놓으며, 예전에는 화장실은 지저분해서 놓지 않았다. 제물로는 사발에 술을 붓고 떡 서너 점씩 갖다 놓았다. 순서는 안방, 마루(성주), 뒤뜰(터주), 부엌, 마루입구, 장광 순이다. 예전에는 성주에 흰종이를 물었다. 뒤뜰의 터주에는 술을 주변에 붓고, 집안에서 지내고 난 뒤의 술은 유통한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풀시루막, 막걸리

2) 신성균씨 덕³⁹⁾(전승)

(1) 유래와 역사

제보자의 집에서 행하는 가정신앙은 가을고사 정도였다. 그 외에는 칠월칠석에 밀가루 부침을 해서 가을고사와 마찬가지로 집안 곳곳에 떡 놓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 예전에는 집 생일날(성주 올린 날)도 꼭 고사를 했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³⁹⁾ 조사일자 : 2000년 1월 17일
제 보 자 : 신성균(여, 75세, 고등동 166번지)



돌차트 산성군체 대 전경

세보자의 집에서는 특별한 신체는 없었다.

(3) 제일 및 준비과정

손 없는 날로 끌라 주로 폐지날 또는 말날 자년다. 10월 9일·10일, 19일·20일, 그믐 중에서 택일한다. 제일 며칠 전에 복유하고 비린 것은 먹지 않는다.

(4) 제의 절차 및 내용

상위에 서루 세 놓고 가운데 둑어 한 마리, 막
겁리, 낸수를 각각 한 사
발씩 얹고 마루에 놓고
소원을 빌면서 수회 불공
을 드리듯 절한다. 먹을
쓴아시 부엌, 광독대, 대
문, 찬, 우물, 화장실에
떡 두 쪽과 술을 놓는다.
술은 그 자리에 버리고



산성군체 대 우물가

썩은 밤풀만큼 빠져 그 자리에 버리고 놓았던 맥과 나머지 맥을 합쳐서 가까운 이웃에 돌린다.

(5) 제의 도구와 재물

완시부리를 하는데 호박고지를 넣기도 한다. 막방아간에서 떡을 마련하고 과일 세 가지(사과, 배, 감)와 땅걸리, 냉수, 꽈이 한 마리를 준비한다.

4. 신촌동

토박이와 옛 풍습이 많이 사라져 현재는 서너 집 정도 가을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신촌동의 한 선봉씨에 따르면 지금부터 40~50년 전에 한 할머니가 치성을 드리던 바위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바위가 있던 자리에 갑을 지어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특별히 치성을 드리거나 신성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바위에 치성을 드리던 할머니는 마을 안에 임산부가 있으면 아들, 딸을 바래 절지하곤 했다. 아들이면 고추, 딸이면 목화를 임산부가 있는 집에 가져다 놓곤 했는데 거의 백발백중이었다고 한다.

1) 김미순씨 댁⁴⁰⁾(전승)

(1) 유태와 예사

제보자의 집에서는 팔농사를 짚고 있었고, 집안의 어른들은 이미 작고하시고 젊은 내외분과 아이들이 살고 있었지만 가을고사는 계속 지내고 있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지내던 것을 시어머니가 작고하신 후에도 그대로 빼년 지낸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제보자의 집에서는 특별한 신체는 없었지만 뒤뜰에 남아있는 예전에 사용

40) 조사일자 : 2001년 1월 17일
제 보 자 : 김미순(여, 36세, 신촌동 234번지)



▲ 김미순씨 약 우물
김미숙씨 약 오래된 은행나무와 우물가 ▶



하였던 우물과 오래된 은행나무는 고사 시에도 신성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음력 10월 27일경에 하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며, 10월 중 달력을 보고 손 없는 날로 정했다.

(4) 제의 절차 및 내용

집에서 준비해서 5관의 빨마다 놓고 화장실, 장독대에 놓았다가 마당에 뿐졌다. 절을 하거나 다른 치성행위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위절의 오래된 은행나무와 우물에도 치성을 드렸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판시루떡만 준비한다.

2) 임영설씨 댁⁴¹⁾(전승)

(1) 유래와 역사

남아있는 가정신령은 역시 가을 고사로 시어머니가 계시지만 주로 머느리인 설계순씨가 관장해서 치낸다고 했다. 집안에 100년 되었다는 갑나무가 있다. 말라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무라서 신성시하고 새 집 안마당에 잘 보존하고 있다. 예전 집을 헐고 2000년 7월 현대식으로 새 집을 중수했지만 예



임영설씨 댁 민자령마

전에 사용하던 연자방아와 오래된 갑나무는 다차지 않도록 봤고 집을 중수한 후 고사를 지냈다. 제보자는 집안에서도 오래된 것들이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제보자의 집에서는 특별한 신체는 없었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매년 10월 말날로 해마다 같은 날 치낸다.

(4) 제의 절차 및 내용

문 앞, 안방, 뒤편, 화장실, 부엌과 지하수 물줄기 등 집안 곳곳에 각각 쟁반에 빅 몇 개와 물을 놓고 차성을 드린다. 빅을 놓고 “고시래” 하면서 빅을 조금 빼어 마당에 뿌리고 물을 바린다. 2000년에는 살던 집을 새로 지어서 스님을 모셔다가 빅과 볶어를 놓고 상관(上欄)고사를 드렸다. 집안에 살량식 때 쓴 명주실로 묶은 볶이와 코뚜레가 걸려 있었다. 명주실은 명줄, 코뚜레는 예

41) 조사일자 : 2001년 1월 17일

제보자 : 설계순(여, 51세, 양영설씨의 부인, 석촌동 220번지)

뜰의 의미라고 한다.



음영설씨 채 상량고서 복어



음영설씨 채 상량고서시 부엌의 코두해

(5) 채의 도구와 재물

완시루찌를 집에서 준비하고 물을 놓는다. 시세(時祭) 때는 묵어와 막걸리도 놓는다.

5. 삼곡동

경로당의 여러 할머니들에 따르면 가을고사는 혜전엔 가을 추수 후에 날짜와 상관없이 손 없는 남 으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를 짓는 경이 거의 없고 젊은이들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할머니들도 고사를 지내는 집이 드물다고 했다.

100호가 넘는 큰 마을인데도 가을고사를 지낸다고 알려진 집은 열 집 정도였다.

1) 안병만씨 덕례(전승)

(1) 유래와 역사

42) 조사일자 : 2001년 1월 17일
체 보 자 : 안병만(남, 34세, 삼곡동 302-1, 순흥안씨 근집)
임상분(여, 40세, 순흥안씨 작은집)

제보자 순홍안씨 댁의 복이한 젊은 집의 상량식을 치른 날짜를 매년 지켜 ‘김생일’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가을고사도 지낸다. 그러나 주인이 30, 40대의 젊은 대외분들이라 가을고사의 유래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큰집인 안병만씨댁은 ‘김생일’(정월달)과 가을고사를 모두 지내고 있고, 작은 집인 임상분씨 댁은 가을고사는 큰댁에서 지내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김생일’(6월)만은 속 생기 지낸다고 했다. 그렇지 않은 때는 끔이 좋지 않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해와서 해마다 지내게 되었다고 했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제보자의 집에서는 오래 전부터 원숭해 온 터주가 보존되어 있으나 외부인들에게 보여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터주의 형태는 사발모양의 그릇으로, 매년 새 쌀을 넣어두었다가 고사를 지내면서 새로 바꾼다고 했다. 이 터주를 모시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오래 전 순홍안씨 집 머느리가 날이 어두운데 차관이 없는 보살님을 짐에 제웠다. 이 머느리는 차손이 없어 평소 늘 두레반상에 들러앉을 수 있음 만큼 차손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었는데, 보살이 자고 간 후 일도 잘 풀리고 차손이 늘었다. 지금도 일가 형제가 8남매로 여전히 번창한다고 제보자가 전했다. 그 이후로는 그릇에 밭을 담아 터주로 삼고 ‘할머니시루’를 띄서 가을고사 때마다 치성을 드리는데, “보살님이 계속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했다. 매년 쌀을 새로 갈아서 놓고 고사지낼 때 묵은 밥로는 밥을 해서 먹었다. 매년 가을고사 때 밭을 갈아엎은 다음에는 1년 동안 열지 않는데, 절안에 우환이 든 해는 밥이 썩어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소작 주 토지에서 거둔 밭을 넣는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날을 잡는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손 없는 날이어야 하고, 둘째, 돼지날에 해야 부자가 된다고 했다. 세째는 쥐날(子日)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개 제의 날짜는 음력 10월 중 아래나 초사흘 중에 잡는다고 했다.

(4) 제의 절차 및 내용

준비한 떡을 시루 페 바루에 놓고 그 위에 청한수를 올려놓고 치성을 드린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물을 올리는 장소는 같다. 곳간, 찰독, 우물(샘), 부엌에만 놓는다. 한 10분 정도 그곳에 놓아두었다가 나누어 먹는다. 제물의 일부를 마당에 던지거나 하는 특별한 행위는 하지 않고, 다만, 마음 속으로 소망을 열원한다고 했다. 특히 '할머니시루'는 상을 받쳐서 터주 앞에 놓고 위에 절한 수를 떠놓는다. 터주의 신체는 가을에 새로 농사를 지은 과식을 피놓은 것으로 그냥 일반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다.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음)

(5) 제의 도구와 제물

'김생일'이나 가을고사 모두 제물은 같았다. 맑은 물(집의 지하수)과 팔시루 떡을 준비하는데, 떡은 "집안에서 냄새를 풍겨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료 준비는 집에서 하고 고등동의 방앗간에서 떡을 해왔다. 특이한 것은 떡을 준비할 때 시루떡의 맨 위에 창호자를 끊고 그 위에 팔은 빼고 팔가루만 넣어서 하얀 빅설기름 같이 준비하는데, 이것을 '할머니시루'라고 했다. 이 '할머니시루'는 만세 집안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터주에만 특별히 올린다.

6. 삼적동(옛골)

청계산 자락에 있는 삼적2동은 '옛골'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약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매우 큰 마을로 오래 전부터 마을제사인 '산제'를 지내오고 있다. 청계산 등산로의 입구이다 보니 서울, 청남 등지와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편이 좋다. 또한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을 맞는 음식점들이 마을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의 많은 집들은 계량되어 옛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토박이들이 사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옛집들을 다소 찾아볼 수 있다.

이 마을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것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예전에는 많이 행했다는 '가을고사'를 동네에서 찾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특히, 김

안에서 터주를 모시고 있던 집이 많았다는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찾을 수 없었다. 즉, 신체는 모두 사라져 버렸으며, 그나마 가을고사문지내고 있는 집들도 극소수로 제한되고 있었다.

2) 최승희씨 댁⁴³⁾(전승)

(1) 유래와 역사

가신 제의의 명칭은 '상달고사'라고 한다. 이 명칭은 가신제(家神祭)를 지내는 시기인 음력 10월이 '상달'이라고 불리는 대서 기원한 것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칭해왔다고 한다. 최승희씨는 원래 의정부가 고향으로 이곳에 시침오면서부터 살게 되었다. 시침을 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떠난 '상달고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옆에서 보조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몇 년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지내고 있다.

따라서 고사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옛날부터 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내지 않을 수 없고, 어른들이 하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은 '상달고사' 외에 다른 날이나 명절 때에는 가신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현재의 최승희씨 집은 몇 년 전에 개조한 것이다. 이 집은 경기도의 일반적인 유형인 「자(字)」집으로 건넌방과 마루 앞 마당 일부를 마루로 넓히고, 안방과 부엌, 사랑방 앞으로도 마루를 넓혀 난방을 하여 각 실이 내부에서 연결되도록 개조하였다. 화장실 역시 내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사랑방 밑으로 배치했으며, 광동대는 안채와 바깥채(가게)를 잇는 육살에 놓여 있다.

현재는 마루와 광동대, 대문, 부엌, 화장실, 가게, 자동차 등에 고사를 지낸다.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광동대 옆에 터주가리를 세워서 터주의 신체가 있었으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 외에 마루에 모시는 성주신이나 대문의 문신, 부엌의 조왕 등 나머지 가신(家神)

⁴³⁾ 조사일자 : 2001년 1월 27일
제 보자 : 최승희(여, 45세)

들도 신체가 없는 전궁으로 모시고 있다. 신들을 모시는 장소를 보면 신의 좌우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성주는 마루의 대들보 아래에 모시며, 부엌의 조왕신은 예전에는 부뚜막 위에 모셨으나 지금은 싱크대 위에 모신다고 한다.

특히, 마을에서 '담배가게 집'으로 불리는 이 막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가게에서 고사를 지내며, 같은 날 자동차 앞에서도 고사를 지내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집안의 생업이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가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를 지내는 날은 우선 마을제사인 '산제'를 지내고 나서 절한다. 주로 읍력 10월초에 행해지는 마을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읍력 10월 10일 안에 깨끗한 날을 가려서 정한다고 하는데, 주로 째하는 날이 호랑이날(寅日)과 소날(丑日)이라고 한다. 만약, 마을에 상(喪)을 당한 집이 있거나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고사를 치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산제'를 지내고 빠른 시일 안에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고사날이 정해지면, 집안 사람들은 상가 점에 가지 않고, 개고기 등을 먹지 않으며, 가능한 한 외부의 출입을 삼가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부절을 타지 않도록 근신한다.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어머니가 차낼 때는 주로 바쁜 때를 지나서 오후에 많이 지냈는데, 지금은 바쁘지 않으면, 오전이나 오후를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특히, 고사 지내는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는데, 이때 품가검을 조심스럽게 한다.

제물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세상을 차리면 이것을 마루의 성주와 창독간의 터주에 놓고 고사를 지내며, 다음으로는 대문, 부엌, 화장실, 가게, 자동차 앞 등의 순서로 "놓고 싶은 데다 놓고" 기원을 한다. 처음으로 올리는 성주와 터주에는 시루 제 편 떡과 술, 물('혹수'라고 함)을 놓은 제대로 차린 고사상을 놓는데, 같은 시루를 그대로 옮겨 고사를 지내지만 술과 물은 바꾸어 옮긴다. 예전에는 각각의 신에 대해 따로 시루를 뺐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뺀 모습

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문 등 다른 곳에는 침시에 자른 떡 조각을 몇 개 담아 갖다둔다.

성주에 고사를 지낼 때는 제상을 놓고 속으로 기원하며 비손을 한 뒤 절을 한 번 올리며, 다른 곳에서는 떡을 놓고 비손하며 반 절을 한다. 이때 기원하는 내용은 '침안이 두루두루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다. 같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기원하면서 정성을 들인다고 한다. 고사가 끝나면 이웃 사람들에게 시루떡을 나누어준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고사를 지낼 때 주요 제물은 팔시루떡과 물, 술, 셰 가자이다. 시루떡은 그 해 거둔 맵쌀과 꽈리를 이용하며, 술은 마침례를 사용하고, '옥수(玉水)'라고 하여 깨끗한 물을 옮린다. 상 위에 떡 시루를 올리고, 그 위에 물과 술을 밟 주발에 담아서 옮린다.

최승희씨는 마을의 다른 집에서는 빼지고기도 옮리고 하지만, 자기 집에서는 떡만 옮려놓고 지낸다고 하였다. 고사를 지낼 때 사루떡을 찍기 위해서는 쌀 한 팔 정도를 쓰는데, 고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과 한 조각씩 나누어 먹어보니 모자란다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는 고사상과 시루, 밥 주발 등인데, 이를 도구는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에 쓰던 그릇을 사용한다.

7. 시흥동(모랫말)

시흥동의 대표적인 자연마을인 '모랫말'은 다른 마을과는 달리 가구(家口)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시흥동 동사무소가 있는 이 마을은 분당과 연결된 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분당이 발달하면서 마을에 공장과 각종 시설이 형성되어 규모가 커지고 있다. 10여 년 전에 60가구이던 것이 현재는 1백여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도 많아졌는데, 새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갈등, 주민들 간의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마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그 동안 지내오던 '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산제가 사라진 이후로도 몇몇 집에서는 가을고사를 지

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에는 그 전승이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 즉, 개발과 새로운 종교의 유입으로 인해 민간신앙이 단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 김영례씨 막44(단절)

(1) 유래와 역사

‘상단고사’ 혹은 ‘가을고사’라고도 하며, 1년에 한 번만 지낸다고 한다. 제보자인 김영례씨는 읍해로 82세인데, 이 마을에 시집온 후로 1999년까지는 계속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해 2000년부터는 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함께 살던 아들 대외가 문당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 김영례씨 혼자 살고 있으므로, 먼거리워서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 댁에서 가장 크게 모셨던 신은 마루(‘말례’라고 함)의 ‘성주’와 장독간의 ‘터주’다. 성주는 그대로 ‘성주’라고 칭하며, ‘터줏대감’, ‘조왕’ 등과 명칭을 사용했다. 마루와 장독간 외에도 부엌(조왕), 대문간, 우물 등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댁은 특히, 우물이 있어서 이곳에도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대부분은 특별한 신체가 없는 건궁 형태였지만, 성주와 터줏대감만 신체가 있었다고 한다. 성주는 작은 단지에 비를 넣은 것으로, 그 해 가을에 추수한 비를 고사 지내는 날 새로 갈아서 넣었으며, 터줏대감 역시 비를 넣은 작은 항아리 위에 절가리를 써운 형태라고 하였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음력 10월 살단에 지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남자들이 날을 잡아서 고사날을 정한다. 부정이 있는 깨끗한 날로 잡는데, 마을에 날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의례일이 정해져도 당일 이전에는 빙다른 금기가 없었고, 고사 지내는 날만 깨끗하게, 근신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한다.

44) 조사일시 : 2001년 1월 27일
제 보 자 : 김영례(여, 82세)

(4)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는 주부인 김영래씨 혼자서 지냈다. 며느리가 있었지만 단지 옆에서 설부름만 하였고, 제의를 올리는 것은 김영래씨가 주로 했다. 다른 김가는 달리 예전처럼 규모를 크게 했다고 하는데, 성주와 터주에 놓을 시루를 각각 만들어 두 개의 시루를 썼으며, 이 중에서 터주에 놓는 시루가 작은 것이라고 한다.

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우선 제상을 차려 고사를 지내는 곳에 놓고 비손을 하는 것이 전부로,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이 순서는 성주와 터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외 장소인 부엌, 문간, 우물 등에는 성주에 올렸던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서 잠시에 담아 해당 장소에 놓는 것으로 족했다.

집안에서의 고사 절차가 모두 끝나면 마음의 이웃들에 떡을 나누어준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그 해 새로 치은 밭로 팔시부떡을 빼서 제물로 올린다. 팔을 살고 팔을 빼아서 쪄끼이 팔 고물을 놓아 시루떡을 찌는데, 보통 팔 2말씩은 했다고 한다. 다른 김들에 비해 많은 양인데, 그 이유는 시루가 2개인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마을이 크기 때문에 고사를 마친 다음 이웃들과 모두 나누어 먹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물로는 팔시부떡과 막걸리 술, 만약 술이 없으면 옥수(玉水)라고 하여 물을 떠 놓는다고 한다. 술 위에 팔시부떡을 놓고 그 위에 술을 놓는다. 마음의 다른 집에서는 볶어를 놓는 곳도 있지만, 이 떡에서는 간단하게 떡과 술만 올렸다고 한다.

제의에 사용하는 도구는 대부분이 집안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술은 사발이나 주발에 부어 놓는다.

2) 김동화씨 대46)(단절)

(1) 유래와 역사

김동화씨가 원래 살던 곳은 경기도 이천이다. 이곳 시흥동으로 이사온 지는

46) 조사일시 : 2001년 1월 27일
제 보 자 : 김동화(여, 60세)

15년 정도 되었는데, 이곳에 정착하면서 집안에서 가신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농사를 짓던 곳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라 시길 온 이후로 꾸준히 해왔는데, 타자로 이사를 오면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신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이천은 김동화씨가 태어난 곳이자 시마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빼놓지 않고 가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김동화씨의 경우는 성남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가신제라기 보다는 경기도 이천의 가신제라고 해야 적당할 것이다.

김동화씨 댁은 음력으로 정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정월에 지내는 것은 '일년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이며, 10월에는 '일년 농사 지은 것으로 집안이 평안하도록 해주심사'는 내용으로 기원을 하는데, 시기만 다를 뿐 지내는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한다. 특히, 10월에 지내는 고사는 '상달고사'라고 하는데, 이때 무당을 불러 고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특별히 '안백(安百)고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신체가 놓이는 위치는 안방과 마루, 장독대, 부엌, 우물 등이었는데, 장독대(장광)의 터주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체가 없는 건궁의 형태였다고 한다. 터주가리는 안에 벼를 단은 작은 항아리가 놓이고, 그 위에 절가리를 얹은 형태인데, 그 안에 담는 벼는 해마다 그 해에 난 새 것으로 같아지는다고 한다. 고사를 지내는 날 터주가리와 벼를 같아놓고 나면, 깨낸 벼를 철구에 펼어 밤을 짓는다. 지은 밤 중 한 그릇은 장독대의 터주가리 앞에 놓아 터주에게 대접하고, 나머지는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가신의 명칭은 만방에서 모시는 신은 '조상신'이며, 다음으로 마루에는 '성주', 장독대에는 '터주', 부엌에는 '조왕', 우물에는 '용왕신'으로 불리운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고사를 지내는 날은 그 집안 대주의 생기복덕을 가려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상달고사의 경우에는 말날(午日)에 했는데, 같은 말날이라도 투오일(戊午日)이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이 날 한다고 한다. 김동화씨는 직접 날을 볼 줄 알아서 제일을 스스로 정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무오일이 가장 좋다고 한다.

제일이 정해지면 삼가집에 가지 않는 정도로 근신하며, 머느리가 있더라도 고사는 깊동화씨 혼자서 모두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는 낮에는 지내지 않는다고 하여, 당일 해가 진 다음에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안발-마루-터-창독대-부엌-우물 순으로 진행한다.

안방에는 조상신을 위한 상('조상상')을 차리는데, 상 위에 시루째 떡을 놓고 오른쪽 서루 복지에 통북어를 끓은 다음, 서루 위에 막걸리 한 사발과 물 한 사발을 놓는다. 안방 한 가운데에 조상상을 차려 놓고 비단을 하며 절을 한다. 다음으로 바무로 나와 성주신께 고사를 지내고 창독대 옆의 터주에도 고사를 지내는데, 조상상과 마찬가지로 차리며, 단지 술과 물만 새 것으로 바꾼다. 시루째 떡을 놓는 이 세 곳에는 예전에는 각기 따로 세 시루를 뺐지만 최근에는 큰 시루 하나만 빼서 그것을 가지고 세 곳에 둘러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다음으로 창독대와 부엌, 우물에는 시루떡을 뜯어서 조금씩 떼어 놓는 것으로 대신했다.

집안에서의 고사가 끝나면 떡을 나누어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5) 제의 도구와 재물

고사상에 오르는 재물은 시루떡과 막걸리 한 사발, 물 한 사발, 통북어이다. 시루떡을 하려면 쌀 한 말은 적고, 적어도 3~4말郓은 빼야 마을 사람들아 고루 나눠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사 지내는 그릇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깨끗한 그릇으로 대주가 사용하는 것이나 대주가 없으면 아들의 그릇을 이용하기도 한다.

8. 사승동

소규모의 자연마을 6개가 모여 만들어진 사승동은 사총1동(별말, 농마, 사촌, 동판)과 사총2동(샘골, 송현마을)으로 나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

통편이 불편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마을의 집들은 비교적 개량이 덜 되었고, 특히 사송1동은 두 마을이 함께 '산체'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문당 선도시를 길 하나 사이로 두고 있는 사송2동 마을에서는 마을체사는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다.

집에서 지내는 가을고사 역시 산체를 지내는 상황과 비슷하여, 사송1동의 경우는 아직도 지내는 집들이 여럿 되었고, 사송2동은 토막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가면서 가을고사를 지내는 집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1) 송현마을 임민자씨 댁⁴⁶¹(전승)

(1) 유래와 역사

이 댁의 가신체 명칭은 '상달고사'라고 불린다. 일민자씨가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가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일민자씨는 옆에서 섬부름만 했다고 한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께서 예전부터 하시던 거라 고사를 지내지 않으면 걱정이 돼 계속 지낸다고 한다. 하지만, 터주가리도 없어지고 인줄 떠난 것도 사라지는 등 시어머니가 죽을 때 보다는 형식적으로 많이 간소해졌다고 한다.



임민자씨 댁 전경

⁴⁶¹ 조사일시 : 2001년 1월 29일
체 보 자 : 일민자(여, 62세)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고사를 지내는 곳은 마루와 장독대, 안방, 부엌, 장독간, 광, 외양간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집을 개조하여 예전에 외양간이 있던 자리가 방으로 바뀌면서 이곳에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안방에는 조상신을 위한 조상상을 따로 차리며, 마루에는 성주, 장독대에는 터주를 모신다. 터주의 신체로는 벼 담은 활아리 위를 짚주자리로 넓은 터주 가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를 없애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그 외의 곳은 모두 신체가 없는 전궁형태이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상단고사'는 음력 10월 달에 지내는데, 대개 보름날에 지내거나 혹은 다니는 절에서 손 없는 날을 받아서 지낸다. 고사날을 받으면 예전에는 대문 앞에 인줄을 매서 마을 사람들 중 상주나 '파부정'이 있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인줄이 걸려 있으면 스스로 출입을 금했다고 하는데, 다른 갑의 경우 몇몇 사람이 이를 잘 끌라서 들어간 경우도 있어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인줄은 매지 않고, 깊은 사람들은 끌라 깨끗하게 하고, 근신하면서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마루(성주)-장독대(터주)-안방(조상신)-부엌(조왕)-장독간-광의 순서로 지낸다. 성주와 터주에는 떡을 시루째 놓고, 볶어와 물을 놓고 제를 지낸다. 이때 성주와 터주에 지내는 고사상의 구성이 같기 때문에 시루와 볶어는 그대로 쓰고, 물이나 술만 바꾸어 놓는다. 성주에 고사를 지낼 때는 3~4번 정도 비손을 하면서 마음 속으로 '침안을 편안히 해달라'는 내용을 기원한다.

다음으로 안방에 놓는 조상상은 조금 특이하다. 고사상에 팔사루떡과 맑은 무국을 차리고 수치를 놓아 조상상을 차린다. 부엌과 장독간, 광에는 시루떡을 잘라 결시에 놓고 각각의 장소에 놓는다. 지금은 집을 개조하여 방으로 만든 자리에 예전에는 외양간이 있었다. 외양간은 매우 중요해서 여기에는 시루째 놓고 비손하며 고사를 지냈다.

집안에서의 고사가 끝나면 떡을 나누어 마을의 이웃 사람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5) 제와 도구와 재물

성주와 터주에 올리는 재물로는 판시투막이 시루 째 높이고, 통복어와 물(혹은 박걸리)이 쓰인다. 다른 곳과는 달리 복어를 시루독지에 끓거나 떡 위에 올리지 않고 시루와 나란히 상 위에 올려놓는다. 물이나 술은 사발에 따라서 시루 뒤에 올려놓는데, 이때는 어른들 사발 특히, 대주가 쓰는 사발을 사용한다.

이 대에서 특이한 것은 안방에 올리는 조상상의 차림이다. 다른 곳과는 달리 맑은 무국과 수지를 놓아 제사에서처럼 조상이 직접 드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벌말 박순명씨 댁 47)(단절)



벌말 박순명씨 댁 전경

47) 조사일시 : 2001년 1월 20일
제보자 : 박순명(여, 86세)

(1) 유래와 역사

이 택에서 지내는 가신제는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있다. 봄에는 음력 3월이 되어 꽃이 펼 때쯤이면 고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상단인 음력 10월에 지낸다. 가을에 지내는 고사는 '가을고사'라고 하며, 두 고사 모두 과정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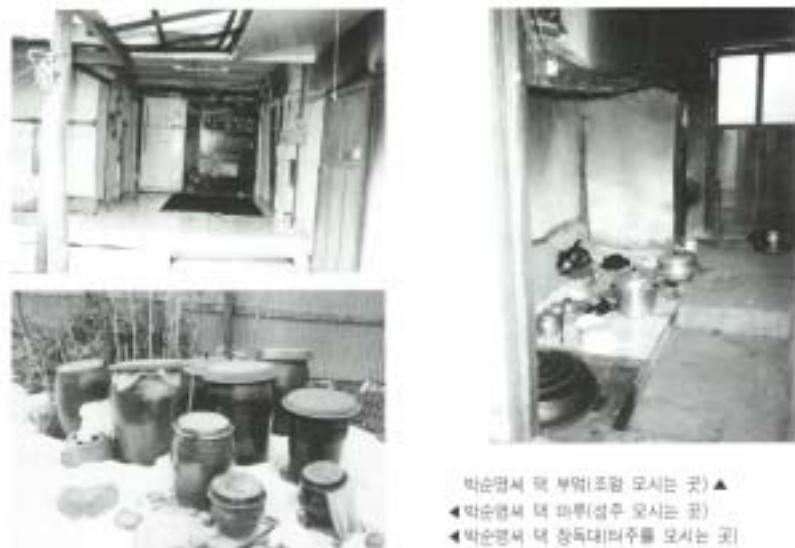
박순명씨는 모두 8남매를 두었지만, 모두 분가하여 살기 때문에 이 택에는 현재 근력이 다한 두 노인 내외가 집을 지키고 있다. 박순명씨는 철학적 인재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점점 근력이 없어져서 시집온 후 계속 지내왔던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성을 들여 기원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예전에 음력 겨울 초사춘날에 성주를 따로 모시는 집도 있었다고 하나, 이 택에서는 지내지 않았다. 마을 전체에는 15가구 정도의 토박이 주민들이 살았지만, 문당 신도시가 큰 길을 사이에 두고 개발되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토박이들이 나가면서 지금은 손에 끔을 정도로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고사를 지내는 곳은 안방과 마루(성주), 창독대 옆(터주), 부엌(조왕), 창독대, 대문간, 회양간 등이지만, 신(神)을 드러내는 신체로는 터주를 모신 '터주가리'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지고 없다. 가신(家神)을 칭하는 명칭은 성주와 터주, 조왕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 곳은 별다른 명칭으로 인식되는 가신이 없었다.

성주는 마루 기둥 아래에 고사상을 차리고 모시며, 안방에서는 방 한 가운데에 상을 차려지만 위하는 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터주는 창독대 옆의 복숭아나무 밑에 있었다. 조왕은 부뚜막 위에 빅을 차리며, 창독대에서는 창독의 향아리 뒷뜰에 빅을 갖다놓는다. 터주가리는 바깥주인인 이병규(93세)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었는데, 터주가리 만에는 빅을 담은 향아리를 넣어 두었다. 이 터주가리는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면서 다 없어졌다고 한다.



박순영씨 댁 부엌(조밥 모시는 곳)▲
◀박순영씨 댁 마루(설주 모시는 곳)
◀박순영씨 댁 창독대(터주를 모시는 곳)

(3) 제일 및 준비 과정

고사를 지내는 날은 10월 중순에 좋은 날을 가리서 하는데, 주로 7일이나 20일로 행한다. 고사를 지내는 날이 되면 옷도 새로 갈아입고 집안을 말끔히 치운다. 만약, 상가(賣家)에 잘 일이 생기거나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고사 지내는 것을 다음으로 미룬다고 한다. 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미느리가 있을 때에도 백순별찌 혼자서 전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밖에서는 혜년 터주가리를 새로 엮어주었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안방-마루(설주)-창독대 옆(터주)-부엌-창독대-외양간-대문간 순서로 고사를 지낸다. 안방에 먼저 지내고 다음으로 마루에 나와 설주에 고사 지내며, 뒤辙으로 가서 창독대 옆의 터주에 고사를 지낸다. 이 세 곳에는 떡을 시루에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이 외에 외양간에도 떡을 시루에 놓았다고 한다. 다만, 술을 새로 부은 다음 고사를 지낸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 부엌과 창독대, 대문간에서는 시루떡을 끌라 쟁반에 놓고 각각의 장소에 둔 다음 비준하면서

절을 한다.

일단 상을 차려 놓은 다음 비손하면서 절을 하는 식으로 고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기원하는 것은 '질안 무고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집안에서의 고사가 모두 끝나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 시무떡을 함께 먹거나 짐짓마다 나누어 주기도 한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고사상에 올리는 제물은 팔시부먹과 술(막걸리) 한 대접으로, 매우 간소하다. 팔시부먹을 만들기 위해서 쌀은 3~4만 정도로 준비했는데, 그 해 거둔 햅쌀로 팔시부먹을 만드는데, 고사가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많은 양을 준비했다고 한다.

고사에 사용하는 상과 시루, 그릇은 바로 마련하지 않고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것을 사용하며, 특히 술을 담는 그릇은 질안의 대주인 바깥주인의 주발을 사용했다고 한다.

증원구의 가정신앙

• 도촌동

• 갈현동



III. 증원구의 가정신앙

1. 도촌동

1) 청장훈씨 댁⁴⁸⁾(단절)

(1) 유래와 역사

아직도 집 뒤뜰에 예전에 쓰던 나무 절구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청장훈씨 댁은 지금은 가을고사를 경기적으로 지내지 않지만, 과거에는 직접 마을 사람들의 고사일을 책임져 주었던 분이었다.

고사를 잘 지내지 않게 된 이유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주택을 개량하면서 대부분의 터주가 다 사라지는 등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자신도 고등 교육을 받게 되면서 “시대가 변천되어 가는데 굳이 옛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가을고사는 지내지 않고 있어도 여전히 터주의 신체는 모시고 있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터주를 집 뒤뜰에 모시고 있는데, 그 모습은 일반적인 터주가리와 다른 바가 없다. 보통 2월에 터주가리를 한 번씩 갈아주는데, 원래는 이것도 날을 봐서 손없는 날로 갈아야 한다. 예전에는 터주가리 안 단지에다가 벼를 넣어 놓았지만, 지금은 그 대신 통장을 하나씩 넣어놓는다고 하셨다.

예전에 벼를 넣어 놓았던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장독대가 종자를 보호하기 좋은 이유는 우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하는데, 장독대는 물 위에 올려놓게 되므로 땅의 습기로부터 일단 보호된다. 벗꽃으로 터주를 만들어 써워 놓기 때문에 비나 눈으로부터도 지켜질 수 있다. 앞으로 집을 새로 지을 예정인데, 그렇더라도 터주는 그대로 지킬 생각이라고 된다.

예전에는 삼신할머니도 모셨는데 쌀을 깨끗한 찰호지에 싸서 매달아 놓았

⁴⁸⁾ 조사일시 : 2001년 1월 21일
제 보자 : 청장훈씨(남, 62세)

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결혼준비 대 실신주머니



결혼준비 대 터주가리

(3) 제일 및 준비 과정

정장훈씨가 고사 지낼 때 했던 가장 큰 역할은 태일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각자 집에서 폐지날(亥日), 말날(午日), 소날(丑日) 중에서 적당한 날을 골라 태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마음에서 글을 볼 줄 아는 분한테 물어서 조심스럽게 고사일을 정했다고 한다.

고사일을 잡으려면 손 쇠구의 사주(四柱)를 다 알아야 하는데, 오행법(五行法)에 바탕을 두고 생기복덕을 따져서 가족 모두가 화(禍)를 면할 수 있는 날로 잘 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구들 모두에게 좋은 날을 얻기 어려울 때는 가장을 우선 순위로 해서 선택하게 된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그 날의 보행 일진을 봐서 의출해도 좋은 날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따졌지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태일을 하려면 원력(月曆)이 있어야 하고, 쇠구들의 사주를 보려면 천세력(千歲歷)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모란시장 등 계래시장에 내가 만 구할 수

았다고 한다. 지금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짹들을 다 없애버린 상태인데, 가끔씩 동네 사람들이 자녀들의 혼인일(婚姻日)이나 손주들의 사주를 물어볼 때는 짹을 다 없애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하였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본래 고사는 1년에 2번을 지내게 되는데, 청원에는 그 해 운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10월에는 농사짓고 나서 지내는 것이다. 지금은 잘 지내지 않지만, 과거에 행했던 방식은 여전히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간'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다.

고사는 '안시무'를 대청마루 북관에 놓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 외에도 집안 곳곳에 놓고 일일이 고사를 지낸다. 떡을 곳곳마다 따로 놓는 이유는, 집안에 머무는 신이 많은데 모든 신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놓는 것이라 한다. 마루에서 고사를 지낸 다음에는 부엌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그 다음 터주, 화장실, 대문 등의 순으로 떡을 가지다 놓는다. 떡은 그 자리에 잠시 놓아두었다가 곧 회수하여 다시 모은 다음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과거에는 시루를 여러 개 만들어 고사 지내는 곳마다 새 시루를 놓았다고 한다. 시루는 크게 불은설기(팔시루)와 백설기로 나뉜다. 요즘에는 술과 물을 함께 놓는 사람도 있고 술만 놓거나 물만 놓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은 백설기에는 맑은 물을, 팔시루에는 백설기와 맑은 물을, 성주에게 올리는 안시무는 팔시루로 박걸리와 함께 놓고, 터주에도 팔시루와 박걸리를 놓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대문에서는 '고시례'를 하듯이 떡을 조금 잘라 단정으로 쌓아 끓여 막는다고 한다.

2. 갈현동

1) 임인균씨 댁 49(전승)

(1) 유래와 역사

가을고사는 임인군씨의 아내인 박옥분씨가 하는데, 그 절차와 방식은 과거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한다고 한다. 지금은 정월고사는 하지 않고 가을고사만 한다. 임인군씨의 집에서는 과거에 굿을 많이 했다. 굿을 할 때는 떡을 모자에 꽂아 짐안의 천장 구석에 찾아두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정월고사를 지내기 위해 음력 정월 14일 대문에 금줄과 화로를 치고 우물에 경화수를 떠놓고 차설을 드렸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① 타주가리

과거에 장독대 옆에 타주가리가 있었는데, 1985년경 집을 새로 짓고 없앴다.

② 성주

대청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좌측기둥 위에 창호지를 접어 성주를 모셔 놓았다. 원래 성주의 신체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10년 전쯤 스님이 와서 고사를 지내줄 때 스님이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10여 년 전에는 가을고사를 할 때 인근의 절에 있는 스님을 모셔와서 했으나 지금은 박옥분씨가 혼자서 한다.

(3) 계일 및 준비 과정

고사는 음력 10월에 하는데, 고사날을 받을 때는 남한산성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에게 날짜를 받아온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낼 때는 먼저 마당에서 남한산을 향해 모신다. 여기에 올리는 제물은 '산시부'와 경화수이며, 술은 올리지 않는다. 소지종이나 촛불, 향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청마루에는 붉은설기와 술을 놓으며, 경화수는 올리지 않는다. 장독대에는 '터시무'를 올리며, 술을 함께 올리지만 경화수는 올리지 않는다. 제의 순서는 먼저 마당으로 가서 산신께 산 쪽을 보면서 절을 하고 비슷한

40) 조사일시 : 2001년 1월 21일
제 보 자 : 임인군씨(남, 63세), 박옥분씨(여, 50세)

뒤, 대청으로 와서 성주님께 절을 하고 비손한다. 다음으로 침 뒤에 있는 장독대로 가서 절을 하고 비손하며 바투로 와서 떡을 접시에 나누어 각 냥, 부엌등지에 하나씩 올려놓는다.

고사 후에는 이웃집에 떡을 나누어준다. 전에는 동네에 전부 나누어주었으나 지금은 가까운 이웃에만 나누어준다.

그밖에 백일, 둘, 환갑, 결혼식 등을 할 때도 고사 때와 동일하게 떡시루를 떠서 집안의 가신(家神)들에게 고사를 올린다고 한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과거에는 떡을 많이 했으나 요즘은 한 반발 정도만 한다. 떡을 할 때는 빵앗간에서 쌀을 쟁어와서 침에서 시루에 얹혀 편다.

2) 임원교씨 댁⁵⁰⁾(전승)

(1) 유래와 역사

마을에서도 굳 많이 하는 걸으로 알려진 임원교씨 댁에서는 지금도 머느리를 통해 가을고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사 당일, 마침 설날에 떡을 만두를 빙기 위해 임원교씨의 작은 어머니인 강신운(68세)씨가 와 계셔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집은 예전에는 정미소를 했었으며, 8남에 중 장남인 제보자의 침과 농사를 하는 누님댁에서는 여전히 가을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예전에는 '성주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시지 않고 있다. 항아리 안에 빵을 넣어 놓았다가 가을고사 지낼 때 쓴아서 뺐다고 한다. 그 외 터주를 세 곳에다가 모신 것이 특장인데, 서쪽인 안방 첫문 밖, 북쪽인 뒤틀, 동쪽인 장독대에 하나씩 놓았다고 한다. 터주가리는 약 3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삼신주마니도 안방 아랫목 벽에 매달아 놓았었는데, 흰 창호지를 고깔 모양으로 접어 그 안에 쌀을 종이로 싸서 매달아 놓는 형태였다.

50) 조사일시 : 2001년 1월 21일
제보자 : 김미숙씨(여, 42세)

(3) 제일 및 준비 과정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며느리인 김미숙씨가 가을고사를 이어서 행하고 있는데, 날짜는 '철학관'에 가서 파 온다고 한다. 전에는 만신이 날짜도 잡고 굿도 했으나 지금은 평소 친분이 있는 철학관을 이용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보통 김미숙씨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빼고 고사를 시작하는데, 때로는 남편이 같이 참여하여 고사드리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다. 고사를 지내는 순서는 제일 먼저 벽설기를 가지고 '산바쁘다'고 하여 산을 바라보며 비손하고, 그 다음에는 대청에 '안시부'를 놓고 간단히 접하고 비손하는데, 시어머니는 축원도 했었으나 현재 자신은 비손까지만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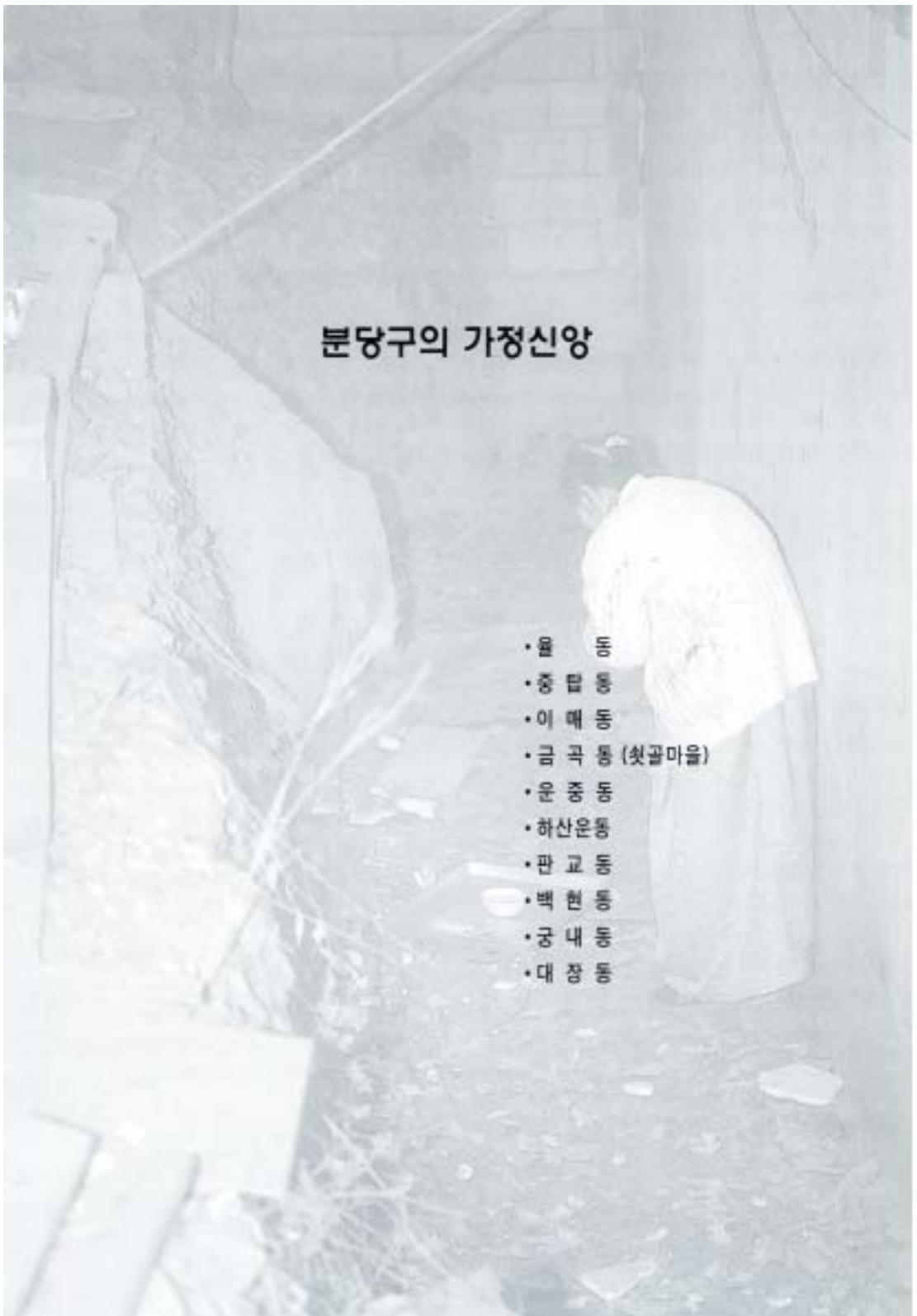
다음에는 터주가리를 놓았던 곳에 떡을 가져다 놓으며 그 다음에 각 방에 떡을 놓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부엌에도 놓았지만 지금은 부엌과 화장실은 놓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문에 떡을 갖다 놓은 후 다시 거둬서 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칙구들과 나눠먹는 것으로 고사는 마무리된다.

(5) 제의 도구와 재물

예전에는 퀵에서 떡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밤막간에서 한 시루만 찌운다. 불은 설기 위에 광호지를 한 장 깔고 백설기를 얹은 모양으로, 본래는 '설주시루', '산시루', '터주시루'는 따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뜻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상을 차릴 때는 폐자고기 짚은 것과 볶어, 그리고 술을 함께 놓는다. 이 대에서는 절화수를 쓰지 않고 막걸리를 쓰는데, 이에 따라 배설기에도 막걸리가 절들여진다.

예전에는 백일, 환갑, 결혼식 등이 있을 때는 따로 떡을 해서 미리 가신에게 고사를 지냈는데, 그 때는 떡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해서 '시루밀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썼다.



분당구의 가정신앙

- 월야리
- 중립동
- 이매동
- 금곡동 (쇳골마을)
- 을진동
- 하산운동
- 판교동
- 백현동
- 궁내동
- 대장동

IV. 분당구의 가정신앙

1. 율동

율동은 '서근배기' 또는 '서근바미'로 통하면 유명한 밤의 행산지였다. 조선조 이래로 청주한씨의 집단 세거지였다. 북쪽에는 매지봉과 '새마을 연수원'이 위치해 있으며 남쪽에는 분당자수지가 있다. 현재 주거지는 중간밭과 양지밭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이 곳은 풍주군과 인접해 있는 곳이며 인근의 서현동과 이매동의 아파트촌에서 볼 수 없는 풍광이 있다. 경치가 수려하고 공기가 맑아서 분당구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도로변에는 수많은 음식점과 레스토랑들이 입주해 있으며 원주민들도 이러한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새마을 연수원'이 들어선 뒤로 마을이 많이 변하여 현재는 구옥(舊屋)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보자 원오남씨

1) 원오남씨 역51(단절)

(1) 유래와 역사

원오남씨는 성님의 충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15세에 율동마을로 시집을 왔다. 천정 어머니와 함께 있던 15세까지 천정에서 가을고사를 지냈으며 시집을 온 뒤에도 시어머니가 빠지지 않고 가을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율동의 중간밭로 이사를 옮긴 뒤 5년간은 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집안에 차고를 만들면서 교회를 다니는 가족원의 반대도 있는 터라 티주가리를 없애고 가을고사도 지내지 않게 되었다.⁵¹⁾

51)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보자 : 원오남씨(여, 74세)

52) 가을고사의 단절이 그럴듯이, 가신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이유는 종교·신앙적인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가신(家神)의 신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터주카리를 들 수 있다. 터주카리는 보통 뒷마당과 장광 절에 있었다. 짚을 엮어서 주저리를 만들어 오지창아리를 써워두었다. 항아리 안에는 벼를 담아 두었으며 해마다 농사를 짓고 나서 둑은 벼를 깨내고 헛벼를 담았다. 모리를 수확하는 집에서는 벼를 깨내고 모리를 담아두었다. 항아리에 담겨있던 옛 곡식은 고사백과 밤을 지을 때 사용하였다. 터주카리의 절은 밀년에 한 번씩 갈아주었으며, 지난 터주카리는 빙거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집안의 신들에게 올리는 사주를 '농사사주'라고 일컫는다. 경월 대보름의 고사는 경월 열나흗날에 치내며, 오곡밥을 각 신들에게 올렸다. 고사를 치내는 날 '기주'(제관)는 목욕하고 근신하였다. 황토를 펴다가 대문 밖에 뿌려놓고 청수를 떠다놓기도 하였다. 또한 원색끼를 꼬아서 청솔가지를 끊어 인줄을 만들었다. 인줄을 걸어놓으면 부정한 사람, 즉 상(喪) 당한 이, 달거리 하는 여성,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마을에 상(喪)을 당하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다른 날을 잡아서 가을고사를 지냈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원오남색은 먼저 터주에다가 시루떡을 놓았다. 다음은 대청마루에 성주를 모셨다. 간혹 구록(荀脣)에는 상량일시(上樑日時)를 적은 상량문이 보(櫺)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집에서는 성주고사를 이 보를 향해 올린다. 예전에는 상량을 올릴 때도 고사를 지냈다고 하며, 지금도 상량할 때 고사백을 해서 들리는 절도 있다. 그리고 떡을 조금씩 잘라서 외양간, 건넌방, 우물, 아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종교·신앙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원 중에 기독교 신자가 생겨나 기존의 가신신앙을 미신이라 반대하는 경우이다. 물질적인 측면은 주택의 개조·보수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옥 세설들이 파괴되면서 신들의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경우이다. 가신신앙은 대개 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집안의 곳곳에 정주한 적늘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가옥의 개조와 신축은 가신 신체(神體)의 소멸로 연결되고 이것은 신앙 회조의 중요한 원인이다.

햇방 등 집안의 모든 곳에다 벽을 갖다 놓았다.

제의 형식은 간단하다. 제물을 올린 뒤에 비손을 하며 절을 하고 기원을 드렸다. 기원은 본인이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을 읊어내린다. 가을고사가 끝난 뒤에는 시루떡을 잘라 동네의 이웃들에게 들렸다.

(5) 제의 도구와 제풀

제풀로는 시루떡과 북어, 막걸리를 준비하였다. 막걸리가 없을 때는 대신 '청수'(냉수)를 올리기도 하였다. 북어는 실타래로 감지 않고 그냥 시루의 양쪽에 꽂아두었다.

2) 황광숙씨 댁53l(전승)

(1) 유래와 역사

황광숙씨가 금곡동에서 울동마을의 의령남씨 집으로 시집을 왔을 때, 시어머니는 한 계시고 시아버지지만 있었다. 시아버지가 10월 상단이 되자 황광숙씨에게 가을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황광숙씨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바가 없었기에 친정 어머니가 하던 대로 가을고사를 지냈다. 40년 전까지는 철월 초사 춘날에도 고사를 올렸다. 그러나 집안 일에 끌기다보니 정월 초사 춘날 고사는 지내지 않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을고사만 꾸준히 지내게 되었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집안에 따라서 '삼불제적'을 모시는 사람은 신체를 안방에 두었다. '삼불제적'의 신체는 흰색 한지를 접어서 고깔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벽에다 걸어놓았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는 음력 10월에 좋은 날을 잡아서 지냈다. 10월 중에서도 말년이 가장 고사 지내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황광숙씨는 '10월 상단 무오일에 고

53l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황광숙씨(여, 65세, 울동습과 운영)

사를 지내면 굿한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생업에 쫓기다 보면 말날에 맞추어 고사를 지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을고사는 10월 삼달을 넘겨도 둘째 한예만 지내면 무방하다고 한다.

집에 가서 날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시를 정하지는 않았고 집 안에서 편한 시간에 맞추어 지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직접 친구를 빙어서 떡을 만들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때문에 거의가 저녁시간에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황광숙씨의 경우는 안방에 먼저 사루떡을 통째로 갖다 놓았다. 안방에서 고사를 마친 후에 거실마다 놓고 다음은 창광, 대문, 주방, 화장실, 외양간(과기)에 절시에 단은 떡을 조금씩 단아서 옮겼다. 개업할 때도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황광숙씨는 유통슈퍼를 개점할 즈음에 집에 있는 스님을 모셔서 개업고사를 지냈다. 스님은 '봉로걸' 근처의 '현우성사'에 계시는 분으로, 개업고사를 부탁하였더니 날(日)과 시(時)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당일 오후에 고사를 지냈으며, 몬내 주민들을 불러와서 떡과 고기와 술을 대접하였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제물을 잘 살만하는 집은 폐지머리를 살아서 올리기도 하였다. 특이한 점은 '삼불제식'에게는 반드시 백설기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불제식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시루떡 외에도 백설기를 따로 찌셔 준비해 두었다. 과거 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떡을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하루종일 떡을 찧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지금은 팔앗간에서 떡을 맞추면 집에까지 실어다주기 때문에 제물 준비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동시에 가을고사의 의미가 많이 쇠퇴하기도 하였다.

2. 중립동

중립동의 읍지말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옥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 지역은 선도시 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약 18채의 집들이 지금까지 남아있

게 된 것이다. 읍지말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가을고사를 빠지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고사를 지내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중탑동의 가신 제의는 분당지구가 개발되어 신도시가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전에는 떡을 몇 팔색이나 하고 둘레 주민들에게 광고루 돌렸으나 이후에는 제품의 양이 줄어들며 제의의 절차와 내용도 간소해지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중탑동에서도 가을고사가 대표적인 가신의례(家神儀禮)이다. 가을고사는 가내(家內)의 원신의례(舊新儀禮)라 할 수 있다. 즉, 가을것이가 끝나고 햇곡을 추수하여 가내의 신들에게 풍농을 감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지역에서도 대부분 농사가 생업의 중심이었으므로 풍농에 대한 희망과 기원이 절실했다. 대개의 주민들이 가을고사를 해마다 거르지 않고 올리는 사정은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하였다.

1) 김금자씨 역54(전승)

(1) 유래와 역사

김금자씨는 인근의 목련마을에서 살다가 11년 전 현재의 중탑동으로 이사를 왔다. 오래 동안 읍지말에서 탑동슈퍼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



제보자 김금자씨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김금자씨가 이사오기 전 목련마을에서도 터주 가리가 있었으며, 중탑동에 이사왔을 때도 전에 살던 사람이 모시던 터주가리가 있었다고 한다. 터주가리는 장독대 바로 옆에 있었으며 그 안에 항아리가 있어서 계속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항아리 안에 있는 비는 가을에 땅밭이 나면 세로 갈아주었다.

54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김금자씨(여, 58세, 탑동슈퍼 운영)

(3) 제일 및 준비 과정

김금자씨는 특별히 날을 받지 않고 가을고사를 10월 초사흘날에 지냈다. 김금자씨는 10월 초하루에서부터 초사흘날까지는 날을 잡지 않아도 지낼 수 있는 좋은 날이라고 믿고 있었다. 가을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박방앗간에서 떡이 도착하는 때에 맞추어 보니 저녁 시간에 지내게 되었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김금자씨의 집은 생업공간과 거주공간이 붙어있으므로, 떡을 놓는 의례공간도 일반 가정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전열대가 있는 가게 자리에 떡을 올려놓았다. 그런 뒤에 싱크대와 수돗가, 창광, 창고 등에 떡을 조금씩 갈라놓았다. 옮기는 대주가 사고를 달하는 일이 있어서 만방 아래뜰에만 떡을 옮겨놓고 고사를 끝냈다. 축원은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가업(家業)이 성사되고 집안의 무사대평을 기원하는 말을 올렸다.

(5) 제의 도구와 재물

제풀로는 떡파 막걸리, 포(脯)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시무떡을 음지말과 양지말 모두에 들려야 했기에 두 팔에서 세 팔까지 하였지만, 지금은 한 팔을 하거나 두서너 되로 줄이는 경이 많다. 잘 차린 적에는 데치머리와 상색과인을 놓고 지냈다. 곶감, 대추, 빨 등은 결질을 하지 않고 통째로 옮길 수도 있었다. 막걸리는 시무떡 위에 옮겨놓았다.

2) 이분녀씨 댁55)(전승)

(1) 유래와 역사

이분녀씨는 경주이씨이며 남편은 박씨이다. 음지말에 60여 년 전부터 살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집은 35년 전에 지은 것이다. 중간에 지붕을 개량하여 초가를 없앴지만 집의 구조는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5)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이분녀씨(여, 80세)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분녀씨 집에서도 터주가리를 모시고 있었다. 금급자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터주가리는 장독대 옆에 있었으며 새 곡식이 나면 전에 날어두었던 곡식을 같아놓았다. 구곡(舊穀)은 밥을 해서 다시 터주가리에 올리고 벌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난리통에 터주가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여성들이 고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들은 터주가리를 새로 단장하였다. 1년이 지난 짙은 하마지 험기 때문에 예전 것은 걷어내고 새로 젖을 엮어 입했다.



▲이분녀씨 댁 천장(상원)
미분녀씨 댁 섬주고사 창소▶

3) 제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는 10월 상달의 데자날(亥日)이나 말날(午日)에 치내거나 초순에 지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데자날, 말날은 혼이 없는 날이라 전해진다.

가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였다. 고사를 치내기 전에 미리 황도를 과다가 문의 양쪽에 뿌려놓았으며 솔가지를 뜯은 새끼줄을 걸어놓았다. 이는 초상이 난 사람, 아기 낳은 사람 등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경기의 표시였다고 한다. 시루떡을 준비할 때는 판을 짹면서도 간을 보지 않았는데, 혹시 부정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제의를 주관하는 '기주(薪主)'는 가네 여성들 중에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

가 맙아서 하였다. 머느리와 딸들은 시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장만하고 떡을 제의장소에 갖다주는 일 등을 맡아서 하였다.

이분녀씨의 집에서는 정월 대보름 고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 2월 초하룻날에 정초고사를 지냈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이분녀씨가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신은 '성주'와 '제식', '티왕티주', 세 신이었다. 먼저 마루의 '성주님' 앞에서 시루를 통째로 놓고 고사를 올렸다. 성주에게 비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어내렸다. "우리 박씨 대주 수명장수(壽命長壽)하게 해주시고 어진 귀인 만나서 꿈 살게 해주소서, 악인은 젖혀두고 귀인 만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불 밝히고 물 밝혀서 긴눈 환하게 해주소서."

다음은 안방의 '제식'에게 역시 떡시루를 통째로 올린다. '삼불제식'은 안방에 좌정(坐定)한 신안만큼 창신할머니와 동일시되었다. 이분녀씨는 창신할머니가 '삼불제식'과 같다고 믿었다.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삼일 날, 한 이례, 두 이례, 세 이례를 맞이하면 밥과 국을 먹여 머리맡에 놓고 산모의 다유(多乳)를 기원하였다. 이후에는 장독대⁵⁶⁾ 밤, 광 등에 떡을 조금씩 칼라서 올려놓는다.

이분녀씨의 집에서 특별한 가신(家神)은 우물을 주관하는 '용왕신'이라 할 수 있다. 집 앞에 수원(水園)이 좋은 우물이 있어서, 항상 깨끗한 물이 넘치도록 올라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 지금도 간이상수도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가을고사 때는 '용왕님'에게도 빠지지 않고 축원을 올리는데 '용왕님네, 박씨 가정에 맑은 물 많이 솟아나게 해주소서'하며 빌었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이분녀씨는 위하는 신격(神格)에 따라 막걸리와 정화수를 다르게 올린다고 하였다. '제식(삼신)'에게는 정화수를 올리고 성주와 티주에는 막걸리를 올렸다. 이러한 제물의 차이는 여신과 남신, 즉 신의 성별(性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⁵⁶⁾ 장독대(장정)의 신은 티주 혹은 티왕티주, 티주대감이라고 불렸다.

이월 초하룻날에도 고사를 지냈는데, 시루띠과 송편을 함께 올렸다. 떡에 쓰이는 쌀의 분량은 식구의 나이 수만큼을 숟가락으로 펴담고 그것을 빻아 떡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송편을 이분녀에게는 '나이떡'이라고 불렀다.

3. 이매동

이매동은 아담동처럼 아파트촌이 대기 들어선 지역이다. 하지만 '갓골' 쪽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과거의 주민들과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갓골', '불방아거리', '안발', 이 세 마을은 예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함께 동네를 지내고 있다.

1) 태안할머니 댁⁵⁷⁾(전승)

(1) 유래와 역사

태안할머니는 서울의 안국동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시어머니는 가을고사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이었으며, 시월 살단이면 빠지지 않고 가을고사를 치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을고사를 간소하게 치냈다. 태안할머니는 시어머니와 달리 다른 선들은 위하지 않고 오직 섬주와 터주에게만 제를 올린다고 하였다. 태안 할머니는 불심(佛心)이 매우 깊은 제보자였다. 그래서 무속(巫俗)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기타 가신을 모시는 것을 미신(迷信)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장령'(장독대) 옆에는 터주를 모신 터주가리가 있었다. 터주가리는 젖을 깨끗이 추려서 만들었는데, 젖의 살단은 삼부를 블듯이 묶여 놓았으며 가운데는 원새끼로 둘러놓았다. 고사를 올리는 날에는 한지를 이 새끼줄에다 꺼워놓았

57)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태안할머니(여, 77세, 일명 빛양 박시방네), 제보자가 살던 밭이기를 빼려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제보자를 부르는 호칭을 성명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 바울에서 터주가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1990년대 초엽에 대개 사라졌다. 태안할머니 댁도 꿩터에 공장을 세우고 부속식당을 만들면서 터주가리를 없애게 되었다. 그냥 없애면 '동티'로 날지 몰라서 스님을 모셔다가 치성을 하고 없앴다. 주저리는 태우고 향아리 안의 팔은 빼내서 고사 지내는 데 사용하였다.

터주가리 외에도 가신(家神)의 신체(神體)로는 '성주단지'와 '삼불제식' 등이 있었다. 성주단지는 대청의 시렁 위에 올려두었다. 가을고사를 지내면서 터주가리 속에 있는 향아리에 담겨진 벼를 갈듯이, 성주단지 안에 들어있는 쌀도 매년 가을고사를 맞아 짚어주곤 하였다. 그러나 대청마루의 시렁을 없애면서 성주단지도 없어지게 되었다.

태안할머니 댁에서 '삼불제식'의 신체는 다락에 두었다. 흰색 주발에 팔을 담아 놓고 그 위에 고깔을 씌워놓았다. 집안 어른들은 '삼불제식'을 조상신으로 여기고 있었다.⁵⁸⁾ 그러나 시아버지지는 태안할머니가 삼불제식 신체를 매우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없어버렸다. 삼불제식은 조상 대대로 모신 신이었으므로 스님을 세 번이나 불러서 '불도(佛道)'를 드린 후에 없앨 수 있었다.⁵⁹⁾

(3) 제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는 사월 독지날(亥日)에 많이 지냈다. 가을 수확이 남아서 바쁘다면 상달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늦어도 둘째달 초순 만에 지

58) 터를 잘못 다루거나 신의(神意)를 거슬러서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59) 태안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집안에서 '삼불제식'이 조상신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시집을 봤을 때 다락의 신체를 보고 무척 놀랐다. 하루는 꿈 속에서 삼불제식을 보게 되었다. 수염이 하얀 노인네였다. 꿈속에서 물을 길고 있는 데 물 한가운데 수염이 하얀 노인네가 있는 것이었다. 큼짝 놀라서 달아나다가 물통이를 깨버렸다. 뜨간은 꿈을 세 번이나 무고 나서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시아버지지는 삼불제식이 조상신이라고 말해주었다. 족보를 펼쳐 보면 뒤에 옛날 비슬을 하던 조상신을 다락에다 모셔두게 된 것이라고 유래를 설명해 주었다."

60) 태안할머니의 사례는 삼불제식과 조상신이 뒤섞인 경우와 생각된다. 다른 가정과 달리 할 딸은 흰색 주발을 신체로 사용하였으며 모시면 장소도 암방이 아니라 다락이었다. 그러나 고깔을 씌운 것은 일반 제식의 신체와 비슷하고, 명찰도 '삼불제식'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족보까지 들춰 보이면서 집안 내력을 설명하고 신체의 유래를 말해준 사실로 미루어 '조상단지'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냈다. 태안할머니 댁은 초이랫날 고사를 많이 올렸다. 그믐날, 9월, 10일에는 고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신들이 거동을 하지 않고 제물을 받아먹지 않는 날이므로 고사를 지내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준비는 제일 하루 전부터 하였다. 대문간에는 황토를 한 무더기씩 퍼서 뿌려놓았으며 시부막에 들어가는 쪽을 물에 불리는 일 등을 하였다.

정월에 지내는 고사에서는 침풀(占楓) 행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정월 열 나흘째, 아홉 가지 나물과 아홉 가지 밥을 해서 키로 받쳐다가 외양간의 구유 위에 올려두었다. 소가 나물을 먼저 먹으면 출년이 들고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⁶¹⁾ 고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은 정월 14일뿐만 아니라 삼월 삼짇날에도 고사를 올렸다.

(4) 계의 절차와 내용

태안할머니는 성주에 축원할 때 ‘집안에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대주 몬 건강하게 해주시고, 깁안 식구들 역시 몬 건강하게 해주소서’라고 빌었다. 성주에게 고사를 드린 후에는 떡을 썰어서 ‘장풀’(장독대), 대문간, 찰풀 등지에 막걸리와 함께 올려두었다. ‘장풀’의 터주대감에게는 “터주대감, 집안에 아무 연고 없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농사 잘되게 해달라”며 축원을 올렸다.

특별히 고사날이 아니더라도 늘 부뚜막과 ‘장광’에는 정한수를 떠다 놓았다. 아침이면 밥을 짓기 위해 물을 길었는데, 이 때 깨끗한 물을 떠서 부뚜막과 찰풀에 올려진 주발에다 담아놓고 기원한다. 부뚜막에 정파한 신은 조왕이고 장광의 주발은 ‘칠성’을 위한 것이다. 칠성은 자식 얻기를 기원하는 신었다. 태안할머니 댁도 5대 속자였던 걸으로서 손이 귀했다. 그래서 찰풀에는 ‘칠성’ 신을 위한 주발이 있었으며, 이곳에 꼭 물을 떠다 바쳤다고 하였다.

한편, 이매동에는 동네 ‘안산’⁶²⁾이라 불리는 곳에 수원이 밖고 풍부한 대동

61) 이 지역에서는 빼지지 않고 고사막을 외양간에 올려두었다. 제보자의 대다수가 빼짐없이 미래 장소로 외양간을 들었다. 그러나 다른 지방처럼 ‘군옹’과 같은 선객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소의 노동력은 농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민력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축력(畜力)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확을 감사하는 가을고사에서 소가 있는 곳에 떡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전통사회에서 소는 한 집의 중요한 재산이었으므로, 부귀를 기원하는 이유에서도 외양간은 중요한 미래 장소로 선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물이 있었다. 태안할머니의 시부모님은 이곳에 '용왕신'이 있다고 믿고, 이 우물을 절실 들여 위했다. 정월 대보를 맞아해서 얼마나 황난에는 우물에 인줄을 걸고 김 앞에서 우물까지 깨끗이 쓸어놓았다. 고사를 지내는 날은 물을 푸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에게 말려서 물을 떠다놓게 한 것이다. 새벽 3시가 되면 옷을 갈아입고 우물을 찾아갔다. 제물로는 시루떡과 미역국을 올렸다. 태안할머니는 이 우물을 위한 뒤부터 해마다 땅을 사는 등 부(富)를 모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시루떡, 막걸리, 배설기, 돼지머리, 북이포를 준비하였다. 복어는 머리가 위로 향하게 하여 시루 꼭지(손잡이)에 꽂아두었다. '삼불제식'에게는 배설기를 올렸으며, 막걸리를 사용하지 않고 청한수를 떠다놓았다. 예전에는 가을고사를 위한 의복을 따로 준비해두는 경우도 있었다. 태안할머니의 시어머니는 고사를 지낼 때마다 준비해 둔 흰옷을 입었다.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이 옷을 입었다. 그 옷은 반드시 고사를 지낼 작에만 입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4. 금곡동(잇골마을)

잇골마을의 오른편에는 고속도로가 뚫려있으며 100m 전방에 궁내동 불개이트가 위치해 있다. 고속도로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와 벽화점들이 들어서 있다. 현재 잇골마을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구 수는 7호 내외이다. 작은 하천을 따라 왼쪽에 옛길들이 몇 개 남아있지만, 하천 오른쪽에는 큰 빌라를 비롯해서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 양옥들이 서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둥제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남쪽 산 정상에 있는 '용바위'를 위하여였다. 개인적으로 고사를 올리는 주민들도 있었다. 고사를 올릴 때는 바위 앞의 샘물을 치고 주변에는 한지를 깨운 새끼풀을 걸어두었다. 이 인줄을 걸어두면 다른 사람들도 샘물을 퍼가지 않는 등 조

62) 천년왕국이라는 종교체단의 건물이 들어선 곳이라고 함.

심스럽게 행동을 했다. 계물로는 백설기와 노구미(밥)를 경성스럽게 지어서 올렸으며 인적이 드문 저녁이나 새벽에 가서 제를 지냈다. '용바위' 앞 고사는 특별한直험을 바라고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기자(新子)를 원하는 주민들이 고사를 치냈다. 첫골마을의 어떤 이는 이곳에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용바위'에 기도를 해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한편, 이곳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고철열씨가 이곳에 시집을 온지 얼마 안되어 심한 한bedtls 들었다. 동네사람들이 추위를 해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용바위'에 제를 올렸더니 효험을 보았다. 다행히 비가 와서 그때 농사를 무사히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동네주민들은 이곳의 깊은이들이 군대를 가서 한번도 사고가 없었던 것도 '용바위'가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이라 믿고 있었다.

1) 김경식씨 댁 63)(전승)

(1) 유래와 역사

김경식씨는 친정, 외가, 시댁이 모두 금곡동에서 살았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금곡동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순수한 토박이였다. 김경식씨는 시월 초당새 날에 가을고사를 지냈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김경식씨의 키에는 오랫동안 터주가리가 있었다. 시집와서 20년 동안은 터주가리를 위하여였지만, 30년 전 '전배'(밥)와 청수(물)를 떠놓고 간단히 제의를 행한 후에 없앴다고 한다. 과거 터주가리가 있었을 때 그 안의 밭은 빼바다 같아주었다. 10월 상당에 고사를 지내면서 구곡을 덜어서 밥을 해먹고 신곡(新穀)으로 다시 채워 넣었다. 침원 철석날에는 수확한 보리를 담기도 하였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제례를 하는 등 몸을 경건히 하였고, 인줄

63) 조사일시 : 2001년 1월 28일

제 보 자 : 김경식씨(여, 71세)

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 또 황토를 펴다가 대문의 양쪽에 놓고 상주, 달가리 하는 여성, 등남배들의 출입을 금하기도 하였다. 동네에 상(喪)이 있거나 상가집에 갔다오는 부정한 일이 생기면 다음으로 미루었다. 집안의 가장이라도 혹 좋지 않은 일을 보았다면 고사를 지내는 기주(新主 : 주부)의 것에 오지 않았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김경식씨는 체일 먼저 안방에 떡시루를 올렸다. 안방 다음에는 마루의 성주 혼다 떡시루를 바쳤다. 성주에게 비손이 끝나면 터주가리, 부엌, 우물, 창 등 집안의 모든 곳에 떡을 조금씩 살라서 올려놓았다. 성주와 터주에 대한 제의는 절 3번, 비손 그리고 측원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김경식씨는 측원으로 “절 씨 가생에 그지 자손들이고 부모들이고 칠해주시고 통서남북을 다녀도 아무 말없이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조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과거에 아이들이 외갓집을 가려면 얼굴에 겁정 칠을 하였다. 외갓집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부엌이었다. 부엌의 조왕을 먼저 보고 나오면 아무 털이 없다(아프지 않다)고 해서 따랐다는 것이다. 가을고사에서는 변소에 떡을 옮리지 않지만, 제보자들은 변소에는 ‘독신귀신’이란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변소에 떡을 옮길 때도 있었다. 예전에는 간혹 아이들이 변을 보면서 변소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떡을 해놓고 ‘독신귀신’을 크게 대걸했다.⁶⁴⁾ 또 초상집을 갔다왔을 때는 반드시 변소에 들어가서 혹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백운을 맨져버리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행위가 탐을 막아주는 일로 생각되었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지금은 막 한 시루를 해서 여러 조각을 내어 각 신들에게 바친다. 제물을 잘 창만할 때는 돼지머리를 올리고 촛불을 켜놓았다. 제물이 많을 때는 상을 이용하지 않고 팻방석을 깔아두고 고사를 지냈다.

64) 변소에 떡을 해서 바치는 이유는 변소에 빠진 일이 아이들의 실수가 아니라 ‘독신귀신’이 화를 내서 생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주나 터주, 삼불제식과 달리 ‘독신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는 짓궂은 신이라 할 수 있다.

2) 고정열씨 대65)(전승)

(1) 유래와 역사

고정열씨는 금곡동의 이웃동네인 동마골에서 사김왔다. 슬하에는 모두 5남매를 두었다. 고정열씨는 굿에 관심이 많았으며 만신과도 자주 만났던 것으로 보여진다.⁶⁵⁾ 고정열씨는 시월 초 열흘날의 가을고사와 정월 초사흘날, 이렇게 두 차례 고사를 치렀다.



제보자 고정열씨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터주를 모신 터주가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곡식을 넣어두었다. 터주가리 안에 있던 곡식은 변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이 좋다. 벌레가 먹거나 변질되면 침안에 물운(不運)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어졌다. 한번은 고정열씨의 어머니가 가을고사를 지내라고 터주가리의 벼를 쓴았는데, 벼는 온데 간데 없고 짤벌레인 바구미만 가득하였다. 그후로 얼마 안되어 군대간 오빠가 큰 면을 당하였다. 고정열씨는 터주가리의 벌레 먹은 벼가 상상치 않은 일의 징조였다고 믿고 있었다. 상당에는 터주가리의 절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지난 것은 물을 대워 깨끗이 없앴다.

안방에는 계식을 모셨는데, 신체는 자부모양의 간 주머니로, '제식주머니'라 한다. 여기에도 햅쌀이 나면 잡아넣었다. '제식주머니'는 한지를 고깔모양으로 접어서 자루를 털은 형태로, 안방 아래쪽의 벽 한쪽 구석에 걸어두었다.

(3) 계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의 날짜는 시월의 손 없는 날을 골랐다. 보통 시월 초에 많이 치내며 사계(時祭)와 날이 겹치면 뒤로 미루었다. 그래도 10월 초열흘을 넘기지

65) 조사일시 : 2001년 1월 28일

제보자 : 고정열씨(여, 68세)

66) 예컨대 고정열씨는 '삼불제식' 신의 연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 유래를 만신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고정열씨 약 찬금▲
고정열씨 약 장독대(티주가리 모자던 곳)▶

않도록 노력하였다. 날이 좋으면 특별히 시(時)는 따지지 않고 치냈다고 한다. 가을고사의 기주(新生)는 대부분 고희(古稀)를 전후한 할머니들이었다. 예전에는 의례 과정을 주재하는 것은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들이 하였지만 실제 제물을 준비하고 차리는 과정은 며느리들이 맡아서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며느리들이 교회에 나가거나 생업에 끊기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할머니들이 가을고사를 떠맡아 준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또, 예전처럼 제물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으므로 할머니들 혼자서도 가을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고정열씨 집은 가을고사만큼 절월 초사흘날 고사를 중요시했다. 정월고사를 지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정열씨의 시댁은 손(孫)이 귀한 집안이었다. 시부모님들이 자손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오산에 있는 산신령들에게 기도를 드리고자 마음먹었다. 이 산신령들은 '광대산신령님'과 '무궁산신령님'으로 양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시부모님들은 아들 삼 형제를 두게 되었다. 그후로 시어머니는 잊지 않고 정월 초사흘날 고사를 지내 삼 형제를 짐작해둔 신령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가을고사와 정월 초사흘날 고사의 제의 절차와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⁶⁷⁾ 성주와 티주, 천립,⁶⁸⁾ 대문간, 부엌 등에 떡을 올려놓고 '비손'과 절을 하였다.

그중 성주에 먼저 떡시루를 물렸다. 성주에게는 “성주님네 조상님네 하우 등
심히서서 다른 가정은 어래든지 저래든지 노색네 가정은 아무 탈없이 ○○이,
○○이, 자식들 5남매가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축원을 드렸다. 성주고사
가 끝나면 뒤편의 터주신에게로 옮겨갔다. 터주신에게는 “터왕터주 지신님네,
이 마천 이 터천에서 다 자식들 낳아서 길러도 우심일랑 사라지고 다른 가정
은 어래든지 저래든지 노색가정일랑은 고색 기주(新主)가 이 자식들 대리고
화복하게 잘 살게 해주소”하고 축원을 드리며 막걸리를 이곳저곳에 뿐렸다.
다음은 대문에서 기원을 드렸는데, 문간에서 “나한 적에는 빈발 들어온 적에
는 한발로 신고 와서 재명되게 해주시고 ○○뿌리 ○○뿌리 다 많이 해서 노
색 가정에 재수 있게 해주소서”하고 축원하며 빙었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고사의 제물은 간소하여 떡시루와 막걸리가 대중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떡
을 몇 시루 썩어 물체로 올려놓을 때도 있었다. ‘조왕시루’, ‘안시루’, ‘용왕시
루’ 등 성주 이외의 신들에게도 시루 빼 올려놓았다고 한다.

5. 운중동

운중동에는 원주민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한 집도 없다고 하며, 원주민들은
대부분 불교와 민간신령을 돈독히 믿어 경월고사나 가을고사를 치낸다.

67) 고경열씨의 시어머니가 지냈던 정월 초사흘날 고사는 가을고사와 다른 절차와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정월 초사흘날 고사는 분명히 ‘생대신신령’과 ‘무궁산신
령’을 위한 제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고경열씨가 고사를 물려받으면서 예전의
의미가 희석하여 가을고사의 유형과 비슷하게 변화한 것 같다.

68) 고경열씨는 결립을 ‘상기물’이라고 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결립은 안방과 마
루를 경계짓는 벼 가운데 있는 가동이었다. 고경열씨의 경우, 안방에서 생례야
할 희례는 이곳 결립에서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김창년씨 대(代)(전승)

(1) 유래와 역사

전에는 마을 뒷산 계당(祭堂 : 바위와 나무로 구성)에 매년 시원 초하루나 3일쯤 둥제를 지내고 난 시간에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가신고사(家神告祀)를 지냈다고 한다. 이 집도 집안의 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현제까지 가신제를 지낸다고 한다.



김창년씨 대 터주[가리]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① 터주가리

터주를 모신 신체로 현재도 모셔놓고 있다. 위치는 집 뒤에 있으며, 터주가리 속에는 벼만 넣어놓는다고 한다.

② 대감항아리

속에는 쌀을 넣어 대청마루 구석에 두었는데, 7~8년 전 새로 집을 지으며 없앴다고 한다.

③ 삼신주머니

삼신을 모신 신체로, 호리병 밖 속에 글을 써서 넣고 위에 뚜껑을 닫아 안방 아래쪽 벽에 달아두었으나 역시 7~8년 전 새로 집을 지을 때 없앴다고 한다.

④ 설주

신체가 따로 있는 전궁이며, 대청마루에서 제의를 행한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과거에는 청월 초사흘날에 '청월고사', 그리고 칠월 칠일(칠식날)에 '칠월고사', 10월 말에 날을 잡아 하는 '카을고사'로, 년 3회 가신제를 행했으나, 지금

69) 조사일시 : 2001년 1월 21일

제 보자 : 권오희씨(예, 68세, 김창년씨의 어머니)

은 칠식날에는 절에 가고, 밀개먹을 해서 '정화수'와 함께 짐안 곳곳에 놓아두기만 할 뿐 따로 고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정월고사도 지내지 않고 오직 가을고사만 지낸다. 가을고사의 경우, 전에는 마을제사를 지내고 난 후 바로 각 가정에서는 자신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동제보다 먼저 고사를 지낼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10월 달에 퇴지날(亥日)을 끌라 한다. 고사는 대개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시간에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는 먼저 대청에서 성주 앞에 '안시루'와 막걸리, 정화수를 진설한 후 절을 3번 하고 비손한다. 다음으로 터주에 백설기시루와 정화수를 옮겨놓고 절 3번 하고 비손한다. 그런 다음 산 쪽을 바라보며 청계산신께 절을 하며 "짐안 무고하게" 해달라고 비손하고, 터주에서 사용했던 백설기 조각을 조금 빼어 산 쪽으로 던진다. 대청에서 사용했던 '안시루'를 그대로 가지고 대문으로 와서 막걸리와 정화수는 세 것으로 부어놓고 서서 절 3번 하고 비손한다. 다시 짐안으로 들어와서 박을 절시에 나누어 담은 후 우물, 장독, 부엌, 다락 등에 하나씩 옮겨 두었다가 잠시 후 가지고 온다.

고사의 진행은 김창년씨의 어머니가 혼자서 한다. 들, 환갑, 결혼식 등이 있을 때도 '안시루'를 찍서 고사 때와 동일하게 각 신들 앞에 놓고 일린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멕은 '안시루'와 '산신시루'만 하는데, '안시루'는 붉은설기, '산신시루'는 백설기를 한다. '산신시루'는 작은 시루에 조금만 하므로 '안시루' 절 때 그 속에 흰 천을 깔고 옮려 함께 편다고 한다. 멹은 '절 시루'(오지시루)에 찍서 한다. 과거에는 빵는 것도 짐에서 절구로 직접 했으나 지금은 방앗간에서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빵을 한 말 이상해서 동네가 나누어 먹었으나 지금은 세 되 정도 해서 가까운 이웃 몇 집에만 나누어준다고 한다.

2) 홍경섭씨 댁(?) (전승)

(1) 유래와 역사

가을고사는 10월 상당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행해졌던 것으로, 지금은 농사짓는 집도 많이 사라져 실제로 과거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 풍습대로 가을고사를 지내는 집이 있는데, 이 집도 그 중 하나이다. 물론, 두서너 말씩 떡을 해서 온 동네에 다 돌려먹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 가족끼리 나눠먹는 정도가 되었고, 따라서 부담도 많이 줄어든 반면 고사 지내는 제미도 함께 반감되었다며 제보자는 아쉬운 듯 웃었다. 특히 이 동네는 소위 IMF사태 이후 외지에서 들어와 살게 된 세입자와 학생들로 인해 낯선 인구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이웃간의 교류가 더욱 단절되어 가고 있다.

(2) 신체의 위치화 형태

예전에는 마루에 성주를 모셨으며 '대감항아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복다 모시지 않고, 터주만 모시고 있다. '대감항아리' 안에는 밥을 넣어 놓았는데, 제보자는 이것이 사라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 20년 전에 마을에 도둑이 들어 집집마다 대감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밥을 괴다 훔쳐갔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감항아리를 신성시했던 사람들은 그 일 알고 나자 '더 이상 대감항아리를 모시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대감항아리에 정말로 신(神)이 깃들여 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등



홍경섭씨 댁 터주가리

등이 섞여 결국 그 이후 대감항아리를 모시는 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70) 조사일자 : 2001년 1월 21일
제보자 : 박영분씨(여, 58세, 홍경섭씨의 아내)

반면, 터주는 지금도 장독대에 모시고 있는데 주인아저씨가 일년에 한 번씩 새로 갈아준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정월고사나 가을고사나 모두 해일은 아주머니가 죄집 하는데, 달력을 보고 10월 초 중 퇴지난, 소날, 말난 가운데 선택한다. 옛날에는 저녁 때 주로 고사를 치냈으나 지금은 떡이 만들어지는 대로 고사를 지내 환한 대낮에도 제의를 행하는 수도 있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지금은 대부분 고사를 조용한 시간에 주인아주머니 혼자서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예전에는 '산시루'와 '안시루' 등을 따로 짰으나 지금은 불은설기 위에 얹어 만드는 백설기를 가지고 산 쪽을 바라보며 비는 것으로 고사를 시작한다. '산시루'를 예전에는 '서낭시루'라고도 했는데, 특히 고개를 넘어 시집온 사람은 '서낭시루'를 반드시 짰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음 입구에 있는 서낭을 넘어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신이 평안하고 안녕하도록 '서낭님'을 위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보자인 박영분씨 역시 고개를 넘어 시집을 왔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먼저 장독대에 나가 산 쪽을 바라보며 비손을 한다.

다음에는 '안시루'를 성주 앞에 놓고 마음속으로 벌면서 비손과 함께 만질을 한다. 그 다음에는 '안시루'를 그대로 터주로 들고 나가는 데, 이 때 정한수는 반드시 새로 갈아꿔야 한다. 때문에 떡시루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데, 이 때도 정한수는 반드시 갈아준다. 주택을 개량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집이 개인우물을 가지고 있어 우물에도 놓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금고 등 돈을 모아 놓은 곳과 결운기 등 생업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기계 앞, 그리고 각 방, 부엌, 풍 등에도 떡을 놓았으나, 제보자는 변소 앞에는 놓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옛날에 사용하던 대시루는 이제 양은시루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시루미을 준비한다. 둉네 사람들과 떡을 나누던 때에는 최소 한 말이 기본이 있으나 지금은 3~5회를 넘지 않는다. 습하에 2남1녀를 두었는데, 특히 자녀들이 고사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고사떡을 나누기도 하고, 박영분씨가 상대원에서 무선통신 대리점을 경영하는 아들김예 가서 직접 고사를 해주기도 한다. 이 아들은 고사를 지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데년 고사를 지내는 것을 거르지 않는다고 한다.

시루는 붉은설기로 '안시루'를 짹고 그 위에 맥설기를 얹어 '산시루'를 만든다. 상차림도 간단해서 안시루는 상 가운데 시루를 놓고 그 위에 정한수를 올려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산시루는 살 원쪽에 맥설기를 놓고 오른쪽에 정한수를 띠놓으며 다른 제물은 올리지 않는다.

6. 하산운동

1) 박춘순씨 댁(기(전승))

(1) 유래와 역사

하산운동은 운중동에 비해 기독교인이 많아 살대적으로 가을고사 를 지내는 집이 적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박춘순씨 댁처럼 예전히 가을고사를 지내는 집이 있다. 이 댁은 5~6대 전부터 하산운동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외지로 나가 살고 있다. 예전에는 정월고사도 지냈었는데, 박춘순씨가 연로해지면서 머느리가 가을고사만 이어가고 있다.

조사에 응해주었던 머느리의 기억에는 시점은 이후 황토를 대문에다 놓는 다든지, 금줄을 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지금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사는 계속 지내지만, 5남매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을고사 지내는 것을 텁탁하지 않게 어려운 것으로 이 댁에서는 가을고사가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연희 회장 댁 터주가리

71) 조사일시 : 2001년 1월 21일
제 보 자 : 박춘순씨(여, 70세)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터주를 모신 터주가리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 주인 할아버지가 매년 가을 터주가리를 새로 만들어 써운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주자리 안에 할아리는 없고 그냥 말뚝만 있다고 한다. 성주나 참신은 예전부터 신체가 없었다고 한다.

(3) 계일 및 준비 과정

요즘은 가을고사를 맡아 지내는 머느리가 직접 백일을 한다. 조개사에서 받은 행위 달리에 표시되어 있는 간지(干支)의 그림을 보고 그 중 퇘지날, 말날 중 적당한 시기를 정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주로 새벽 등 조용한 시간을 백해서 지내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 이 밤에서 는 떡시루가 완성되는 대로 바로 차낸다. 제일 먼저 대청마루에 상을 차리고 간단히 비손만 한 다음 부엌, 대문 등에 가지다 놓는 것으로 끝난다. 예전에 우물이 있을 때는 우물에도 놓았다고 한다.

(5) 제의 도구와 재물

조사지의 모든 가정에서처럼 이 마에서도 박의 양이 많이 축소되어, 많아도 5 되를 넘지 않는다. 현재는 방앗간에서 막을 써오는데, 백설기 없이 푸른선기(판시루찌)로 '안시루'만 한다. 예전부터 '산시루' 즉, 백설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차림은 상 위에 시루 빼 않고 그 오른편에 정한수를 떠 놓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올리지 않아 간소하다.

2) 윤동구씨 댁⁷²⁾(전승)

(1) 유래와 역사

가신제의를 10월에 하는데, 가을고사라고 한다.

윤동구씨 부부는 본래 평안도가 고향인데, 6·25 전쟁 때 피난하여 화산을

72) 조사일시 : 2001년 11월 8일

제보자 : 윤동구씨(남, 72세)

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사를 지내는 밤식은 윤통구씨의 차가 그 동안 절은 시절부터 이웃에서 하는 밤식들을 보고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과거부터 특별히 신체를 모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일은 음력 10월 상단에 주로 말날을 선택하여 한다. 2000년에도 10월 말날에 했는데 양력으로는 11월 8일 아침 7시 30분 경 인적이 드문 시간에 했다.

(4) 제의 철차와 내용

조사자가 아침 일찍 윤통구씨의 집을 방문하여 10여 분을 기다리자 부인이 방앗간에 가서 고사막을 해왔다. 그는 고사막을 부엌에 내려놓고 고사막을 이리 접시에 나누어 담았다. 대청에 떡을 한 접시를 놓고, 막걸리를 놓은 후 절을 하고 간단히 비손을 했다. 그리고 장독대로 가서 떡과 막걸리를 놓고 서서 절을 하고 비손을 했다. 그리고 부엌, 각 방, 광고, 굴뚝, 대문 앞 등 집안 곳곳에 떡과 막걸리를 놓았다가 잠시 후 거두어 왔다. 대문 앞에 놓은 막걸리는 이 집 가장인 윤통구씨가 마셨는데, 이 술을 마시면 좋다고 한다. 제의 진행은 부인 혼자서 했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구경만 했다. 고사를 지낸 후 가족들이 음복을 했고, 떡은 이웃에도 몇 칸 나누어준다고 한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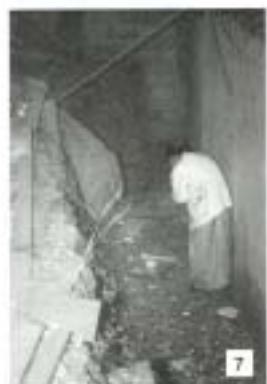
떡과 막걸리 외에 특별한 제물은 없다.



①접시에 떡을 나누어 담고 있다.



②대청에서 치성



①⑩) 찜통대에 술을 따르고, 비
온 ②부엌에 치성 ③대문 앞에
비온 ④집 뒤 굴뚝 앞에 치성
⑤차를 차 업에 치성 ⑥고사리
⑦고시후 음복

7. 판교동

1) 만종칠씨 막73)(전승)

(1) 유래와 역사

10월에 하는 고사를 가을고사라 한다. 안종칠씨의 모친 이풀순씨(81세)는 용인 백암에 거주할 때부터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오던 방식대로 가신고사를 해왔다 고 한다. 1963년에 판교로 이사와서 한동안 가신고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40년 전쯤 집안에 우환이 끊자 그 후 가신을 모시고 가을고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고사의 규모를 줄여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안씨의 어머니는 반신 깁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가신고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 안씨의 부인은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사후에는 가신고사는 모두 없어질 것으로 안씨는 예측하고 있다. 가신고사를 할 때도 미느리는 시어머니의 심부름만 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집안고사 서 무례지는 마을의 노란나무(본교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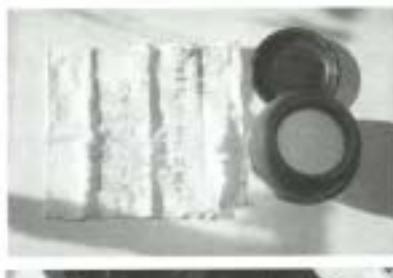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현재 안씨의 집에는 '신주단지'가 있다. 신주단지는 대창 한쪽 벽 2미터 정도 높이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작은 항아리를 올려놓았다. 항아리 속에는 짚을 넣고 그 위에 '居住 光州君樂生面板橋里 二百七疊地 辛酉六月二十九日生丙申始月始七日 起 德水李燮'라고 적은 무명천을 곱게 접어 두었다. 무명천에 적은 내용은 안씨의 모친 이풀순씨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적어 둔 것으로, 안종칠

73)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안종칠씨(남, 64세, 판교2동)

씨의 선친이 살아있을 때 적은 글씨라고 한다. 선친이 살아있을 때는 무명에 선친의 주소와 생년월일도 적어 함께 놓아두었으나 선친 사후(死後) 선친의 것은 없앴다고 한다. 신주단지 속의 졸은 때년 6월(별례가 먹으로)과 10월(행렬이 날므로) 두 차례 간다. 지금의 신주단지는 40년 전쯤 모친의 꿈속에 중조할머니, 시어머니 등 돌아가신 여자 조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몸이 아프기도 하여, 옛날부터 모시던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다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안씨가 어려서 흉인 백암에 살 때는 터주와 같은 자신의 신체가 있었으나 관교에 와서는 신주단지 외에 다른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는 특히 아는 만신이 터주가리를 해놓으면 안 좋다고 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 장독대 중앙에 낸 꽈한 둘 하나를 두고 그 위에 정화수를 옮겨놓은 것이 있었는데, 안씨에 의하면, 40년 전 안씨가 몸이 아팠을 때 모친의 꿈속에,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니 장광이 끓더니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모친은 꿈에서 깨어 꿈에서처럼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떴었더니 안씨의 병이 진짜 나았다고 한다. 그 후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저녁 해가 지면 이곳에 물을 떠놓는다고 한다.



▲ 신주단지 대평풀
▲ 정화수를 떠놓는 절독대



안습칠씨 댁 신주단지 (마루)

(3) 제일 및 준비 과정

가을고사는 10월 중순 손 없는 날 중에서 집안 이자들에게 달거리가 없는 날을 택하여 한다. 고사는 주로 저녁에 이루어져 손님들이 오지 않을 때쯤에 한다. 과거에는 고사를 지내는 날 대문 파우에 봉도를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지 않는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는 안씨의 모친이 혼자서 진행하며 머느리와 나머지 가족들은 옆에서 보조를 한다. 시루에 쌀을 씨 죄 정도 찍어서 대청마루 앞에 상을 펴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 시루 속에는 경화수를 올려놓는다. 전설을 하고 나면 안씨의 모친이 절을 3~5회 정도하고, 대주부터 가족들을 순서대로 칭하며 “○○ 건강하고 하는 일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집안식구들의 건강과 무고함을 빈다. 이렇게 비손을 5분 정도하고 모친이 맥시루의 맥을 나누어 여러 개의 절시에 나누어 올려놓으면, 머느리(안씨의 부인)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에 절시를 갖다놓는다고 한다. 그 순서는 무역(맥을 가스렌지 옆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안방 위의 다락 →장독 →우물(대문 밖에 우물이 있다) →동네 느티나무(마을 중앙에 있는 느티나무에 가서 떡 절시를 올려놓고 3분 정도 비손을 한 후, 떡 조각을 나무 주위에 조금 던지고 절시를 들고 온다) →자동차(행들 위에)로 이루어진다. 절으로 들어올 때는 떡 조각을 대문 밖 세 방향에 던져 고시래를 하고 들어온다.

고사를 지낸 후 과거에는 은 동네에 전부 나누어주었으나 지금은 가까운 친척끼리만 맥을 나누어준다.

(5) 제의 도구와 재물

현재는 맥을 할 때 쌀 서리 정도만 하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맥을 세 말 정도 해서 동네에 깁질마다 빠짐없이 나눠주었다고 한다. 맥을 할 때 예전에는 절에서 맥뿔을 담가 절구에 찧어 시루에 찍어 했으나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빻아온다. 그러나 안씨의 절에서는 지금도 찍는 것만은 쌀가루를 시루에 앉혀 절에서 뺀다.

고사맥은 콩쌀과 팔가루를 켜켜이 뿌려 만든 붉은선기를 한다. 맥 속에 호

밖이나 무를 넣는 점도 있다고 한다.

(6) 기타

안씨의 집에서는 가구나 철제 물건 등이 집안에 들어올 때는 그 물건에 '玉皇上帝伐木'이라고 종이에 써서 끌여둔다. 과거 선친이 살았을 때 어느 날 집을 수리하기 위해 목재를 들어왔는데 모친이 고춧가루와 소금을 목재에 뿌려 부정을 가졌는지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선친은 그 원인이 목재 때문인가 하고 목재에 '玉皇上帝伐木'이라고 써서 불이니 별이 나았다고 한다. 그후 지금까지 항상 집안에 목재나 철제물, 가구 등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 안씨의 집에는 책상 밑이나 창문 등에도 이것을 부착놓았다.

2) 이금번씨 댁⁷⁴⁾(전승)

가신 제의를 봄에는 음력 3월에 날을 잡아서 하고, 가을에는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한다. 전에는 집에서 칠구에 서침 쌀을 쟁어 고사백을 하여, 대청, 부엌, 대문 등지에 가서 비손 하였으나 지금은 대청에서만 간단히 한다고 한다. 이씨에 의하면 대체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린 도박이들, 특히 농사를 짓는 집들은 가신고사를 행한다고 한다.

3) 김성배씨 댁⁷⁵⁾(전승)

김성배씨 백은 득실한 불교신자 집안으로서 전통적인 민간신앙에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도 차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김씨의 집에는 성주를 거실 들어가는 출입문 위 백에 모셔두었다.

김씨의 부인인 이상숙씨에 의하면 음력 10월 상단 초에 시어머니가 태일하

74) 조사일자 : 1999년 12월 13일

제 보 자 : 이금번씨(남, 70세, 연안이씨, 관교2동)

75) 조사일자 : 1999년 11월 19일

제 보 자 : 김성배(남, 53세, 관교 대령), 이상숙(여, 김성배씨의 부인)

여 고사를 한다고 한다. 고사는 보통 오후 4~5시쯤에 방앗간에 가서 고사떡(쌀 한 말 정도, 한 시루)을 하고, 북어, 살, 청수(淸水), 술(막걸리 2봉), 과일 등으로 고사상을 준비하여 가장(家長)이 절을 세 번하고 대문, 장독, 부엌, 변소에 떡을 한 접시 놓았다가 조금 떼어놓고, 북어와 살을 현관 문 위에 달아 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의 반대로 고사를 거내는 것을 본인이 직접 관찰하는 것은 거절당하였다.

4) 한옥순씨 댁76)(단절)

예전에 한옥순씨가 시집왔을 때는 시부모님들이 터주가리를 모셨다고 한다. 창동대 앞에 있었는데 황아리에다 범세, 돈, 창호지 등을 넣어두었다. 특별한 음식을 해서도 먼저 이곳에 바쳤는데, 신지어 칸국수를 만들어도 이곳에 올렸다고 한다. 이 터주가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이지만 자신이 시집와서 없었다고 한다.

8. 백연동

1) 흉대석씨 댁77)(전승)

(1) 유래와 역사

가신제비는 정월달과 10월에 한다. 정월에 하는 것을 정월고사라고 하고, 10월에 하는 것을 가을고사라고 한다. 한은녀씨에 의하면 고사는 옛날부터 집안에서 내려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백현동 현체 살고 있는 김에서 출생하여 줄곧 살아왔다. 남편은 태립사원로 왔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76) 조사일시 : 1988년 11월 19일

제보자 : 한옥순씨(여, 67세, 독신한 기독교인)

77) 조사일시 : 1988년 11월 19일(음력 10월 1일)

제보자 : 한은녀씨(여, 76세, 흉대석씨의 어머니), 흉대석씨(남, 47세)

현재 가신(家神)으로 신체(神體)를 모신 것은 안방 창풍 옆에 둔 '엄태감황마리'가 있다. 다른 신체는 특별히 없다. '엄태감황마리' 속에는 쌀이 들어 있다. 한은녀씨에 의하면, 과거 6·25 때 쌀을 항아리 속에 넣어 대문 근처에 둘어놓고 피난을 갔다 왔는데 와서 항아리를 열어보니 족제비가 많아 있었던 것처럼 중앙이 오목하게 과여 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궁내동에 있는 만신에게 물어보니 이 집에는 족제비 업이 들었다고 하며 '엄황마리'를 모시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 항아리에 쌀을 넣어 안방 창풍 옆에 항상 모셔왔다고 한다. 매년 쌀을 넣어두는데, 항아리 속의 쌀은 전혀 벌레를 먹지 않고 신선하다고 한다. 쌀은 매년 가을 추수 후에 같아준다고 한다.



용대석복 대 천진

(3) 제일 및 준비 과정

제의는 정월과 10월에 하는데, 정월에 하는 것은 경초(正初)를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제일 선정은 쓴 없는 날을 백일하여 정한다. 조사 당시 음력 10월 초하루 날 아침 8시에 가을고사를 했는데 며느리가 출근해야 하므로 아침 일찍 했다. 조사자가 7시 30분 경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고사에 사용할 떡을 하기 위해 방앗간에 갔다가 바침 들어오고 있었다. 과거에는 철구에 떨어 침에서 사루에 씌서 했으나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해온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제의 절차를 살펴보면, 마루의 방문 앞에서 성주께 상을 놓고 비손한다. 상은 떡시루와 막걸리, 촛불만으로 간단히 차려 놓았다. 그 다음 건넌방 문 앞에서 걸립계 상을 놓고 비손한다. 그 후 안방의 향아리(업대감향아리)에다 떡 한 그릇, 술 한 잔 놓고 비손한다. 그리고 부엌에 맥과 술을 놓고 비손한다. 그 다음 터주(지금 곳간이 있는 곳)에 떡, 술을 놓고 빈다. 그리고 창맞이 좋았이라고 '창광'(창독대) 위에 떡과 술을 놓고 빈다. 그 다음 우물(용팔께 우물 잘 나오라고), 대문('수비' 먹고 가라고 주는 것으로, 문신(門神)에게 대궐하는 것이 아님), 차고 앞에 떡을 놓고 빈다. 대문에는 떡을 조금 빼어서 철대문 창살에 몇 군데 붙여두고, 술은 주위에 뿌린다. 다른 곳도 떡을 조금 빼어서 주위에 던치고, 술도 주위에 뿌린다. 남은 떡과 젤반은 잠시 후 다시 가져간다.

이 날은 시어머니 한은네네가 아파서 시어머니가 일려주는 대로 벼느리가 고사를 진행했다. 다른 가족들은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 고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고사가 끝난 후 떡을 이웃집에 조금씩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조사자에게도 떡을 싸주었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제물은 떡과 막걸리가 전부였다. 촛불은 커으나 냄은 피우지 않고 소지도 올리지 않았다.

2) 이강임씨 댁⁷⁸⁾(전승)

(1) 유래와 역사

이강임씨는 집안의 말며느리로서 온갖 제사를 도맡아 치러오신 시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대로 지금까지 가을고사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예전보다 고사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고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것인데” 본인이 죽기 전에는 거르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78)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이강임씨(여)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 집에서 모시고 있는 신체로는 삼신주머니가 유일하다. 이것도 한동안 없어졌다가 40~5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갑자기 눈이 험험해지기 시작하여 유명하다는 악국이나 병원은 다 다녀보았지만 급기야는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굿을 뺐는데 효과가 있어 다시 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때 만신이 삼신할머니를 모시라고 해서 그 때부터 다시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삼신할머니는 안방에 모셔져 있는데, 그 모양은 베에다 빨을 넣고 만을 걸어 설타래와 함께 한지로 고관을 칠어 켜워놓은 모습이었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이웃마을인 궁내동에 만신이 있어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 곳에 가서 택일을 해오곤 했다고 한다. 때만 되면 굿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신과의 관계가 돈독했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도 돌아가지고 만신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절에 가서 스님께 고사일을 받아온다고 한다.

가을고사는 10월 중순에 치르는데 식구들의 사주를 모두 봐서 가족들 모두에게 해가 없는 좋은 날로 택일한다. 보통 개인이 택일 할 때는 소날, 맙날, 폐지날 등이 손 없는 날로 생각하지만, 삼체로는 식구들 사주를 모두 맞춰 보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가 없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 3시경이 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의 별다른 도움 없이 제보자 혼자서 고사를 지내는 일이 많다. 제일 먼저 사주를 가져다가 안방문 앞에 놓고 그 중 배설기를 가져다가 삼신할머니께 드린다. 그 뒤 창동, 각방, 지하실, 부엌 가스렌지 위, 화장실, 대문 등에 가져다 놓는다. 예전에 우물이 있을 때는 우물에도 가져다 놓고 “물할아버지, 물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물을 놓을 때 우물, 창동, 대문에는 술과 물을 함께 뿐만 아니라 대문에는 고시래를 하듯 멱을 몇 조각 빼어 던진다고 한다.

이 택에서는 1년에 2번 고사를 치내는데, 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하며, 정월에 치내는 고사는 1년 내내 좋으라고 치내는 것이고, 가을에 치내는 고사는

추수를 한 후 칸사하는 의미에서 지내는 것이라 한다. 단, 제보자의 고향인 충청도와 비교했을 때,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 '조왕'부터 모셨는데, 여기서는 성주부터 모시는 것이 다르다고 하셨다.

(5) 계의 도구와 재물

과거에는 고사를 한 번 치를 때마다 팔이 2~3만 들어갔으나 지금은 많이 해도 5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길마다 텁텁만 쓰기도 하고 활泼과 반씩 섞기도 하는 등 다양하지만, 이 때에서는 활泼만을 가지고 먹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시루'라고 해서 예전부터 쓰던 커다란 시루에 직접 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깨끗치 않고 안전한 알루미늄시루를 사용하고 있다.

활泼을 빙앗간에서 가루를 내 점으로 가지고 와서 시루에 달아 불은 팬을 넣어 불은시루를 만든 뒤 그 위에 백설기를 함께 얹어 삼선할머니 앞에 놓을 세물을 마련하는데, 특히 이 백설기는 칙구들끼리만 먹는다고 한다. 상을 차릴 때 기본적으로 가운데 시루를 놓은 다음 그 위에 북어와 막걸리를 놓고 시루 오른쪽에 장한수를 떠놓는다. 특히 이 곳에서는 막걸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으로, 한 번 고사 지낼 때마다 3~4병 정도 든다고 한다. 과거에는 직접 철퇴에 빨을 짤어서 먹을 만들었고, 상에는 나물과 과일을 함께 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생략되었다.

9. 궁내동

마을 노인정에서 만난 8명의 할머니 중 교회를 다니는 한 명을 제외한 7명의 할머니가 모두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중 갑안고사를 지내는 회수는 1회~3회로 다양한데, 가을고사는 모두 지네며, 청월고사 외에 7월에도 비슷한 수의 사람이 고사를 지냈다. 할머니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을 토박이들은 대부분 고사를 지내지"라고 말했다.⁷⁹⁾

1) 안경목씨 덕80이(전승)

79) 마을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이 말한 자신고사의 시기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유래와 역사

정월에 하는 것을 '정월고사', 7월 칠석에 하는 고사를 '칠월고사', 가을에 하는 고사를 '가을고사'라고 한다. 안경옥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잡은 마을 사람과 결혼을 했으므로 고사를 지내는 것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방식 그대로라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가신을 모시는 신체는 따로 없다. 과거 시어머니 때도 제보자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3) 계일 및 준비 과정

정월고사는 정월 초순에 하며 주로 초사흘날에 많이 한다. 7월고사는 칠식 날에 하며, 가을고사는 10월에 날을 잡는데, 만남 또는 끼지날에 한다.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아침, 낮, 저녁 등 일정하지 않으며 그날의 행운에 따라 한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굿을 할 때 문 좌우에 황토를 뿌리고 청화수를 띠놓았는데 고사지낼 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대청마루에 삼(床)을 파고 그 위에 술과 청화수, 그리고 '안시루'를 올려놓고, '불사사루'는 안방 다락에 진설해 놓은 후 대침으로 와서 성주께 절을 하고 "가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며 비손한다. 다음 '불사'가 있는 안방다락으로 간다. 여기서도 비손을 하고, 터주가 있는 장독대로 간다. 이때는 성주상에 올린 안시루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술만 새 것으로 옮리고 빈다. 이때 '산시루'도 가지고 와서 근처의 장독대에 옮리고 산 쪽을 바라보고 빈다. 다시 터주에서 사용한 안시루를 들고 대문 앞에 갖다놓고 비손을

한글	정월고사	칠월고사	가을고사	한글	칠월고사	칠월고사	가을고사
안경옥	□	□	○	암개녀			□
신○○	□	□	○	모○○		□	○
장○○			○	밤영분	○	□	□

80) 조사일자 : 2001년 1월 14일
제보자 : 안경옥씨(여, 70세)

하는데, 백을 조금 떼어 대문 창살 여기저기에 조금 허우고, 백 조각을 밖으로 던지며, 술도 뿐리고 나서 집안으로 들어온다. 안시루의 백을 나누어 점시 여러 개에 담은 후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위, 각 방, 우물, 팜 등 집안 여기저기 에 놓았다가 잠시 후에 가지고 온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백시루는 여러 개를 준비하는데, 안시루(쌀가루를 위에 올린 묶은설기), 불사시루(작은 시루 3개에 백설기를 편 것), 산시루(백설기)가 그것이다. 안시루는 집안의 최고 신인 살주를 위해 준비한 것이고, 불사시루는 안방 다팔 위에 모시는 '불사'를 위한 것이며, 산시루는 산신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이때의 '불사'는 삼신할머니, 조상신 등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백은 맵쌀과 참쌀을 섞어서 하는데, 백 속에 호박이나 푸를 넣기도 한다. 띠시루와 함께 마끌리 한 병과 돼지고기 삶은 것과 경화수를 함께 준비한다. 초, 량, 소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물에 있어서 정월고사와 가을고사는 위와 같이 하나, 7월고사에는 밀떡을 추가한다고 한다.

2) 이은필씨 댁비(전승)

(1) 유래와 역사

어려서 부모를 잃은 안경혜씨는 천정 할머니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지금까지 가을에 고사를 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수진동에서 장가를 온 남편 이은필씨에 의하면 '가을고사'라는 말 이외엔 별다르게 부르는 말이 없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안방 아랫복에 걸어두었던 살신주머니는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대신에 삼신주머니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살신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천을 쓰기도 하고 창호지를 쓰기도 하는 등 지역에 따라 그 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쌀이나 다른 물건들을 놓고 가

81)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자 : 안경혜씨(여, 이은필씨의 부인)

운데를 잡아 마치 한복 베지모양이 되게끔 만들어 그 위에 고깔모양으로 창호지를 잡아 쐐워놓는다는 것은 대체로 통일하다.

6·25 전에는 동네에 터주가리 있는 집도 많고 성주단지 있는 집도 많았지만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는 점차로 사라져 1960년대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터주가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물론 조사결과 이 동네에서 아직 터주가리나 삼신주머니를 여전히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런 신체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예부터는 이상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다.

예전부터 굿을 많이 하는 집일수록 터주를 열심히 설쳐 터주가리를 만들고 1년에 한번씩 주자리를 갈아준다고 한다. 삼신주머니도 1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주는데, 이 때 특별한 규기는 없다고 한다. 안정해씨는 모든 집에서 다 성주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대감'이 있는 사람만 모시는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는 성주대감이 있어 성주를 모시며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고사지내는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고 물자 벽에 걸려있는 조개사에서 발행한 달력을 떼어다 바다에 펼쳐 놓고 “좋은 날, 손 없고 좋은 날로 골라야지. 이렇게 끼지날, 소날, 말날이 좋은 날이야”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오(庚午)나 갑신(甲申), 갑오(甲午)도 편찮으나, 병진(丙辰) 등 병(丙)이 들어가는 날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다고 한다.

가을고사는 시월 살달 중 적당한 날을 택하고, 정원에 고사를 지낼 때는 초하루는 피해 날을 잡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고사 지내는 전날 황드를 떠다가 대문 앞 세 군데에 돌아들었으므로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금줄은 옛날부터 치지 않았다고 했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낼 땅이 다 쳐지면 백설기와 물, 술을 준비하여 산에다 대고 비는 것으로 고사가 시작된다. 장소는 대청마루로, 마루에서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려진다. 안정해씨의 설명에 의하면 굿에 12거리가 있듯이, 고사도 여러 신들에게 일일이 따로 준비하여 고사를 치르는 것이라고 한다. 제일 먼저 하얀 '산시무'를 띄서 산체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백설기로 따로 시루를 준비해서 썼지

만 요즘에는 붉은 시루떡 위에 조그맣게 백설기를 얹어서 쬐낸다고 한다. 산에다 대고 빈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청마루에서 산쪽을 바라보면서 간단히 비손을 한다. 그 다음에는 성주대감에게 비손을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빈다. 시간은 보통 아침 10시경쯤 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한가한 때를 대한다. 대청마루에서 고사가 끝나면 붉은 시루떡을 잘라 각 빙, 부엌, 우물, 장독, 문천 등 곳곳에 놓는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시켜 동네에 일일이 떡을 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혼자서 고사만 지내는 게 보통이다. 장맛이 좋아야 집안이 잘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지금도 장독에 는 맥, 물과 막걸리 한 사발을 떠서 놓고, 문전에도 좋은 일 있으라는 뜻으로 맥과 물, 막걸리를 놓는다. 즉, 안절해씨 집에서 막걸리를 놓는 곳은 성주와 태주와 대문, 걸립 등 네 곳이며, 이 외 방에는 떡만 놓게 된다. 고사를 하는 동안 바깥어른은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할머니 혼자서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과거에는 시루를 여러 개 찍어서 곳마다 각각 다른 시루로 고사를 지냈으나 이제는 하나의 시루에 붉은 설기와 백설기를 한번에 찍어서 그것으로 고사를 치른다. 작은 상에 시루를 올려놓고 왼쪽에는 정한수를 떠놓고 오른쪽에는 막걸리를 한 사발 놓는 것이 기본적이 고사상 차림이다. 이 외 다른 것은 놓지 않는 간단한 상차림으로 가을고사가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짐을 알 수 있다.

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떡을 몇몇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나 이제는 사람들이 이 전처럼 떡을 먹지 않아 때로는 내다버리기도 한다면서 이것이 시루를 격게 찍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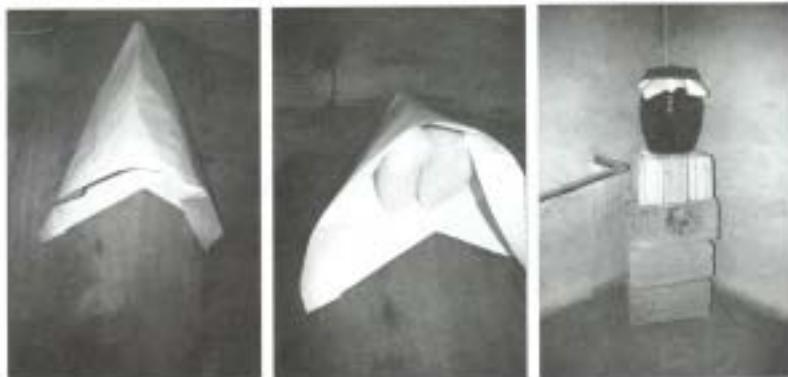
3) 방영분 할머니 덕⁸²⁾(전승)

마을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들 가운데 일 년에 세 번 모두 고사를 지내면서 신체(神體)를 가지고 있는 집은 방영분 할머니 댁뿐이었다. 집 뒤 장독대

82) 조사일자 : 2001년 1월 14일
제 보자 : 방영분씨(여, 70대)

근처에는 '터주가리', 안방 다락에는 '불사주머니'(삼신이라고도 함)가 매달려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대감합아리'가 있었다. 터주가리는 찻아리 안에 벼와 '사고지', 돈을 넣고 뒤에 깊가리를 썩웠다. 불사주머니에는 무명천 주머니에 밭을 넣어 창호치로 고맙을 만들어 죄워놓았다. 터주가리와 불사주머니의 밭은 가을에 깨내 그 밭로 고사를 지내고 새 것으로 갈아엎는다고 한다. 대감합아리는 7월에 쓸어 고사를 지내고 빙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가을에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한다.

방들어나는 과거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신체(軀體)도 그대로 모시고 고사도 전통적 방식 그대로 한번도 쉬지 않고 해왔다고 한다.



불사주머니 애 불사주머니

불사주머니 모태 낙어운 헐

염연분씨 애 대감합아리

10. 대장동

1) 박승구씨 댁⁸³⁾(전승)

(1) 유래와 역사

박승구씨는 수원에서 대장동으로 서집을 찾았는데, 이 집에서 하는 가신고사는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꿈만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라고 한다. 지금

⁸³⁾ 조사일시 : 2001년 1월 14일
제 보자 : 박승구씨(여, 62세)

도 과거 집안에서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한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현재 박승구씨 댁에서 남아 있는 자신의 신체는 터주가리이다. 터주가리는 집 뒤의 장독대 옆에 만들어 놓았다. 터주가리 속에 단지는 넣지 않고 말뚝을 꽂아놓고 짚가리만 쬐워 놓았다. 과거에는 시주단지(속에 밭을 넣어 둠, 마루에 있었다고 함)와 제석주머니(쌀을 넣어둔 무명주머니와 살타래를 달아놓고 뒤에 중이고깔을 쬐워 둠, 안방 다락에 있었다고 함)도 있었으나 40년 전 분가한 후 시주단지와 제석주머니는 없앴다고 한다.



박승구씨 댁 성주



박승구씨 댁 터주가리

(3) 계일 및 준비 과정

고사는 정월과 칠석, 10월 상단에 한다. 정월에 하는 것은 보름 안에 길일(吉日)을 결해서 하는데, 보름을 넘기지 않는다. 10월 상단도 길일을 결하여 주로 말날 또는 채지날에 한다. 고사 시간은 주로 저녁에 한다. 과거에는 고사 날 황토와 물을 대문 좌우에 떠놓았으나 40년 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고사를 지낼 때 순서는 성주(대청) → 터주가리(장독대) → 제식(안방 구석, 제석주머니가 있던 곳) → 우물 → 화장실 → 대문으로 하고, 잠시 있다가 환방 중이 되면 대감(마루의 안방 입구 쪽 대감향아리가 있던 곳)에 옮긴다.

진설은 떡시루와 정화수만을 올리며, 한끼번에 각 신체 앞에 진설을 하고 성주 앞에는 절을 세 번 하고 비손을 하지만,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신체에 대해서는 위의 순서대로 가서 절을 하고 비온을 한 후 침상(撫床)한다고 한다.

(5) 제의 도구와 제풀

멕시루는 안시루, 터주시루, 지식시루, 대감시루, 우물(용왕)시루, 화장실시루, 문간시루로 모두 일곱 시루를 편다. 모든 시루의 빙은 맵쌀과 쌀쌀을 넣어 하는데 안시루는 팔가루를 위에 올린 붉은설기를 하고, 터주시루는 상단에는 배살기 하단에는 팔을 넣어 하며, 대감시루는 팔가루에 검정공을 머무려 씨며, 우물시루는 안시루와 같이 붉은설기를 씨며, 화장실시루도 붉은설기를 한다고 한다.

2) 유명자씨 덕84(전승)

(1) 유래와 역사

유명자씨는 이 곳으로 시집을 온 후 시어머니에 빼운 대로 가을고사를 지내고 있다. 천정과 시집이 가을고사를 지내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면서 천정에서는 가을고사를 지내기 전 대문 밖에다 황토를 떠다 놓은 했는데 시집에서는 하지 않고, 대문 밖에 물도 떠다 놓지 않아 처음에는 의아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이원주(84세)씨 역시 언밀히 말하면 이곳 토마이가 아니라 황해도 평안에서 1·4 후회 이전에 이주한 이복 사람이다. 따라서 가을고사를 지내는 방법도 이복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처럼 이복에서 월남한 가구수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외지인의 유행이 한 마을의 풍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체의 위치와 형태

이주한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고사를 지내지 않았으나 집안에 무한이 끊이지 않자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하는 생각에 다시

84) 조사일자 : 2001년 1월 14일
제 보 자 : 유명자씨(여, 51세)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집에서는 '조상'이 단지가 아닌 궐막을 신체로 사용했는데, 그 안에는 대감 웃, 별거제 등이 들어있었으며 때문에 매달이 놓고 데리면 고사를 지내곤 했다고 한다. 이는 3년에 한 번씩 국을 할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꿔주곤 했는데 많이 넣을 때는 16벌이 들어갔다고 한다. 새 웃으로 바꿔줄 때는 본래 안에 들어있던 웃은 대왔다. 이런 방식은 이복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북에서 했던 방식대로 계속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감항아리는 전년방 구석에 있었는데 1년에 한번씩 첫 모내기 할 때 그 쌈을 끼내 밥을 짓어서 일꾼들에게 먹이곤 했다. 벽창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세식단지를 모셨었고 터주를 장독대에 모시기도 했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3) 제일 및 준비 과정

시어머니가 고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했을 때에는 성남 창곡동에서 살았던 '이복할머니'라는 별칭의 반신에게 고사날짜를 물었으나 현재는 머느리인 유영자씨가 광불암이라는 암자에 가서 백일을 해온다.

(4) 제의 절차와 내용

집에서 직접 떡을 찍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땅앗간에서 시루떡을 해오는 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떡이 준비되는 대로 고사를 시작한다. 시어머니가 연로하신 관계로 지금은 주로 머느리인 유영자씨 혼자서 간소하게 고사를 치르는 게 보통이다.

제일 먼저 안시루를 마무리다 놓고 비손을 하고 접을 한 후에 장독대 있는 자리에 가서 산 쪽을 바라보면 다시 비손한다. 그 다음에 땅마다 떡을 다 놓는 것으로 간단히 끝난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고사를 치를 때 7시루를 제기도 했는데 그 때는 대감항아리 있는 곳, 장독대 있는 곳 등 7곳에 각기 다른 시루를 놓았다고 한다.

(5) 제의 도구와 제물

유영자씨가 시집을 온 처음 얼마 동안은 고사지낼 때 시루를 7개 썼다고 한다. 그 중 꽂시루가 4개이고 배설기가 3시루(조상시루, 칠성시루, 산시루)였다. 고사상은 성남의 대부분 지역이 간소하게 차리는 반면, 이곳은 상대적으로 올

리는 제물이 많았다. 상 가운데 시루를 올리고 막걸리를 떠놓으며, 왼쪽에는 돼지머리, 오른쪽에는 사과, 배, 감 등의 과실을 놓는다.

곳곳에 놓을 때마다 맥과 과일, 술은 새 것을 놓지만 볶어는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자동차가 있는 곳에는 새 볶어를 끼내 놓는다고 한다. 정월고사는 자내지 않는 반면, 칠월칠식 때는 해안 밀맥을 무쳐 절에 가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V. 조사 결과의 분석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가정신앙은 가신(家神) 혹은 가택신(家宅神)에 대한 제의로 표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형태를 대개 '가신신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전승의 가신 제의를 정하는 민속어휘는 '고사(告祀)'로 나타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기별로 정월고사, 칠월고사(혹은 칠식고사), 10월고사(혹은 상달고사)로 나타나며, 절안 단위로 행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절안고사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10월고사는 성남지역에서 거의 전부 '가을고사'로 불리면서 가신 제의 중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사례이다.

이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남지역에서 현재 가신의 신체를 모시고 있는 가정은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신체는 없더라도 절안 고사를 통해 가신에 대한 의례는 꾸준히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되었던 모든 집에서 둑 간이 행하고 있는 음력 10월, 소위 '상달'에 행해지는 가을고사는 그 해 새로 수확한 곡식에 대한 감사제(感謝祭)의 성격이 강하다. 그 때 집안 곳곳에 떡을 해서 갖다두는데, 각 장소마다 좌정례 있다고 믿는 신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해 첫 수확물로 떡을 해서 '조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가신에 대한 민간신앙적 성격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민들이 은연중 이러한 신앙을 '비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신 제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신격(神格)과 그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장소는 대개 다음과 같다. 마루에는 성주, 안방에는 삼신(재식, 또는 삼불제식) 혹은 조상, 그리고 마달 뒤뜰 창독대 옆에는 터주가 모셔져 있고, 그밖에 부엌

에는 부뚜막 위 조왕님에게 올린다. 대문에도 벽을 갖다두지만 이 곳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은 파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끼리 인식 속에서는 현재 성주나 터주 정도가 남아 있을 뿐, 그밖에 조왕이나 측신, 업, 문신 등에 대한 신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설지어 어떤 절에서는 그저 떠시부를 마루의 대들보가 위치한 만한 자리 아래에 잘시 두었다가 그대로 벽을 잘라 나뉘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설남지역에서 앞으로 가신신앙의 전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의 과정을 잘 분석해 보면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신들 사이에 위상의 차이, 혹은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고사상의 제물을 통해 보면, 성주, 터주, 그리고 안방에 모신 삼신, 제식 혹은 조상신의 경우에는 제물로 벽을 시루 때 놓고, 나머지 신들에 대해서는 벽을 잘라 조금씩 해당 장소에 갖다두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물로 시루 때 놓은 신격이 주민들의 삶에서 보다 중요하고 중심되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이를 각 신의 직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결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바라는 바가 투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주는 주택 자체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원의 무사 안녕을 주관하며, 특히 가장(家長)의 안전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서 매우 중요한 신격이다. 그리고 삼신 혹은 삼신제식(삼불제식)은 지속적인 가족 구성원의 화보를 주관하는 신격이다. 아이의 젊지, 안전한 출산, 산모와 아기의 안녕, 아이의 성장을 모두 책임지는 존재인 삼신(제식)은 새로운 성원을 확보함으로써 가(家)의 영속성을 확보해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한 기능은 전통사회에서는 대개 안방이란 주택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때문에 그 곳이 삼신의 좌정처가 된다. 대개의 경우 제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집에서는 불교를 믿고 있거나 종종 무당을 불러 젊은 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집이 많은데, 이는 고유 신앙과 불교의 습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삼신이 곧 조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자손의 번창은 돌아가신 조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볼 수도 있다.

가신 가운데 결기도 지방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터주이다. 명칭도 터주님, 터줏대감, 빛대감, 터, 그리고 '대감님' 등으로 다양하게 일컬어지며, 대개 두 신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구별해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 터주는 대개 신체로 할아리 촉에 베를 닦고 그 위를 절가리로 덮은 형태를 가지는데, 집에 따라서는 할아리 대신 나무 막대를 꽂아둔 위에 절가리를 쳐운 경우도 있다. 이 터주는 집이 자리잡고 있는 공간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터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경에서 중요를 담당하는 생산신적 성격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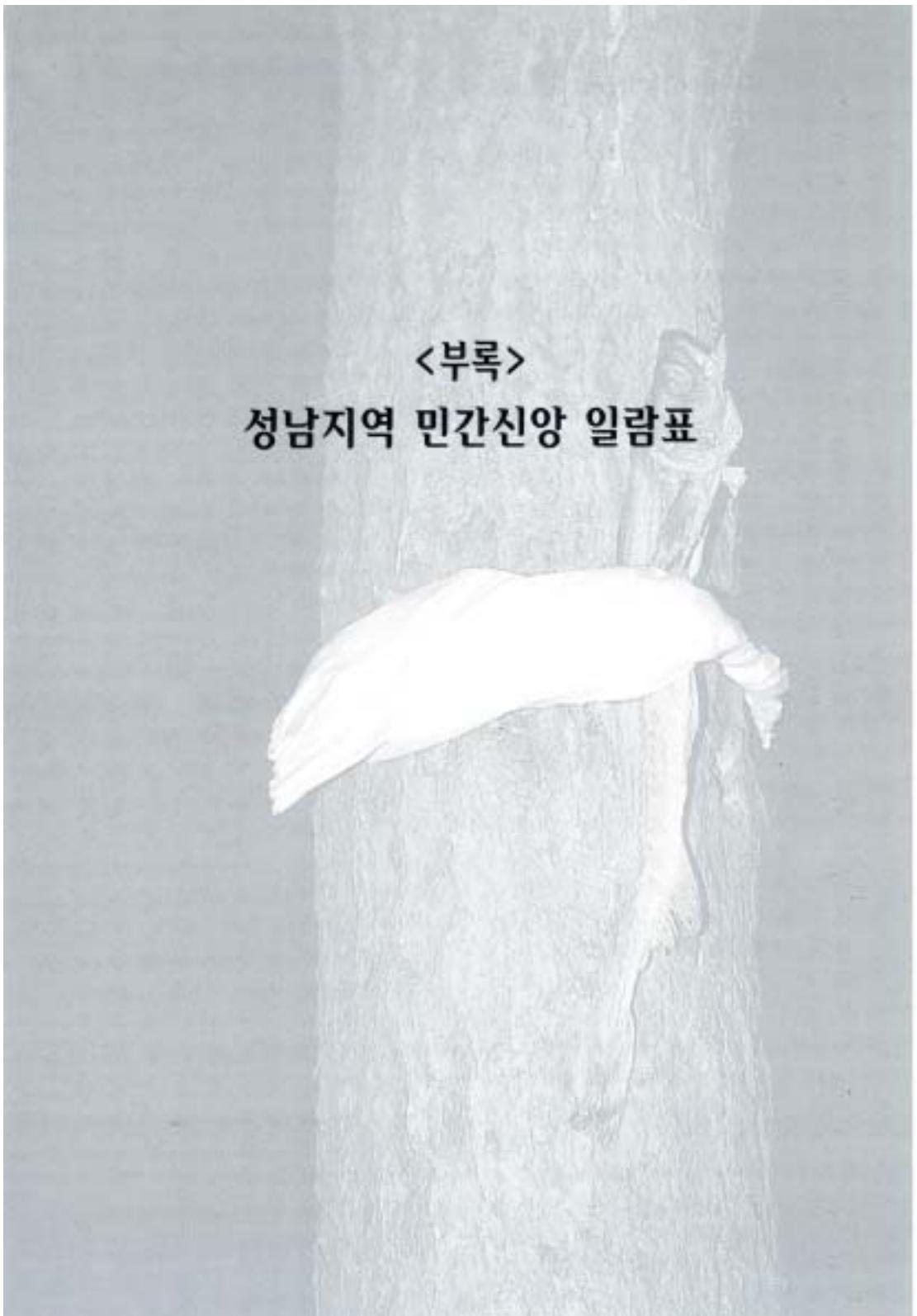
한편, 가을고사가 점안 식구들 모두의 안녕과 중요, 행운을 비는 중요한 종교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의는 대개 집안의 주부가 담당하는데, 시어머니에서 머느리로 대물림된다. 전통적으로 절구를 찔어서 떡을 하고 제물을 준비해 축원을 하는 등 고사를 치내는 전 과정이 여성들의 몫이다. 그러나 대문 앞에 활도를 뿐만 아니라 규줄을 치고 떡시루를 들어 내리는 등의 보조적 일은 남자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고사날을 앞두고 금기를 행하며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점안의 안팎주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의는 점안 전체의 중요한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신 제의의 규모가 줄어들고 절차도 소략해졌으며, 일 년 동안 제의를 행하는 횟수 역시 감소했다는 것은 전통적 가정신앙에 대한 주민들의 종교적 신앙심이 많이 끼색혔음을 알려준다. 최근 들어 특히 주민들은 가을고사 행하는 것을 '가을떡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이웃간에 음식을 나누어먹는 계비로 한다고 하였다. 가을고사는 점안의 행사이지만, 서로 고사떡을 돌리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이웃간의 정을 돋우기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비록 악식으로 변하기 했지만 지금까지 가을고사의 전승이 활발한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떡을 돌리는 것도 마을 내 기독교도들이 늘어나고 외지에서 새 들어 사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이웃에 다 돌리지는 않는다. 그저 가까운 이웃들끼리만 나눠먹게 되었고, 때문에 떡을 하는 양도 서너 되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 모든 상황은 가신신앙의 점진적 쇠퇴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신 제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대여 신들과 그들에 대한 신앙은 또한 주택의 개량과 맞물려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주택을 개축하면서 대들보가 침장에 묻히게 되었고, 따라서 보통 한지를 짊어 대들보에 깨닫아두는 성주의 신체를 과정시키기에 부적합해지면서 신체가 없는 '전궁성'

주'가 되었다. 그리고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첨경의 마을들에서도 경제적 여유를 위해 집에 세를 주기 위해 주택을 증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당이 거의 사라져버렸으며, 시멘트로 마당을 바르게 되었는데, 이 때 뒤뜰의 터 주가리 역시 신체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즉, 가을고사라는 제의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앙은 다양한 직능(職能)의 신격들을 포함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직능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좌정하고 있는 주택공간의 서구식(西歐式) 변화가 신체를 소멸시키고, 또 신체가 소멸되면 그에 대한 신앙의 강도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편함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와 경향이 점안 고사의 횟수를 줄여들게 하였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가을고사 역시 농사를 짓는 가구가 사라지는 것과 맞물려 언젠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한 부수적 원인으로 기독교 인구의 급속한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외래종교로서 기독교가 이 땅 사람들의 민족적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보게 한다.



<부록>
성남지역 민간신앙 일람표

부록 1. 성남시의 마을의례

부록 2. 성남시의 가정의례 (전승)

구	종	제보자	최 랜 명 풍	희례대상(신례) 및 위치	희 랜 일	희 랜 철 차	제	비 고
수 리 종	한	박경래	가을 마흔다	성주(할금)~마을로 마을 타주(할금)~합복대 어주대길(할금)~정복대 한국(할금)~오행	음력 10월 중	성신~설주~타주 ~다행대길~남한 신선(한재당)~드 근~부친~감~리 영간~고행	시루에 흰 백설기(유) 흰 설기, 막걸리 (풀로 대접하 기도 풍)	
	한	조규애	가을 고사	당신예식(한자로) 안드 그을 씨에 합복(한자)~마을 성주(할금)~마을로 타주(할금)~주하리~집돌간 옥 터여길(한자) 솔~집돌간 옥 정구님(한자)~리우 빠찌(한자) 안걸린 죄	음력 10월 중 (한재당)	설신~설주~조 원(부인)~산신 (간마령)~정고 날~터주~대대 길~서님(한마 령)~분신(대분 ~)	풀시루파, 막걸리, 흰	
	한	강현숙	가을 마흔다	성주(할금)~마루 타주(할금)~합복대	음력 10월 중 (무오월)	마루~각암~침 마다~우월	풀시루파, 풀 달은 그릇, 백여, 음	
고 려 온	한	이경순	가을 고사	성주(할금)~마루 조행(할금)~부암 타주(할금)~합복대	음력 10월 중 (묘자날)	안행~성주~타 주~부족~마루 ~침암	풀시루파, 막걸리	예전에는 성주의 신례기 였었음.
	한	신경운	가을 고사	인취(할금)~마루 조행(할금)~부암 타주(할금)~합복대	음력 10월 중 (묘자날, 달날)	날우~조행~타 주~대문~광~ 우물~화장실	풀시루파, 썩어 떡군의 남수, 분식그림	
	한	김미경		특별히 인식하는 가신과 선제 절 을.	음력 10월 중 화정(한 달)	각암~화장실~ 합복대~마당	풀시루파	예전에는 흰 짚고 진행~나 무, 오동나무 작성을 드렸
경 운 종	한	김명실	가을고사	특별히 인식하는 가신과 선제 절 을.	음력 10월 중 (묘자날)	온~일~모란~ 화전~화장실~ 부암~자~한수 풀하기	풀시루파, 풀	2003년에 접 풀 세운 뒤고 전행(마을)을 지 냈. 계절로는 당죽(설국) 때는 복거와 꽃무더 기 생김
	한	민병관	현행고사 (한재)~ 성주(마을)	터주(별을 묻은 사발)	음력 10월 중 (태지날)	마루~침복~모 간~우물(생)~ 부암~한수~자~ 풀로 터주 에 놓기	풀시루파, 풀	풀 별 고사 퍼 가 풀 고사 이 단서와 계절 은 동일
	한	최승호	성달고사	성주(할금)~마루로 마을로 마을 타주(할금)~합복대 초행(할금)~부암 십크대 뒤	음력 10월 10월날, 술풀날, 소날)	성주~터주~대 문~조행~화장 실~거제~자~통 자~랑	풀시루파, 풀, 풀	시 어 머니 가 을마기사연서 터 주 거 린 풀 알았.
사 육 종	한	김인자	성달고사	조성선(할금)~간성 성주(할금)~마루 타주(할금)~합복대	음력 10월 중 화정(한 달)	성주~터주~조 성선~부암~화 장실~감~광	풀시루파, 한은부(한)조 성선(풀시루 우), 썩어, 풀 (그리)	시 어 머니 가 을마기사연서 터 주 거 린 풀 알았.
	한	김인규	가을고사	선언(할금)~05월에서 뇌한는해 성주(한자)~침호지~대청서 선언(한자) 타주(한자)~합복대 옥	음력 10월 중 화정(한 달)	선신~성주~신 주~각암~부암	깨임자, 한은부(한)조 성선(풀시루 우), 썩어, 풀 (그리)	집을 신축하 면서 대주기 리를 없앤.
충 진 종	한	도현교	가을고사	성안(침호지) 고을 단에 쿠주마 니~05월 마릿목 성주(한자)~대청 타주(한자)~05월 뱃문 뒤, 허 끌, 침복대 둘 세 곳	음력 10월 중	선신~성주~신 주~각암~대본	백설기, 블은 설기, 쌀은대 지고자, 썩어, 막걸리	

구	통	제보자	성명	의례대상(단체) 및 위치	희례일	희례할자	내용	비고
한	한	한관숙	가을고사	삼생세마(한지도 흰은 고을모임)~ 단립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간 밤~거울~ 주변~화장실~	마실기, 봄은 설기	예전에는 20 년에 한 번 만들었지만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
한	한	김길희	가을고사	타투(자주기리)~한복과 복	음력 10월 10일	가 견~주 밤~ 수는기~장한~ 창고	동시투파, 자갈리, 오	예전에는 20 년에 한 번 만들었지만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
한	한	이봉녀	가을고사	현주(현묘)~미루 현제제(현제제)~미루 미루(미루고리)~장화대 밭 환경보호(환경)~무루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설 주~설 물~제 방~한~우물	마실기, 봄은 설기, 물~ 식물기	설에 2월 10일 에는 고제를 진행하는데 설은 사계제와 나마제(마와는 설연)를 포함
한	한	대간활 허니	가을고사	설우(설우)~대침 단우(단우)~장화대 밭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설 푸른~설 주~ 설 푸른~설 밤~ 설 푸른~설 밤~ 설 푸른~설 밤~	시루파, 미술 교, 마실기, 대자 어린책마포	설우, 푸른, 설 화마로 신자 가 모두 200 그니 생년
한	한	김경희	가을고사	현주(현묘)~미루 타투(현묘)~장화대 밭	음력 10월 10일	설 푸른~설 주~ 설 푸른~설 밤~ 설 푸른~설 주~ 설 푸른~설 밤~	동시투파	설에 20 년에 한 번 만들었지만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
한	한	고정향	가을고사 가을고사	제사, 고을에 있는 물 주이니~인법 제사(제사)~미루 제사(제사)~장화대 밭 제사(제사)~장화대 밭	음력 1월 10일 (무오일)	설 주~설 주~ 설 푸른~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동시투파, "이풀이"	
한	한	김향선	가을고사	설우(설우)~대침 대침(대침)~제한제 향마리~대침 제작(제작)~제한제 향마리~대침 설신(설신)~제한제 향마리~ 미루(미루)~장화대 밭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설 주~설 주~ 설 푸른~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마실기, 봄은 설기, 자갈리, 물	예전에 제내 인법을 고사 제작하고사 면 좋았던
한	한	홍준남	가을고사	설우(설우)~미루 단우(단우)~장화대 밭	음력 1월 10일 (무오일)	설 푸른~설 주~ 설 푸른~설 푸른~	마실기, 봄은 설기, 물	예전에는 대 간활 아전 모 보신
한	한	박춘은	가을고사	설우(설우)~대침마루 단우(단우)~장화대 밭	음력 1월 10일 (무오일)	설 주~설 주~ 설 푸른~설 푸른~	동시투파, 물	
한	한	문동구	가을고사	짜벌터 단식하는 가신과 산재 업로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대 험~점축대~ 부령~간장~ 대 험~점축대~ 부령~간장~	동시투파, 미 술의	
한	한	민종철	가을고사	초설단지~대침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초 삼~부령~간 장~부령~간장~ 부령~부령~ 나루~자돌자	동시투파, 물	40년 전부터 가신을 모셨.
한	한	김상배	가을고사	설주~가설 출입문 위	음력 10월 초소	설 주~대 문~ 설 푸른~푸른~ 설 푸른~설 푸른~	동시투파, 물 설 푸른, 물	
한	한	홍대식	정월 고사 가을고사	설대길한마리~단립 침통 업	음력 1월 10일 (무오일)	설 주~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동시투파, 미 술의	
한	한	미경임	가을고사	설신주머니~단립	음력 10월 10일 (무오일)	설 신~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설 푸른~설 푸른~	마실기, 봄은 설기, 물	무를 먹었을 때 물을 먹어야 했던 것으로 모셨.

202 충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책임연구원

장철수 (전 한국경신문화연구원 교수, 작고)

조병로 (경기대 인문학부 사학과 교수,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연구원

김덕록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유승훈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안태경 (한국경신문화연구원 박사과정)

방인아 (한국경신문화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

원보영 (한국경신문화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

임원순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성남향토문화총서Ⅰ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 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 –

인 대 : 2001년 2월 10일

발 행 : 2001년 2월 20일

발행인 : 박 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촌지도소 2층

전화 : 031-781-1020 팩스 : 031-709-5246

인 대 : 동아인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3

전화 : 031-755-1571 팩스 : 031-754-4118

이 보고서는 문화관광부·경기도·성남시의 향토문화조사연구비 지원에 의해 발간되었음.